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 1960-1980년대 청년 코호트의 노동 궤적(work trajectory) 비교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변금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0-80년대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만19-29세에 관측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비교하고, 이행 과정이 가족배경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청년 문제는 노동시장 이행 실패로 압축된다. 장기적 침체와 노동시장 변화는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행 기간이 늘어났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진입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머무는 청년들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부모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성과 불평등 심화, 교육계층화 수준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이행 과정은 가족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청년층의 순조롭고 안정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와 그 동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미시 혹은 거시적인 이론을 분절적으로 적용해 단일한 이행 사건을 분석하는데 그쳐 총체적 이행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와 그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미시와 거시적 이론을 통합한 생애과정 이론(Life-course theory)을 기반으로 1960-80년대 출생코호트(birth cohort)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관측되는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으로 정의하고, 만19-29세 시점의 노동궤적(work trajectory)으로 유형화했다. 노동시장 근착성(labor market attachment)과 노동 불안정성(work precariousness)을 반영한 노동 안정성으로 이행 과정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노동시장 진입 전 노동상태 변화(employment status change)와 진입 후 고용이 유지되는지를, 노동 안정성은 임금과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일자리 질 변화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행 과정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집단내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데 적합한 종단적 잠재계층분석(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인 집단기

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궤적을 도출하고 코호트간 궤적 분포와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반화선형회귀분석(OLS)과 요인분해를 이용해 이행 과정 결정요인의 코호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개인 및 부가조사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1962-1985년생이 19-29세에 경험한 노동상태 변화의 월별 자료를 구성했다. 그리고 코호트간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사회경제적 사건과 거시적 환경을 기초로 총 4개의 출생코호트(60코호트 1962~68년생, 70코호트 1969~73년생, 75코호트 1974~80년생, 80코호트 1981~85년생)로 나눴다. 이 가운데 노동상태 관련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5,653명이었고, 임금 정보가 있는 사례는 4,332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변화는 각각 6개의 궤적으로 유형화됐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조기진입 이탈’, ‘조기진입 불안정’, ‘장기교육 진입지체’, ‘조기분절 이행’,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으로, 노동 안정성은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으로 분류됐다.

둘째, 코호트간 노동궤적 분포와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불안정하게 변화했다.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찍 진입해 이탈하는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 ‘대학재학-취업’ 유형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상태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엔트로피, 상태변화 횟수, 경험한 일자리 개수는 증가했다. 또한 이행의 분절 수준도 높아져서 미취업 기간이 증가했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 안정성도 낮아졌다.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 에 바로 진입하는 유형이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시장 진입 유형은 증가했다.

셋째,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 증대 정도는 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달랐다. 여성의 노동시장 근착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노동 안정성은 여전히 낮았

다.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일자리 질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수준 상향화로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내적 분화가 관찰됐다.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청년층이 증가했는데, 고학력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코호트 고학력자 중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은 크게 감소하고, 그 자리를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 대체했다. OLS와 요인분해 결과, 최근 코호트의 고학력자 증가(특성효과)는 노동 안정성을 높였으나, 고학력이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영향력은 감소해 노동 안정성을 떨어뜨렸다.

넷째,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 낮은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아버지를 둔 청년은 과거에 비해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이 증가했으나, 중졸 이하 저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졸 이하 저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 ‘저임금 유지’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졸과 전문대 진학 이상 아버지를 둔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요인분해에서 아버지 교육 계수의 변화는 미미했으나, 고학력 아버지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지됐다.

분석 결과는 거시경제적 조건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이 모든 청년층에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행의 어려움은 전통적 노동 취약집단인 여성, 저학력자에게서 집중적으로 확인됐으며, 가족배경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도 부분적으로 발견됐다. 이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행 과정이 불안정해지는 이행의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 양상이 한국 청년층에서도 관측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과 노동시장 이행 연구 이론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했다.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인식해

야 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은 생애과정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청년기 생애과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행 성과가 낮은 여성, 저학력자,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층 지원 방안과 불안정성이 증가한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어 : 청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학교-노동 이행, 노동시장 이행, 노동궤적, 노동 불안정성, 생애과정, 계층화, 집단기반궤적분석, 코호트 연구

학 번 : 2011-30876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현황	8
1. 청년층의 정의	8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의미	9
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	10
제 2 절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	17
1. 미시적 설명	18
2. 거시적 설명	24
제 3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31
1. 생애과정 관점에서 바라본 이행 과정 변화	31
2. 한국의 거시적 환경 변화	40
제 4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48
1. 연구문제	48
2. 연구가설	49
제 3 장 연구방법	56
제 1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개념과 측정	56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개념에 대한 두 관점	56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개념화와 관련된 쟁점	59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개념과 측정	64
제 2 절 분석대상	69
1. 분석대상	70
2. 분석자료	73
제 3 절 분석모형	78
제 4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탈표준화	80
1. 이행 과정 유형화	80

2. 이행 유형 특성 비교 분석	89
제 5 절 계층화: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 관계 변화	91
1.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계	91
2. 요인분해	94
3. 변수설명	96
제 4 장 분석 결과	98
제 1 절 일반적 특성	98
제 2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104
1.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104
2. 노동 안정성 변화	123
3.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	141
4. 소결	143
제 3 절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6
1.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근착성의 관계	146
2. 가족배경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	158
제 5 장 결론	168
제 1 절 결과의 요약	168
1. 이행 과정 유형화	168
2. 이행 과정 변화	170
제 2 절 논의	174
1. 이행 과정 변화	174
2. 이행 과정 계층화	176
제 3 절 정책 제언	178
제 4 절 연구의 의의	180
제 5 절 연구의 한계	181
참고문헌	184
부록	212
Abstract	224

표 목 차

〈표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18
〈표 2〉 시기별 거시적 환경 변화	41
〈표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개념 구성	59
〈표 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측정	65
〈표 5〉 출생코호트별 기회구조 유형화	70
〈표 6〉 분석대상	72
〈표 7〉 자료 구성	77
〈표 8〉 주요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96
〈표 9〉 분석대상 일반적 특성	99
〈표 10〉 분석대상 일자리 특성	102
〈표 11〉 최적 유형 수 추정	104
〈표 12〉 6개 집단 모형 적합도	105
〈표 13〉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108
〈표 14〉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다양성 및 분절 수준	108
〈표 15〉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특성 요약	111
〈표 16〉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114
〈표 17〉 코호트별 다양성 및 분절 수준 변화	120
〈표 18〉 상태 변화 횟수 평균 및 미취업 기간 비중 변화	122
〈표 19〉 최적 유형 수 추정	123
〈표 20〉 모형 적합도	124
〈표 21〉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127
〈표 22〉 노동 안정성 궤적별 다양성 및 안정성 수준	127
〈표 23〉 노동 안정성 궤적 특성 요약	130
〈표 24〉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133
〈표 25〉 코호트별 다양성 및 안정성 수준 변화	138

〈표 26〉 임시일용직 및 저임금 노동 비중 변화	139
〈표 27〉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상관관계 변화	143
〈표 28〉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	147
〈표 29〉 아버지 직업지위가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	149
〈표 30〉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근착성 요인분해	152
〈표 31〉 아버지 직업지위와 노동시장 근착성 요인분해	157
〈표 32〉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관계	159
〈표 33〉 아버지 직업지위와 노동 안정성의 관계	161
〈표 34〉 아버지 교육 수준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 변화	163
〈표 35〉 아버지 직업지위와 노동 안정성 요인분해	167
〈표 36〉 코호트 특성에 따른 이행 과정 변화	171
〈표 37〉 개인 특성에 따른 이행 과정 변화 양상	172
〈표 38〉 노동시장 이행 과정 요인분해 결과 요약	173

그 림 목 차

〈그림 1〉 OECD 주요국 15-24세 청년층 실업률	11
〈그림 2〉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층 중 니트 비율	12
〈그림 3〉 청년 및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13
〈그림 4〉 15~29세 청년층의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실업률 추이	14
〈그림 5〉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대비 청년 실업률	15
〈그림 6〉 2004년-2017년 청년층의 첫 일자리 경험	16
〈그림 7〉 한국 및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추이	43
〈그림 8〉 15-29세 신규취업자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	43
〈그림 9〉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	44
〈그림 10〉 경제적 불평등 추이	47
〈그림 11〉 코호트의 연령에 따른 역사적 시간 위치	71
〈그림 12〉 분석모형	78

〈그림 13〉 연령에 따른 상태 분포 코호트 비교	103
〈그림 14〉 연령에 따른 고용률 변화 코호트 비교	103
〈그림 15〉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106
〈그림 16〉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상태 분포	106
〈그림 17〉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112
〈그림 18〉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상태 분포	113
〈그림 19〉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115
〈그림 20〉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변화	116
〈그림 21〉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변화	117
〈그림 22〉 가족배경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변화	119
〈그림 23〉 노동 안정성 궤적	125
〈그림 24〉 궤적별 연령에 따른 상태 분포	126
〈그림 25〉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	132
〈그림 26〉 코호트별 노동시장 안정성 궤적 상태 분포	133
〈그림 27〉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 변화	134
〈그림 28〉 성별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	135
〈그림 29〉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	136
〈그림 30〉 가족배경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변화	137
〈그림 31〉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교차 분포	141
〈그림 32〉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의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142
〈그림 33〉 아버지 교육수준·교육수준 요인분해 결과	155
〈그림 34〉 아버지 교육수준·본인 교육수준 요인분해 결과	165

부 록

부록 1: 19-29세 노동시장 장기 미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	212
부록 2: 직업력 자료의 구조와 조정	214
부록 3: 유형 수 증가에 따른 궤적 분화	217
부록 4: 여성과 남성 궤적 분석 결과	219
부록 5: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 통합 모형	220
부록 6: 거시적 환경 변수 추가 모형	222

부록 표

〈표 A1〉 장기 미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	212
〈표 A2〉 장기 미상 집단 포함 노동 안정성 모형	213
〈표 A3〉 직업력 변수의 구조	214
〈표 A4〉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 안정성 통합 모형	220
〈표 A5〉 아버지 직업지위와 노동 안정성 통합 모형	221
〈표 A6〉 노동시장 근착성 모형	222
〈표 A7〉 노동 안정성 모형	223

부록 그림

〈그림 A1〉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화	217
〈그림 A2〉 노동 안정성 궤적 분화	218
〈그림 A3〉 성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219
〈그림 A4〉 성별 노동 안정성 궤적	219

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1960대년부터 1980년대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만19-29세 시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비교하고, 이행 과정이 가족배경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20대 청년을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거부하고 투정만 부리는 세대로 치부했다.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부모들이 포기했던 대학교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눈 높은’ 철부지였다. 어른들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청년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성인이 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여겼다.

하지만 상황은 변했다. 20대 태반이 백수이고(이태백), 인문계 90프로가 높고 있다(인구론). 대부분이 대학교에 진학하지만 대학교 2학년부부터 취업 걱정에 방황하고(대2병), 3학년이 되면 스펙 쌓기와 성적 관리에 치여 사망할 수준이며(사망年), 졸업 후에는 실업자가 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신용불량자가 된다(청년실신). 취업을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가? 일하려는 고스펙 청년들은 넘쳐나고 일자리가 없으니 스펙이라도 쌓기 위해 ‘열정페이’에 혹사당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 해 인턴생활만 반복하다 ‘부장인턴’이라는 직함을 얻는다. 심지어 이사 갈 때면 버려지는 이케아 가구처럼 고스펙이지만 단기고용을 반복하는 ‘이케아 세대’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다.¹⁾ 이에 더해 이행의 어려움이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턴마저도 소개나 추천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인턴을 뜻하는 ‘금턴’과 단순근로와 저임금이지만 경력 공백을 없애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흙턴’으로 구별된다. 청년들은 수저계급론에 비추어 자신의 미래를 전망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의 문제는 성인으로 이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실패로 확장되고 있다. 이행의 지체와 어려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신조어는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애, 취업, 결혼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에서 출산과 집도 포기하는 오포세대로, 이에 더해 희망과 취미를 포함해 칠포세대, 더 나아가 이젠 모든 걸 포기한다는 N포세대로 확장되었다. 3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갱겨루족은 이제 부모의 연금까지 축내는 ‘빨대족’으로 전락했다.

하고 있다. 개인의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출신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기 시작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졸업한 뒤 적절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과정이 불안정해진 것에 있다. 많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 저임금 노동시장을 배회한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5%대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차츰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5월 기준 9.3%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2017년 5월 기준 21.7%로 경제활동 중인 청년 5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다. 교육을 받지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18.5%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고등교육을 받은 니트의 비중은 24%로 OECD 평균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OECD, 201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은 노동시장에 진입 한 뒤에도 계속된다.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단시간 근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노동경력을 채우고 있다. 2007년에는 15~29세 청년층 중 신규채용된 임금근로자의 54.1%가 비정규직이었으나, 2015년에는 64.0%로 증가했다(김복순·정현상, 2016). 2017년 통계청의 청년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4%, 50만~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4%, 100만~150만원인 경우가 37.5%였다(통계청, 2017). 기초보장제도의 2017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이 165만원이고, 2016년 기준으로 저임금근로를 의미하는 중위임금의 2/3가 161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다수의 청년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설명은 미시적 혹은 거시적 이론을 분절적으로 적용한다. 첫째, 미시적 이론은 이행 실패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다. 기술발전과 산업 변화로 인해 고속도로 노동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놓이고, 남성에 비해 출산 등 생애사건의 영향에 취약한 여성이 실직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며,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

시장의 하층에 머문다. 둘째, 거시적 이론은 노동시장 변화 혹은 제도적 조정을 통해 실패 원인을 설명한다.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교육팽창으로 인해 학위의 가치가 하락하고,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산업 구조 변화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였다. 노동시장 분절로 인해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은 노동시장 외부 혹은 2차 노동시장에 머물게 되어, 다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교육체계와 복지제도 등의 제도적 조정에 의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청년층이 경험하는 이행의 실패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시적 관점은 개인에게서 실업 원인을 찾기 때문에 구조적 요소의 영향을 간과한다. 거시적 관점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이행 성과의 하락이라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유사한 노동시장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이행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미시 혹은 거시이론을 분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한국은 급격한 교육기회 확대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며, 다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낮은 이행 성과를 보인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변화, 노동시장 분절 구조의 영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지만, 전반적인 이행 성과 하락을 설명할 뿐 이행 성과 분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의 교육체계와 복지제도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조절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설명 역시 적합하지 않다.

미시적 혹은 거시적 이론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한계는 청년층의 노동 특성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본질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탐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이동성이 높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개인이 지닌 자원과 경제와 노동의 맥락을 포괄하는 거시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미시와 거시를 모두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은 미시적, 거시적 요인을 분절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시와 거시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변화는 생애과정 변화이며,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거시적 조건과 기회의 제약 속에서 미시적으로

구성된다. 생애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착하는 총체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한다. 생애과정 관점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불안정해진 것을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를 통해 설명한다. 탈표준화는 ‘전일제 학생에서 전일제 고용으로의 이행’이라는 단선적이고 전형적인 이행 유형이 감소하고, 이행 과정을 구성하는 상태(status)가 다양해지며, 실업이나 미취업 등 비연속적 상태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과거에 비해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탈표준화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이다. 개인화 가설(individualization hypothesis)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가족배경, 인종과 같은 전통적 계층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시장의 변화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을 보편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계층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다(Beck, 1992; Giddens, 1984; Heinz, 1999). 반면, 계층화 가설(stratification hypothesis)은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노동시장 기회구조 변화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계층 영향이 지속되거나 강화된다고 주장한다(Kerckhorrff, 1996; Müller & Shavit, 1998; Schoon & Silbereisen, 2009; Ross et al., 2009).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내적 격차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이유는 이행 과정 변화를 포착하여 그 동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이행 유형의 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행 과정의 내적 격차와 변화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수 연구들이 이상적 이행을 안정적 이행(stable transition), 이행의 성공(success in transition), 순조로운 이행(smooth transition), 단선적 이행(linear transition)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이 왜 더 나은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행 사건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특정 시점 취업여부 혹은 미취업탈출률을 이용해 이행 성과를 분석한다. 그러나 특정 시점 고용상태가 정규직으로 관측되더라도 오랫동안 비정규직 고용을 거쳐 정규직이 되었거나, 취업 이후 바로 실직한다면 이를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노동 상태 변화를 유형화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행을 수평적 상태 변화로 측정하고 비모수적 방법으로 유형을 도출하여, 이행 유형간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청년층의 노동 특성은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것, 잦은 상태 변화, 그리고 저임금 노동으로 요약된다. 성공적인 이행은 단순히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 과정의 질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장기간 노동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이행 과정 변화 동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려면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행 경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행 과정 변화를 기술적으로 묘사하는데 집중해왔다.²⁾ 이 때문에 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행 과정이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거시적 요인의 영향이 가족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지 못 한다. 이행 과정 계층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거시적 환경에서 이행을 경험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단일 시점 소수사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술적 분석으로 가족배경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지위획득이론 등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보여준 정형화된 결론-가족배경이 낮은 경우 노동성고가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친다.

한국의 거시적 환경 변화는 청년층 이행 과정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세대간 계층이동 감소와 소득불평등 수준 악화는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가족배경에 의해 계층화될 수 있음

2) 관련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변수중심 접근에서 이행 과정 중심 총체적 연구로의 전환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는 적합하지만, 과정 중심 연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즉, 이행 과정 분화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이행 과정을 촉발한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배열의 기원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변수 중심 연구로의 후퇴가 아니라 과정 중심 연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lanchard, Buhmann, & Gauthier, 2014; Brzinsky-Fay, 2013). 두 접근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과정중심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이행 실체를 보여주고, 그러한 이행 과정을 종속변수로 추가적인 분석을 하거나(Brzinsky-Fay, 2013; Brzinsky-Fay & Solga, 2016), 이행 과정에서 포착된 주요한 이행사건에 대해 사건사 분석을 적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최효미, 2014; Helske et al., 2015).

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성장을 기반으로 완전고용이 가능하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재편되었고, 경제적 조건 역시 악화되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하락하였다. 이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적 침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한편, 한국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결혼 혹은 취업 이후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 과거에 비해 최근 세대간 계층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으며(김희삼, 2015; 여유진 외, 2015), 소득불평등 수준 악화도 세대간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이경희, 2017). 또한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연수 차이는 줄었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의 격차는 더 커졌다(이승은·김태종, 2012). 그러나 국내연구 중 생애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와 계층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기존 연구들은 단일 코호트 연구로 이행 과정의 유형을 보여주거나 지위획득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 ‘부모 혹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소득수준 등의 가족배경이 유리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임금수준이 높으며,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고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김종성, 2013; 노혜진, 2012; 변금선, 2013; 2015; 김연아·정원오, 2016). 일부 연구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의 직업경력이 불안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양한 연령층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변화 동인을 경제위기라는 외적 요인에 한정하므로 청년층의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다(문혜진, 2013; 최지원·정진철, 201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한다. 첫째, 생애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착하는 총체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1960년대부터 1980년

3) 한국 성인의 생애사건의 순서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병희 외(2010)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1차 자료를 이용해 남녀 성인의 청년기 성인으로 이행 사건 순서를 유형화하였는데, 학교-취업-혼인의 순서가 가장 많이 포착된다고 보고한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해 15-34세 청년 분가 양상을 분석한 결과, 결혼 전 부모와 동거 비중은 70%를 넘지만, 결혼 후에는 3.2%로 급감하였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80년 25-30세 분가비율은 55.9%였으나 2005년 40.4%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이병희 외, 2010).

대 출생 코호트가 만 19세부터 29세에 경험한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출생코호트는 역사적 경험이나 특정 사회 변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사회 변화를 담지한다(Alwin & McCammon, 2003). 출생 코호트 비교분석은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행 과정을 노동시장 근착성(labor market attachment)과 노동 불안정성(work precariousness)을 반영한 노동궤적(work trajectory)으로 유형화하여 이행 유형간 차이를 드러낸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노동시장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지를, 노동 안정성은 임금수준 변화를 반영하므로 이행 과정의 질적 차이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행 과정 계층화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분석모형을 마련해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 관계의 코호트간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연구의 이론화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 노동시장 이행의 총체적 과정을 분석하며,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로 이행 과정을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생애과정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재생산 메커니즘을 생애과정 차원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를 기회의 구조적인 제약을 통해 보여준다. 계층화가 확인된다면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는 이행 어려움은 거시적 환경 변화에 의한 보편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에 대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연구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생애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고용, 복지정책의 접근방향과 개입전략을 설정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의 실체와 생애과정 변화를 포착해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현황

1. 청년층 정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청년층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의 발달과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는 성인기로의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을 겪는 청년기(young adulthood)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주로는 아동기에 부모(가족)로부터 받은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종료, 일자리의 획득, 주거분리, 결혼, 자녀의 출산 등으로 포착되는 성인으로 이행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청년층은 청년(youth, young adult), 초기성인기(early adulthood, young adulthood), 성인이행기(transition to adulthood),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된다.

대부분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만15세에서 29세의 연령 집단을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국내법 중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도 15세에서 2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김기헌·하형석·신인철, 2016). 그러나 생애과정연구와 심리사회학적 연구들은 만 10-18세를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로 규정하고, 청년층의 연령하한을 만 18세-19세로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성인으로 이행이 지체되면서 30대 초중반 집단으로 연장하여 정의하기도 한다(김수정, 2010; 반정호 2010; Furstenberg, Rumbaut, Settersten, 2005).

본 연구는 청년층을 19-29세 연령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우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이행 경로가 분화되는 사례가 적고, 15~18세는 법적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생애과정 관점과 심리사회모델 이론은 십대 후반을 청년기(young adulthood)와 이질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기(adolescence)로 구별하므로 연령하한을 19세로 설정하였다. 한편, 교육수준 상향화와 성인이행 지체를 고려할 때 청년층 연령상한을 30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대가

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법률 및 정책들은 대부분 청년 연령을 20대로 제한하고 있다(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 연구들과 통계지표의 청년 연령상한도 29세이다(김기현, 2017).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의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은 노동생애의 초기단계에서 성인으로 이행을 준비하는 집단이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첫째, 생애과정 관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청년기의 생애 과업이다. 청년층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생애단계(life stage) 중간에 위치한다(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성인으로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과업인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가 소유, 결혼,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Hill & Holzer, 2006; Brzinsky-Fay, 201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연기는 경제적 자립 지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청년들이 안정적 생애과정을 영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모세대 부양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즉,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문제는 청년 세대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이 어떻게 초기 직업경력(job career)을 형성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청년들이 획득하는 노동성과는 이후의 노동경력과 노동시장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roz & Savage 2006; Steijn, Need, & Gesthuizen,

4)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5-39세 2,534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연령하한과 연령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의 연령하한과 연령상한 평균값은 각각 19.3세와 29.5세였다(김기현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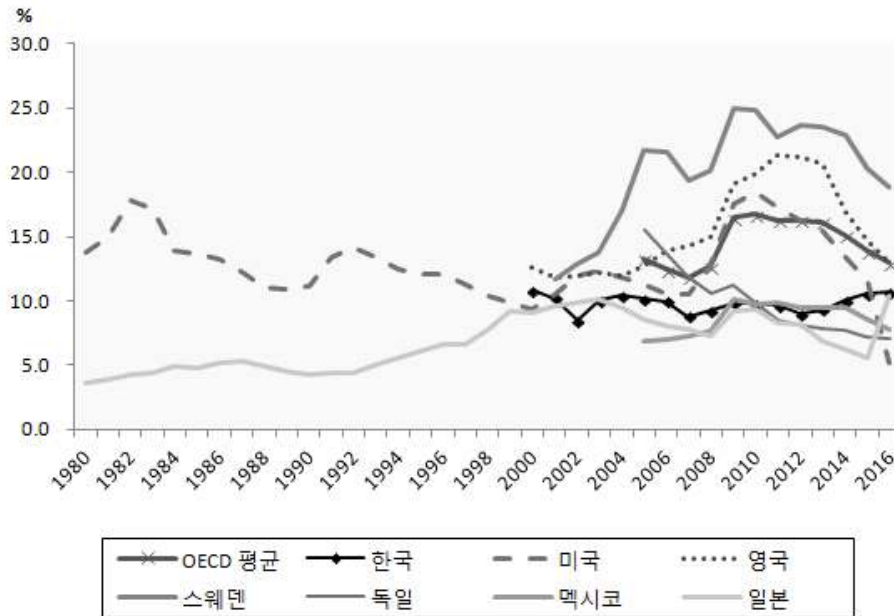
2006; Bell & Blanchflower, 2010; Julkunen, 2009).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실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장기간 미취업 혹은 실업은 개인에게는 인적자본 상실로 이어져 이후 취업이나 경력에 오점(Scar)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Gregg & Tominey, 2005). 또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희화는 노동공급 지체를 의미해 노동시장에 중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관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세대간 불평등 이전 매커니즘을 반영한다.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 교육자격과 노동시장 지위 획득 과정은 출신 배경의 유리함 혹은 불리함이 구조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신배경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과 성과의 차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성과 획득 과정의 불평등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청년은 아동기부터 누적한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를 획득해 아동에서 성인으로 독립을 경험한다(Buchmann, 1989; Danziger & Rouse, 2008; Elder, 1985; Elder & Shanahan, 2006; 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Gauthier, 2007; George, 1993; Shanahan, 2000). 특히 청년기는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그와 동시에 독립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족 자원의 중요성이 크며(은기수 외, 2011), 생애과정 계층화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성인이행 과정과 유리함(advantage)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Furstenberg, 2008; Osgood, Foster, & Courtney, 2010; Schoeni & Ross, 2005; Swartz, 2008).

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

청년층이 경험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어려움은 높은 청년실업률, 니트 증가, 졸업 후 취업 지체나 취업이행률 하락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자와 니트 등 청년 유희인력 증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포착되는 공통된 현상이다(Corcoran & Matsudair 2005; OECD, 2008). 다음 <그림 1> 은 OECD 국가 15-24세 청년층 실업률 추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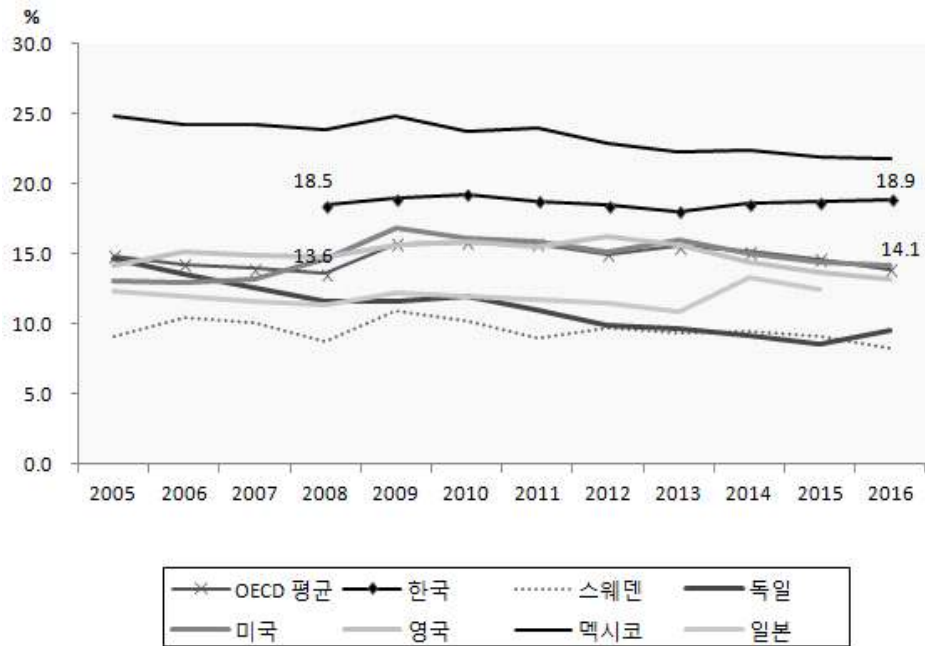
<그림 1> OECD 주요국 15-24세 청년층 실업률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https://data.oecd.org/unemp/youth-un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2000년대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이 2008년 이후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한국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한국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은 2.9배로 OECD 평균 2.0배, 독일 1.7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 니트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5-29세 청년층 중 니트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2>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층 중 니트 비율

자료: OECD (201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https://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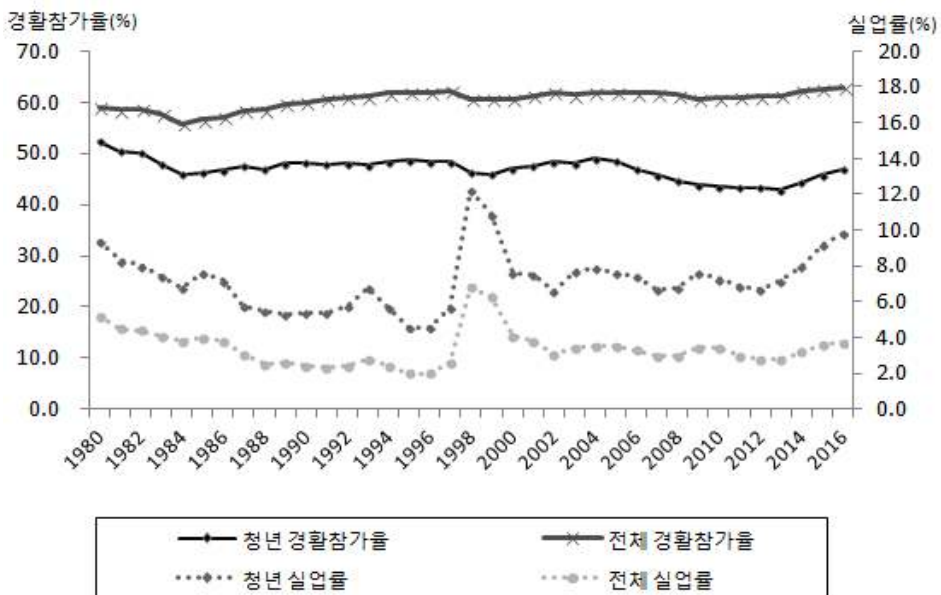
주: 1) 니트는 조사를 실시한 주 기준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시간제 혹은 전일제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2) 한국은 2014년부터 OECD에 니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014-2016년 한국 니트 규모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계산한 추정치임(김기현, 2017).

2005년 OECD 국가 니트 비중은 13.6%인 반면, 한국은 18.5%이며, 2016년에는 그 격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한국보다 니트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등 중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다(OECD, 2017). 외국의 경우 니트 다수가 저학력자이므로 청년 유희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니트는 고학력자 비중이 매우 높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 15-29세 대졸 니트 비율은 24.4%로, OECD 국가 평균 12.9%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한 한국은 니트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높은 편이다(OECD, 2015). 남재량과 김세움(2013)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15~34세 청년 중 비구직니트 규모가 2011년 현재 1백만명을 넘어섰으며, 1993년 전체 청년 인구의 1.8%였던 비구직 니트는 2011년 7.5%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된 활동은 그냥 쉬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⁵⁾ 이병희 외(2010)는 15~29세 청년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03년 2.2% 22만5천명에서 2009년 3.0% 29만7천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 추세를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최근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만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다.



<그림 3> 청년 및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7) 「KLI 노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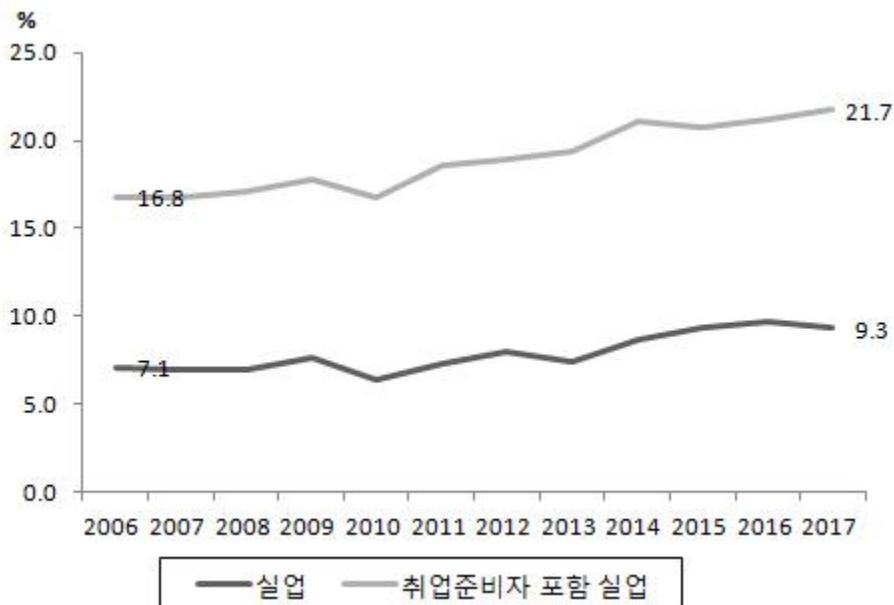
주: 청년은 만15세~29세를 의미하며, 전체는 만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5) 여기서 청년 니트는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③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④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된다(남재량 · 김세움, 20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실업률의 절대적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전체 연령 실업률과 비교할 때 그 수준도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초중반에는 잠시 감소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1980년대에 다소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꾸준히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3~4% 범위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포함한 실업률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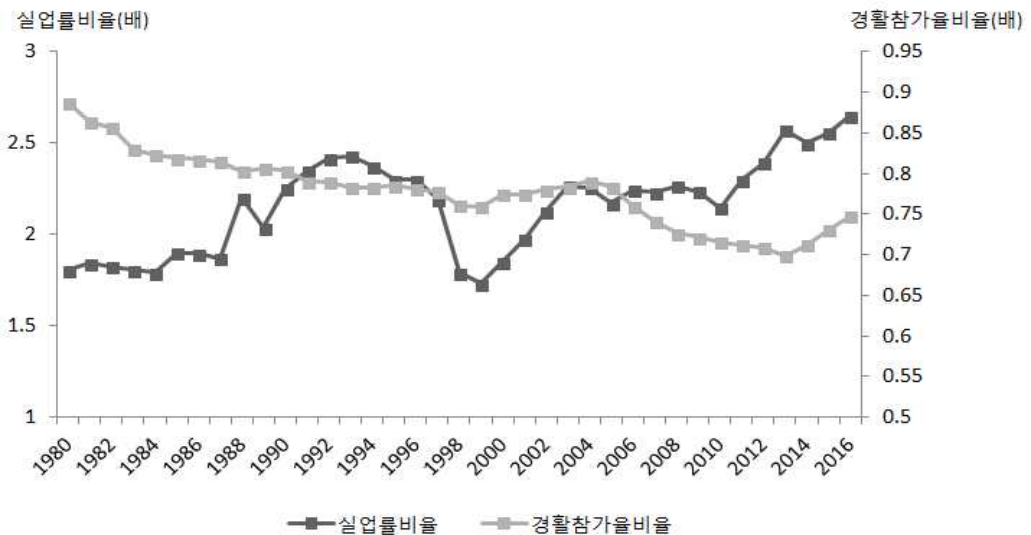
<그림 4> 15~29세 청년층의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실업률

= (구직자+취업이나 시험 준비)/(경제활동인구+취업이나 시험 준비)

청년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격차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며,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1980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8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7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 실업률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1980년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1.8배였으나, 2016년에는 2.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유희화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대비 청년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7) 「KLI 노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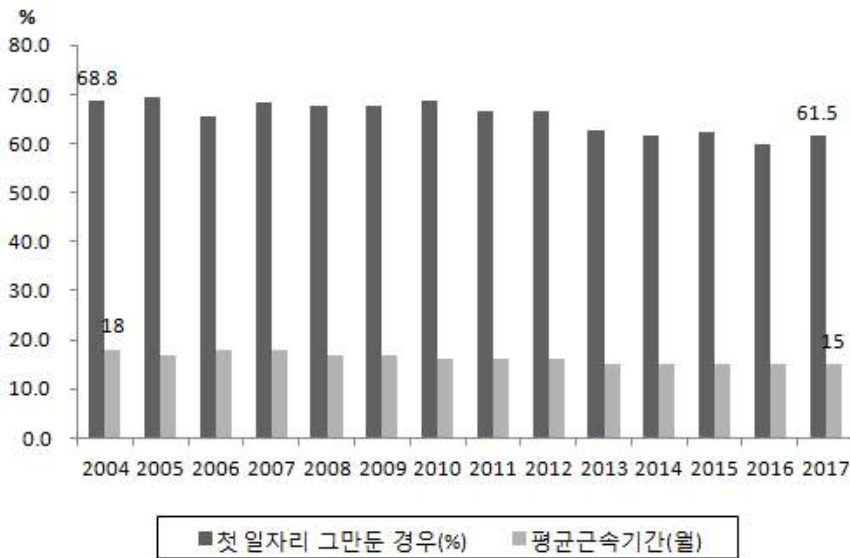
주: 1) 청년은 만15세~29세를 의미하며, 전체는 만1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함

2) 실업률비율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의 값(배)을, 경제활동참가율 비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대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배)을 의미함.

둘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정착하지 못 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한다. 다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저임금이나 비정규 일자리에 취직하고, 잦은 일자리 이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Campbell, 2012; Furlong, 2009; OECD, 20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취업 경험을 한 경우는 86.8%였

고, 이 중 절반 이상(54.4%)이 두 번 이상 일자리를 옮겼으며, 네 번 이상 일자리를 옮겼다고 응답한 경우도 13.6%에 달했다. 또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61.5%였으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통계청, 2017).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6> 참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 2014년 현재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대인 청년층이 2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김민정, 2014),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전체 표본의 약 10.6%는 2년 이상 지속적인 저임금근로를 유지하였고, 12.8%는 일시적 저임금근로를 경험해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정호, 2006).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단일 사건이나, 취업 여부라는 특정 상태로 측정할 경우 청년층의 불안정한 이행을 포착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림 6> 2004년-2017년 청년층 첫 일자리 경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

주: 1) 청년은 만15세~29세를 의미함.

2)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합친 수치임.

제 2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청년기에 경험하는 교육자격 획득과 노동시장 진입, 정착 과정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이론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연구들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설명하는 독자적이고 합의된 이론이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초기 연구들은 미시적 혹은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이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이론을 선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특정 이론만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 차원의 확장과 결합을 시도하였고, 이는 실증적으로는 이행 사건 연구에서 과정 연구로의 확장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생애과정 이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증연구 경향도 이론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1960~1990년대에는 개인 수준 자료를 이용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연구하였는데, 실업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80년대부터 거시자료를 이용한 국가간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유사한 경제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청년 실업률 수준이 다른 것을 제도 차이를 통해 설명하였다(Raffe, 2014). 2000년대 후반 연구들은 거시적 변화와 개인적 선택이라는 거시와 미시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양상과 그 결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자료가 누적되면서 장기간 코호트 비교연구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출생코호트나 노동시장 진입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경제적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Buchmann & Kriesi, 2011). 이는 횡단적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로의 확장, 그리고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통합을 의미한다.⁶⁾

다음 <표 1>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교육수준이 낮고 성별이 여성인 경우, 부모 교육수준이 낮거나 직업지위가 낮은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어려우며,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변화는 청년층의 이행 성과를 악화시켰다. 이행 성과는 국가 제도와 노동시장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6)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성인으로 이행 변화와 맞물려 노동이행뿐만 아니라 결혼, 독립 등 생애사건간의 관계나 생애사건 순서유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표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차원	이론	이행을 설명하는 요소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시장 특성
거시 (Macro-level)	노동시장이론	인구규모 (+) 교육팽창 (△)	경제적 호황 (-) 일자리 증가 (-)	노동시장 분절 정도(+) 고용관계 개방적 (-) 폐쇄적 (+)
	제도적 관점	교육체계 조직공간 (+) 자격공간 (-)	복지제도 (△)	-
미시 (Micro-level)	인적자본이론	교육수준 (-)	-	-
	지위획득이론 젠더관점	가족배경 (-) 여성 (+)	-	-
거시와 미시 통합	생애과정 관점	거시적 환경변화×미시적 요인(△)		

출처: 김기현(2003a) 표를 재구성함.

주: 괄호 안은 기존이론들이 제시하는 각 변수와 청년실업의 관계 방향성을 요약함.

(+): 정적관계, (-): 부적관계, (△): 혼재

1. 미시적 설명

1) 교육

교육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 진입하여 고용 경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직업 포부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Hannan Smyth, & McCoy, 1999; Müller & Shavit, 1998; Gangl, 2002: 재인용). 개인 노동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외에도 노동경험, 노동이력(work history)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에 비해서 노동경험 등 교육 이외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청년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조건을 고려할 때 교육과 노동성과의 관계가 더욱 강조된다(Müller & Gangl, 2003: 158).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확인된다. 첫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학교를 통한 교육, 직업훈련, 건강 등을 포괄하는 인적자본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교육 투자를 강조한다(Becker,

1962; Mincer, 1974; Sewell & Hauser, 1975; 김종성, 2013 재인용). 둘째, 선별과 신호가설은 개인 교육수준이 노동자 생산성을 예측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박병영 외, 2010; Arrow, 1973; Boylan & Morgan 1993; Elman & O’Rand, 2004; Spence 1973). 교육수준이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인적자본이론이 아니더라도 교육수준은 그 자체로 고용주들에게 신호 역할을 하므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은 고용주 선택을 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은 고용주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구직자가 직업훈련 비용(채용 후 노동비용)이 적게 발생한다고 예상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구직자보다 높은 구직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즉, 청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이 일자리를 얻는데 필수조건이 되며, 그러한 학력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55).

실증연구들은 교육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높은 교육수준은 성공적인 이행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Caspi et al., 1998; Heinz, 1999; OECD, 2008; Raffe, 2014). 유럽은 학위가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혼란기(floundering period)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으며, 대학을 졸업한 숙련 청년층은 이행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 유리함을 갖는다. 반면에 학위가 없는 저숙련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 때문에 고통 받을 수 있다(Heinz, 1999: 4).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이행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이나 니트, 저임금 근로, 청년빈곤에 있어서 고졸 이하 청년층 비중이 더 높고(김태완 외, 2012; 남재량 외, 2011; 박성재·반정호, 2012; 신동준, 2013; 통계청, 2017),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안정적인 이행 궤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김성남·최수정, 2012; 박미희·홍백의, 2014; 박지애·남춘호, 2015).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더 유리하며(우해봉, 2012), 대학 졸업자들은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반정호·김경희·김경휘, 2005; 장지연·양수경·이택면·은수미, 2008). 저임금근로를 지속할 확률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박성재·반정호, 2012). 이는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이 고졸 이하 저숙련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족배경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있어서 가족배경은 노동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자격을 성취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비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며, 특히 취업에 유리한 교육자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배경은 발달을 촉진하는 자원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제약하거나 증진하는 귀속지위, 그리고 생애과정 이행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자원의 의미를 갖는다.⁷⁾ 실증연구에서 가족배경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가족소득, 가족구조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첫째, 자원 투자 관점에서 가족배경은 자녀에게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규모를 반영한다. 자녀 성장기에 투입되는 자원 부족은 부적절한 산출, 즉 신체, 심리적 발달과 인지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wles, Gintis, & Groves, 2009; Brooks-gunn & Duncan, 1997; Caspi, Wright, Moffitt, & Silva, 1998;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Gregg, Harkness, & Machin, 1999; Haveman & Wolf, 1995; Hill & Sandfort, 1995). 불리한(disadvantaged) 가족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교육자격을 획득해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최근 교육기간 연장, 성인이행 지체(독립의 연기)와 맞물려 그 영향이 초기아동기부터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단기적 성과인 대학진학이나 초기 노동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McKnight, 2002; Schoeni & Ross, 2005).

둘째, 가족배경은 귀속지위, 출신배경, 사회적 계급 등을 의미한다.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model)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전되는지 분석한다. 이들은 청년들의 직업지위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를 불

7) 가족배경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는 인적자본이론을 바탕으로 한 투자모델(Investment model)과 지위획득모델(Status attainment model), 부모의 양육과 개입방식을 강조하는 부모역할이론(Good parent theory), 학교교육의 선택과 사회화 효과를 강조하는 사회적 재생산론(Social reproduction theory),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확인하는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 교육계층화(Education stratification), 계급이동성(Class mobility), 생애과정의 계층화에 대한 연구, 생애과정 누적적 불평등(Inequality over the life course)에 초점을 맞추는 누적해택불리모델(Cumulative disadvantage/Advantage model)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리한 가족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력, 직업지위, 근로소득으로 측정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신계급이 자녀의 교육성취와 노동성취에 미치는 영향 혹은 상관관계를 이용해 사회불평등 수준을 분석하고, 불리한 출신배경이 자녀들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한다(Black & Devereux, 2011; Blau & Duncan, 1967; Breen & Karlson, 2013; Breen & Whelan, 1993; Corcoran & Matsudaira, 2005; Corak, 2006; Erikson & Goldthorpe, 1992; Faas, Benson, & Kaestle, 2013; Jenkins & Schluter, 2002; Sewell & Hauser, 1975; Solon, 1992; Swartz, 2008; Zimmerman, 1992).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성과의 관련성은 지위획득이론을 생애과정으로 확장 적용한 생애과정 계층화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가 낮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이 불안정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비교적 빨리 교육기관을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갖는다(Elman & O’Rand, 2004; Furlong et al., 2003; Giudici & Pallas, 2014; Vuolo, Mortimer, & Staff, 2014; Opheim, 2007). 또한 이러한 영향은 이후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Elman & O’Rand, 2004). Furlong과 동료들(2003)은 교육기회 확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선적인 이행 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Elman과 O’Rand(2004)는 베이비붐코호트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임금으로 이어지는 누적해택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아버지 직업지위와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이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높은 임금을 획득한다. 반면에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낮으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진입 이후 뒤늦게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낮으며, 저임금 일자리에 정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Vuolo와 동료들(2014)은 14-15세 시점 부모의 소득수준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이거나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불안정한 이행을 겪을 위험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Giudici와 Pallas(2014)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뒤의 교육과 직업 지위 획득을 유형화하였는데, 부모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보다는 미취업자로 남아있거나,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여 시간제나 전일제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국내 연구들도 제한적이지만 부모의 교육수준 혹은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김종성, 2013; 노혜진, 2012, 박미희·홍백의, 2014; 변금선 2013; 2015). 빈곤가구 자녀는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과정이 불안정하며(노혜진, 2012), 청소년기 빈곤 혹은 낮은 소득계층에 속하면 청년기 임금수준이 낮다(변금선, 2013; 2015). 또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계층별 부모 개입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김종성·이병훈, 2014), 가구소득이 높으면 상용직에 취업 할 가능성이 높다(박미희·홍백의, 2014).

3) 성별

성별은 경제활동 상태나 노동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있어서 성별 격차는 오래된 관심 주제이다. 젠더관점의 연구들은 여성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가 남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층의 이행 과정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성별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여성의 생애과정은 남성에 비해 단순하고, 집단내 동질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성은 전통적인 역할인 가사와 육아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노동시장 참여가 중단되기 쉽고 불안정하다(Heinz, 2003; Martin, Schoon, & Ross, 2008). 여성은 일을 하더라도 2차 노동시장이나 주변부에 머물며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른 출산 경험은 여성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용장벽으로 작용한다(Bell & Blanchflower, 2010; Freeman & Wise, 1982; Moffit, 2002; Raffe, 2014).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이행 과정은 노동과 가족이 결합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Aassve, Billari, Piccarretta, 2007; Crompton, 2006). 여성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는 남성과 유사성이 커짐과 동시에 여성 내부 분화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Schoon과 동료들(2001)은 영국의 1958년생과 1970년생을 대상으로 16-21세에 관찰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간

노동성과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성의 내부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밖에 위치하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거나 가족 돌봄에 머무는 경향이 컸다. 여성에게서 교육수준 상향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 여성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더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일을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일제 노동을 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Schoon et al., 2001). Briznsky-Fay 와 Solga(2016)는 독일 청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과거에 비해 여성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나, 가사와 육아로 구성된 비경제활동 유형은 오직 여성에게만 관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고학력 여성들의 직업지위 수준은 과거에 비해 더 낮아졌다. 이는 압축적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교육 보상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Briznsky-Fay & Solga, 2016).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면서 성인으로 이행 과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연기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교육수준 상향화는 성별 격차와 더불어 여성 내부 격차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1955~1974년생을 대상으로 성인으로 이행 사건의 연령구조와 배열을 분석한 이순미(2014)는 남성은 노동중심형 이행 유형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출산, 결혼 등 성인이행 사건 순서규범에 변화가 포착된다고 보고한다. 1998~2003년에 정규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만19~29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한 최지원과 정진철(2017)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경제활동 이행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으나, 안정적사무직 유형, 서비스생산직 유형 등 노동 중심 유형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순미(2015)는 외환위기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궤적과 임금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 여성 임금궤적에서 노동경력과의 불일치가 발견된다고 보고한다. 여성은 노동경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포착하였다(이순미, 2015).

2. 거시적 설명

1)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분절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과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은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로 설명한다. 노동시장분절론은 노동시장이 여러 개로 분절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primary sector)과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한다(김진주·조민효, 2016). 1차 노동시장은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조건이 좋으며 직업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2차 노동시장은 이러한 요건들이 결여되어 있다. 2차 노동시장은 교육이나 기술을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경향이 낮으며, 주로 저임금근로, 불안정 고용의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2차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진입 문턱이 높지 않다(김선빈·장용성·강태수, 2016). 주로 여성이나 소수자, 대학학위가 없는 청년들이 이러한 2차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영역간 이동은 매우 어렵다. 노동시장 분절은 노동자 스스로를 통제하고 학벌주의와 노동시장 불평등 체계를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Doeringer & Piore, 1971; Rosenbaum et al., 1990 재인용).

한편, 노동시장 분절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시장 밖 청년들은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때 고용관계 폐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Mills & Blossfeld, 2006). 개방적 고용관계는 탈규제적이고 이중적이며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기능한다. 개방적 고용관계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수월하지만, 진입하는 일자리의 경제적 안정성이 낮고, 이직 가능성이 높다.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폐쇄적 고용관계는 임금협상이 중앙집중적이고, 노조가 강하며 노동시장이 내부와 외부로 분절되어 있다. 폐쇄적 고용관계에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동시장 분절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 고용이 청년, 여성에 집중된다. 실직은 장기적으로 관찰되며, 일자리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Mills & Blossfeld, 2006).

2) 제도적 요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교육 및 복지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적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높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들은 서구 국가들 간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격차의 원인을 제도적 조정을 통해 설명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조건을 확인하는데 집중하였다(Buchholz et al., 2005; Kerckhoff, 1996; Raffe, 2014; Müller & Shavit, 1998; Rosenbaum et al. 1990).

첫째, 교육체계 구조이다. Müller와 Shavit(1998)은 교육제도 유형을 자격공간과 조직공간, 직업교육 특성, 교육계층화 정도, 학위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자격공간(qualification space)으로서 교육체계는 특정 직업교육 비중이 높다.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육체계가 계층화 되어 직업적 경로(track)가 분리되어 있다. 교육체계가 자격공간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높지 않으며, 이행 과정도 수월하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 유형과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독일, 스위스가 여기에 속한다. 조직공간(organization space)으로서 교육체계는 학문중심 일반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업 기술을 획득하는 구조이다. 훈련을 거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 유형이 두드러지지 않고, 노동시장 진입은 빠르지만 고용과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국, 아일랜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첫 일자리 이후 직장이동이 가교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조직공간 특성을 갖는 국가에 집중된다(Müller & Shavit, 1998). 한편, 학자금 대출제도가 이행을 지체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대학교육이 확대되면서 청년층 다수가 실업자로 남기보다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교육이 청년실업자의 저장소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준이 가장 관대한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이며,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는 미국, 이탈리아 등이 있다(Mills & Blossfeld, 2006).

둘째, 복지제도이다. 복지제도는 생애과정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ayer, 2001; Settersten 2005; Settersten, 2007: 265 재인용). 복지제도는 생애과정에서 경험

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므로 복지제도가 약하거나 결핍된 국가에서 생애과정 연속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Settersten, 200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하고 완전고용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갖춰진 사민주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진입과 정착은 순조로우며, 분절된 노동시장에 의해 복지제도가 계층화된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청년층은 이행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사회적 약자에 한해 복지제도가 갖춰진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높더라도 유연성도 높아서 청년층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높다(Mills & Blossfeld, 2006).

3)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변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실질적으로 개인단위에서 결정되지만 사회적 사적 맥락과 경제적 조건을 아우르는 거시적 환경, 즉 기회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Schoon & Silbereisin, 2009). 이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청년 실업 증가와 이행 과정 변화의 원인을 거시적 수준의 경제조건과 노동시장 변화에서 찾는다. 노동시장 변화는 노동시장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 수요 측면 변화는 경기 악화로 인한 신규 일자리 감소, 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세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한 일자리 안정성 감소로 설명되며, 노동시장 공급 측면 변화는 청년 인구규모와 교육팽창(Educational expansion, 혹은 학교팽창 School expansion)으로 인한 교육수준 상향화로 설명된다(Gangl, 2002).

첫째, 노동시장 수요 변화는 완전고용, 즉 안정적 일자리의 영속성을 파괴시켰다. 경제적 세계화와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은 노동시장 변동성을 증대시켰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경력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Heinz, 2003: 197). 경제 상황 변화도 청년층의 실업 위험을 높였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던 황금기의 종말을 맞이하였고, 연이은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하락과 침체를 경험하였다. 경제적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직기간이 증가한다(Gangl, 2002, Scarpetta, Sonnet, & Manfredi, 2010).

둘째,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숙련편향적 기술 발전과 교육수준에 따른 임

금격차 증대는 교육기회 확대와 맞물려 교육팽창으로 이어졌다. 교육수준 상향화는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다.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점차 늦어졌으며,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다시 학교에 다니는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호트 규모효과인 인구압력의 효과(effects from demographic pressures)도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노동 수요와 공급 균형에 의해 실업 위험이 결정되며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규모 감소는 청년층의 실업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 결과에서 인구압력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Gangl, 2002; Kleinert & Jacob, 2013; Müller & Gangl, 2003).

3. 미시와 거시의 통합: 생애과정 관점

1) 미시적, 거시적 접근의 한계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청년들은 거시적인 환경 안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며, 이행의 결과는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구조의 일부가 된다. 미시적 이론들은 개인에게서 실업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 하며, 거시적 이론들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 외부조건인 제도나 노동시장 변화에서 이행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내부 격차를 설명하지 못 한다.

미시적 이론은 이행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실업 위험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층 다수가 고학력자임에도 왜 실업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한다. 젠더관점은 여성의 생애과정 변화에서 이행 과정 분화의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여성의 이행 과정 변화는 남성과의 유사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의 내적 이질성이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별격차 이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지위 획득이론은 이행 성과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일관되고 정형화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시점 횡단적 이행 성과 차이를 설명해 줄 뿐이다.

다수 청년들이 고학력이고, 이제 다수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고학력에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는 상황에서 가족배경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 한다.

거시적 이론은 전체적인 변화 경향을 설명하거나, 국가수준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를 드러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청년층 이행 성과의 내적 격차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첫째,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이 불안정해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청년층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청년집단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줄 뿐,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이행의 이질성은 설명하지 못 한다. 둘째, 노동시장분절론은 청년을 불안정,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일자리로 구성된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취약집단으로 설정한다. 여기서도 청년층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라는 특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 중 일부는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일부는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노동시장분절론은 청년층 내부의 노동시장 분절을 설명하지 못 한다. 또한 왜 유사한 노동시장분절 구조에서 청년층의 이행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과거에도 분절되어 있었지만 청년고용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두드러지게 관측되고 있다.⁸⁾ 노동시장분절론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환경 변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는 성별, 교육, 가족배경 등 미시적 요인에 따른 이행 과정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이행 과정은 과거에 비해 분화되었으며 여성 내부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해 저숙련 청년의 불리함이 강화되고, 이와 동시에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 위험도 높아졌다.

교육과 이행 성과의 관계 변화는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불리한 가족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

8)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도 기업규모, 학력,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구조가 뚜렷하게 관측된다(김성중·성제환, 2005: 226-227 재인용).

서, ‘가족배경-교육-노동성과’로 이어지는 지위획득의 매커니즘에도 변화가 관측되기 시작했다. 또한, 완전고용이 가능한 경기 호황기에는 노동시장 분절이 청년층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중장년층에 집중되는 양상도 포착되고 있다(유홍준·김기현·오병돈, 2014).⁹⁾ 요컨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변화는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개인이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생애과정 이론 적용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은 생애사건 이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이론을 본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이론을 통합하여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에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자신이 지닌 자원을 이용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생애과정을 형성해가는 “생애과정 여행자(life-course traveler)”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이다(Elder & O’Rand, 1995; Heinz, 1999 재인용). Riley(1974)는 생애과정 관점의 네 가지 중심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일생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나이 듦’(ageing, 노령화)의 과정이며, 둘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과정은 생애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셋째, 특정 개인(혹은 동시대에 태어난 코호트)의 생애과정 유형은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넷째, 연령에 따른 변화, 나이 듦의 새로운 유형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변화는 개인의 삶에 내재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코호트에 속한 많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집합적 삶의 변화는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Marshall & Mueller, 2003: 7-8 재인용).”

생애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분석

9) 1983-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고용의 질이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 유홍준 외(2014)는 청년층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중장년층은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포착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취한다. 첫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변화를 생애과정 변화로 조망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구조적 조건과 기회의 제약 속에서 미시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생애과정 관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생애과정을 형성하는 여러 생애 사건 중 하나이며, 학교를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인간 개인이 사회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사건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점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후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는 아동기 가족으로부터 받은 자원을 바탕으로 성인으로 이행하는 변화 시기이면서, 동시에 삶의 종착지를 찾아 정착해야 하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즉,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생애 초기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란 점에서 전 생애 삶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청년층이 처한 노동시장 환경-교육팽창, 관찮은 일자리의 부족 등 노동시장 변화-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청년 개인이 지닌 자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특성과 거시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강조된다(Gangl,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러한 변화를 촉발한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재적 목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변화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함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드러내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애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요인인 가족배경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제 3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1. 생애과정 관점에서 바라본 이행 과정 변화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연구의 핵심은 노동시장 변화와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포착하는 것에 있다. 이행 과정은 개인들이 거시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생애과정 관점의 연구들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행기간이 지체되며, 불안정 노동시장에의 진입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을 이행 과정 ‘탈표준화’로 포착하며, 이행 과정의 내적 격차를 개인화 혹은 계층화를 통해 설명한다(Buchmann & Kriesi, 2011; Raffé, 2014).¹⁰⁾

1)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

생애과정 연구에서 생애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Modell, Furstenberg & Hershberg, 1976). 표준화는 특정 연령구간에서 생애과정 사건이 관측되고, 사건 순서와 발생 횟수 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 즉, 생애과정이 균질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Aisenbrey & Fasang, 2010, Brückner & Mayer, 2005). 관련하여 Settersten(2003)은 생애과정의 표준화를 “삶의 규칙적인 패턴이며, 연령에 따라 생애사건 순서가 결정되는 연대화(chronologization)와 사회정책에 의해 사회적 역할이 규정되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생애의 표준화는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전후 호황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경제 호황기(Golden age)에는 노동세계를 중심으로 한 규범적(normative) 생애과정이 형성되었다. 일자리 기회가 풍부하고 완전고용이 가능한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표준화되었다. 즉, 비슷한 연령대에 학교를

10)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혹은 생애과정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행위자(agency)와 구조(structure), 선택과 기회의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Rudd(1997)를 참조하기 바란다.

졸업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착했다.

그러나 장기적 불황과 노동시장 구조 재편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교육수준 상향화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변화시켰다.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유사성이 감소하고 이질성이 증가하는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가 관측되기 시작한 것이다.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포착되는 연령구간이 연장되었고, 이행 유형이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diversification)되었다(Heinz, 2003). 이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불안정성의 증대와 맞물려 더 심화되고 있다. 완전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안정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더 분화된다는 것이다. 실증연구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탈표준화를 이행 과정 분화, 분절 수준과 불안정성 증대 등을 통해 설명한다.

(1) 이행 과정 분화(diversification)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분화는 특정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청년층 감소 혹은 해당 사건이 관측되는 연령구간 변화, 이행 유형 분포 변화, 배열 유사성(similarity), 상태 구성 다양성(diversity), 상태와 지속기간의 동요성(turbulence)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탈표준화 양상이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Brückner & Mayer 2005, Macmillan, 2005). 영국의 1970년대와 1990년대 출생코호트를 분석한 Schoon과 동료들(2001)은 20여년간 포착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교육수준 상향화에도 불구하고 두 코호트 모두에서 전일제 고용 유형과 지속적 교육 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함을 확인하였으나, 1980년대 출생코호트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1980~84년생 출생코호트보다 1985~89년생 코호트의 이행 유형이 더 분산되었고, 장기실업 유형과 같이 불안정한 이행 유형에 집중 분포하는 것을 포착하였다(Schoon & Lyons, 2016). 스위스의 1910~57년생을 대상으로 20~45세에 관측되는 노동 이행과 가족형성 유형을 분석한 Widmer와 Ritschard(2009)는 이행 과정의 상태 다양성을 반영하는 엔트로피가 최근 코호트에서 높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 19개국 1945~1964년생 여성 코호트를 대상으로 가족-노동 이행 궤적을 분석한 Elzinga와 Liefbroer(2007)는 동요성에는 변화가 관측되지 않

았으나, 유사성이 약해졌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Virtanen과 동료들(2011)은 1981, 1983, 1986, 1995년에 의무교육을 마친 스웨덴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최근 코호트에서 더 불안정한 유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Van Winkle과 Fasang(2016)은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유럽 14개국의 1918~1963년생의 15-45세까지 관측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배열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는데, 상태 이동성과 상태의 수로 측정된 이행의 복잡성(complexity)이 증가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국가의 고용보호와 실업보험 제도의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2) 분절적 이행(non-linear transition) 증가

노동시장 이행 과정 탈표준화의 또 다른 양상은 분절적 이행 증가다. 단선적 이행(linear transition)은 전일제 학생에서 전일제 노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선적인 이행은 두 종류의 상태, 한 번의 이행(상태 변화)으로 구성되는 안정적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Brzinsky-Fay & Solga, 2016). 반면, 분절적 이행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거나, 졸업/중퇴 이후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역방향성을 보이는 등 특성을 보인다(Brzinsky-Fay, 2007; Schoon, Ross, & Martin, 2009; Shanahan, 2000; Raffe, 2014). 분절적 이행은 실업, 비경제활동 등 비연속성(discontinuity)을 가진 상태가 많거나, 잦은 이직이나 실직으로 상태 다양성이 크고 조합의 복잡성이 포착되는 특성을 갖는다(Brzinsky-Fay & Solga, 2016; Winkle & Fasang, 2017).

기존 연구들은 탈표준화 양상이 분절적인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단선적 이행 유형의 분절 수준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Schoon과 동료들(2009)은 영국의 최근 코호트에서 전일제노동 이행 비율이 감소하고, 심각한 실직이나 비경제활동, 시간제 일자리 경력이 혼합된 분절적 경력을 보이는 등 분절적인 이행 유형을 보이는 청년 비중이 커졌다고 보고한다. Worts와 동료들(2013)은 미국의 청년기 여성들의 노동 이행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행 유형이 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하면서 분절적 이행 증가 경향이 스위스(Buchholz & Grunow, 2006), 독일(Widmer & Ritschard,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관측된다고 설명한다(Worts, Sacker, McMunn, & McDonough, 2013). Brizinsky-Fay와 Solga(2016)는 독일의 장기간 코호트 비교 연구 결과,

도제제도(Apprenticeship system)의 영향으로 최근 청년층은 여전히 단선적 이행 유형을 주로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최근 코호트의 단선적 이행에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이행상태 변화와 상태 종류가 증가하는 등 분절 수준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2)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1) 개인화 가설과 계층화 가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탈표준화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논쟁적이다. 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행 과정이 분화되고 불안정해졌다면, 이러한 변화는 모든 청년층에게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청년층이 위치한 출신배경, 즉, 가족배경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가?

첫째, 개인화 가설(individualization hypothesis)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생애과정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행 과정 변화를 후기근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관측되는 생애과정의 개인화로 설명한다.¹¹⁾ 인간의 생애과정은 사회구조에 위치한 개인의 반응과 선택에 의해 조직된다. 생애과정의 개인화는 생애과정 구성에 있어서 행위자가 우선하게 되고 전통적 계층구조의 영향은 부수적 요인으로 전락하여,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Beck, 1992; Giddens, 1991).¹²⁾

생애과정의 개인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가족배경에 따라 이행 유형과 성과가 결정되지 않게 되었고, 이행 과정이 개인

11) 일부 연구들은 개인화를 탈표준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Buchmann, 1989; Shanahan, 2000). 그러나 탈표준화는 이행 과정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개인화는 변화로 인한 결과를 포괄하므로 두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Mills, 2007). 본 연구는 Ross와 동료들(2009)의 정의를 따라 '탈표준화'는 이행 유형의 다양화 혹은 분화로, '개인화'는 계급효과의 약화로 정의한다(Ross, Schoon, Martin, & Sacker, 2009).

12) Beck(1992)은 현대사회 위험이 특정 계층을 넘어 보편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급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은 사회학자의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좀비 카테고리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Beck & Beck-Gernsheim 2002, 201; Furlong, 2009 재인용).

선택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되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구조의 힘에 의해 개인이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경험했다면,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개인 행위자의 선호와 결정에 의해 다양한 생애과정을 향해 (navigate)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Beck, 1992; Buchmann, 1989; Furlong, 2009; Lyotard 1984; Shanahan, 2000). 또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노동시장 변화-기술변화, 유연화, 고용없는 성장 등-로 인하여 생애과정이 출신배경(social origi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Giddens, 1984; Beck, 1992). 전통적인 사회구조인 계층에 의해 생애과정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화 관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계층이라는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에 의해 변화하고 재생산되는 과정이므로 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Heinz, 1999: 216-217).

둘째, 계층화 가설(stratification hypothesis)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가족배경에 의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즉, 가족배경 영향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생애과정의 계층화(stratification)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생애과정이 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급이 생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Kerckhorff, 1996; Müller & Shavit, 1998; Ross et al., 2009; Schoon & Silbereisen, 2009). 생애과정을 형성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은 생애과정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 다시 계층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 능력은 출신배경에 의해 결정된다(Furlong et al., 2003). 관련하여 Evans(2007)는 행위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치하며, 환경에 의해 생애과정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반응적 행위자(bounded agency)’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Evans, 2007: 93). 즉, 계급의 중요성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발현되는 맥락과 해석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과정의 계층화 이론은 생애과정 이론을 생애과정의 불평등 관점으로 확장한다. 그들은 가족배경을 생애과정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로 인식한다. 이들은 생애 과업의 획득, 즉, 교육자격을 얻고 취업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은퇴의 과정이 출신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조화된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생애과정의 계층화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청년기는 아동기와 중장년기 사이에 위치하므로 출신배

경의 영향을 보다 순수하게 반영하며(Müller & Gangl, 2003), 아동에서 성인
으로 이행하는 청년은 부모 자원에 의해 이행 경로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Elman & O'Rand, 2004; Furlong et al., 2003; Giudici & Pallas, 2014;
Heinz, 1999). 이들은 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
실패가 가족배경이 불리한 집단에 집중되어 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이 생애과
정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한다(Müller & Gangl, 2003). 그들은 노동시장 변화는
유리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더 큰 유리함을, 그렇지 않은 집단에는 불리함을
가중시키므로 여전히 계층효과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노동시
장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각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개인이 놓
인 위치,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 등 출신계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고 설명한다(Furlong, 2009; Kerckhorff, 1996; Müller & Shavit, 1998; Ross
et al., 2009; Schoon & Silbereisen, 2009).

(2) 개인화와 계층화를 설명하는 논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개인화 가설과 계층화 가설의 논쟁은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변화인 교육팽창, 노동시장 수요 변화, 그리고 부모의 계
층구성이 가족배경과 자녀의 이행 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논의
로 구체화된다.

첫째,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교육팽창의 영향이다. 교육수준의 상향화가
가족배경과 자녀의 성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는가는 소득이동성이나 직업이동성
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이다. 산업화 이론가들은 교육팽창
으로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교육의 매
개효과가 커지고, 가족배경의 직접효과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Bell, 1973;
Treiman, 1970). 그러나 교육계층화 연구들은 노동시장 경쟁이 증대됨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거나(Dore, 1976;
Bourdieu, 1984), 상위 집단은 교육의 질적차별화를 추구하므로 교육 매개효과
가 커지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동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감소하
더라도 총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Lucas,
2001). 대부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저학력 청년들은 불리한 가
족배경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위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위 가치가 하

락한 상황에서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학위 이외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대부분 가족배경의 영향을 받는다(Brown, 1995; Brown, Hesketh, & Williams, 2004; Goldthorpe, 2007).¹³⁾

둘째, 노동시장 수요 변화이다. 후기산업사회에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기회의 불평등은 수직적인 양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Beck, 1992). 탈산업화로 인해 안정적이고 적정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IT 산업의 발전은 노동시장이 추상적 노동을 요구하는 최상의 일자리와 비일상적 육체노동이라는 하층 일자리로 양극화되도록 만들었고, 세계화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기업 고용전략이 비정규직 위주로 재편되었다(전병유, 2005; Autor et al., 2006; Bluestone & Harrison, 1986; 남춘호, 2011 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청년들은 가족배경과 무관하게 과거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노동생애를 형성하게 되며, 가족배경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계층화 가설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되더라도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존재하고, 그러한 성공적 이행은 특정 자격과 유리한 가족배경을 지닌 청년층에게서 집중적으로 포착된다고 반박한다(Kerckhorff, 1996; Müller & Shavit, 1998; Ross et al., 2009; Schoon & Silbereisen, 2009). 또한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은 불안정성이 높은 이행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Smith, Crosnoe, & Chao, 2016; Vuolo et al., 2014).

13) 많은 학자들이 관측할 수 없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현실에서 어떻게 계층적 제약을 만들어 내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왔다. 먼저, Lareau(2003)는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의 양육환경 차이가 향후 일자리를 얻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위층 아이들은 어른들과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 규정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른들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지 못하는데, 이는 구직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rdieu, 1984; Coleman, 1990). 이들은 상위계층 출신은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 자원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해 구직 과정이나 승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관련해 Bourdieu(1984)는 인사를 결정하는 고위직이 선호하는 문화적 특성이 상층계급과 유사하다는 문화자본의 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열망의 차이이다. 낮은 계급의 자녀들은 계급에 있어서 높이 올라가려는 성향보다 조기진입 이탈 이동을 피하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계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Bernardi, 2012; Erickson & Josson, 1998). 계급강등을 피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가족배경에 따라 성공에 대한 열망이나 노력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한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은 대학진학 그 이상의 상향이동에 대한 열망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직업적 성공의 차이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부모세대의 높은 이동성이다. 청년층의 부모세대는 현재 청년층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변동과 계급 상향이동을 경험하였다. 이미 다수 청년들의 출신배경이 하층보다는 중간계급 혹은 상층계급에 위치하며, 이는 계급간 이행 성과 차이가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Furlong, 2009: 345-347). 즉,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가 높은 부모 비중이 커진 구성효과로 인해 청년층 다수가 유리한 집단에 배치되어 가족배경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계급 상승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의 정적 관계(위대한 개츠비 곡선, The Great Gatsby Curve)는 부모의 계층이 상승했다라도,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인해 계층효과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landen, Gregg, & Machin, 2005; Corak, 2013). 또한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저학력 청년들에게 불리함이 가중되는 것과 유사하게 부모세대의 고학력화 역시 저학력 부모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코호트 비교를 통해 가족배경에 따라 이행 경로 분포 변화를 확인한 Schoon과 동료들은(2009)는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단선적 이행을 하는 경우가 적고, 실업이나 시간제 일을 하는 불안정한 이행 유형의 사례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어머니 교육수준이 최근 코호트에서 상당히 상승한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최근 코호트 청년들은 그 불리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의 관련성 변화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것은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실증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최근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에 따라 가족배경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질적연구를 통해 이행 과정이 개인의 선택과 선호에 의해 분화됨을 보여주거나, 양적연구를 하더라도 탈표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친다(Dawson, 2012; Mills, 2007; Rojek & Turner, 2000). 계층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계급효과의 지속 혹은 강화를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에서 이행 유형이 가족배경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Bacold & Hotz,

2006; Côté & Bynner, 2008; Schoon, 2010; Schoon et al., 2009), 가족배경이 취업 이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머문다는 점에서(Crawford et al., 2011; Smith, Crosnoe, & Chao, 2016) 계층화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가족배경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에 비해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이행 유형에 분포하는 비중이 크고, 가족배경이 특정 시점에 관측된 이행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다(Brzinsky-Fay & Solga, 2016; Crawford et al., 2011; Mythen, 2005; Schoon et al., 2001; Smith, Crosnoe, & Chao, 2016). 코호트 비교를 통해 계층화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코호트간 이행 유형 분포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가족배경의 영향이 유지되거나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Schoon(2010)은 영국 코호트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가 청년들의 이행 과정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계층에 따라 이행 과정이 달라지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최근 코호트에서도 불리한 가족배경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행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Côté와 Bynner(2008)도 영국과 캐나다의 코호트 연구에서, 변화한 경제적 조건이 불안정한 궤적(*precarious trajectory*)을 증대시켰음을 보여주고, 가족재정 등 가족배경 요인들이 여전히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이행 지체가 개인 행위자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라는 개인화 가설과 청년기에 포착되는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이론가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조건 변화로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계층에 따라 선택지의 수가 달라지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특정 계층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다. 계층효과가 유지되는 경향은 미국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한 Bacolod와 Hotz(2006), Worts와 동료들(2013)의 연구, 그리고 영국 청년들의 노동 이행과 가족형성 과정을 분석한 Ross와 동료들(2009)과 Schoon과 동료들(2009), Crawford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2. 한국의 거시적 환경 변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사회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년층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도 급변하였다. 여기서는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거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한다.

1) 노동시장 변화

다음 <표 2>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포착되는 거시적 변화를 나타내는 요약 통계이다.

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노동시장도 급변하였고 불안정성 역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민주화와 19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며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10.1%, 1990년대 들어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8%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9%로 급락하였다. 2000년대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 1.8%로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대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1980~90년대 호황은 청년층의 고용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은 1980년대 들어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5.7%로 떨어졌다. 한편,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청년 실업률은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실업률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표 2> 시기별 거시적 환경 변화

		1981 ~1989	1990 ~1997	1998 ~1999	2000 ~2007	2008 ~2009	2010 ~2015	
사회경제적 주요 사건		올림픽 민주화		외환 위기		금융 위기		
경제	경제성장률(GDP)	10.1	8.2	2.9	5.4	1.8	3.5	
	1인당실질국민소득	820	1,451	1,668	2,102	2,378	2,707	
	전년대비증가율	10.6	6.61	0.45	3.91	0.65	3.57	
노동 조건	청년실업률	6.9	5.5	11.6	7.4	7.2	8.1	
	청년경제활동참가율	47.8	48.0	46.1	47.6	44.2	44.6	
	청년 고용률	43.3	45.3	40.8	44.1	41.1	40.9	
노동 시장	청년층 인구(만명)	1,009	1,179	1,155	1,037	980	955	
	공 급	고 등 교육 이수 율	-	33.0	-	51.0	-	69.0
		대 학 진 학 률	36.7	43.9	65.4	77.6	82.9	72.5
		4 년 제 대 학 (개)	99	127	157	169	176	187
		수 요	서비스직 비율	43.3	60.1	60.6	64.1	68.4
	청년 비정규직 비율	-	-	-	33.6	33.5	34.3	
	분 절	고 졸 자 /대 졸 이 상 임 금 격 차	231.6	185.6	158.1	158.7	154.7	164.3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임 금 격 차	-	-	-	63.5	55.9	62.4
		대 기 업 /중 소 기 업 임 금 격 차	-	-	65.6	60.9	56.5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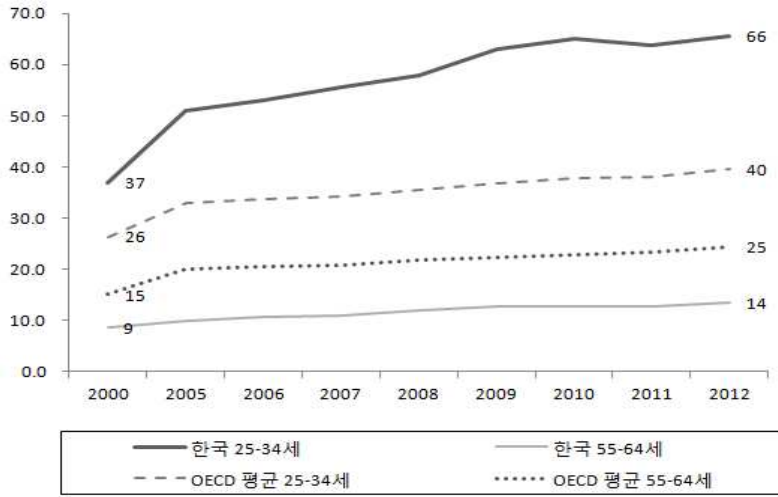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교육청 교육통계, 통계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장래추계인구」, 「경제활동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OECD(2014).

- 주: 1) 청년은 만15~29세 연령집단임. 인구, 서비스직을 제외한 수치는 1980년대(1981~1989),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평균 수치임.
 2) GDP는 2015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만원.
 3)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포함함. 이수율 =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수)*100
 1990, 2005, 2015년 값임.
 4) 대학진학률: 진학률=(진학자수/졸업자수)×100.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이 포함됨.
 5) 취업자의 서비스직 비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2년 전은 제5차, 1993-2000년은 6차, 2001-2008년은 제8차 분류기준에 따름. 2009년 이후는 9차 기준.
 6)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중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 근로를 포함함. 각 2003~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6년 평균값임.
 7) 노동시장 분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대기업(300인이상)과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 임금 격차(통계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대졸이상과 고졸자의 임금격차는 고졸자 100% 기준으로 계산함. 각각, 1980년, 1990년, 1998년, 2000년, 2008년, 2015년 값임.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 인구감소와 급격한 교육팽창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한편,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시행 이후 대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한 교육팽창이 진행되어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문혜진, 2013; 최지원·정진철, 2017). 청년 인구규모는 1980년대 1,009만6천명에서 1990년대 1,179만9천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부터 감소해 2010년부터는 1천만명 이하(953만9천명)로 떨어졌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 경쟁에서 유리하므로 이행 성과가 좋아져야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인구감소 속도가 고학력화 속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전문대학 이상 대학 진학률은 27.2%에 불과했고, 1990년에도 33.2%수준이었으나 2000년 68.0%, 2010년 79.0%로 급격히 상승했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대학교 증가, 경제불황 시기에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경향, 그리고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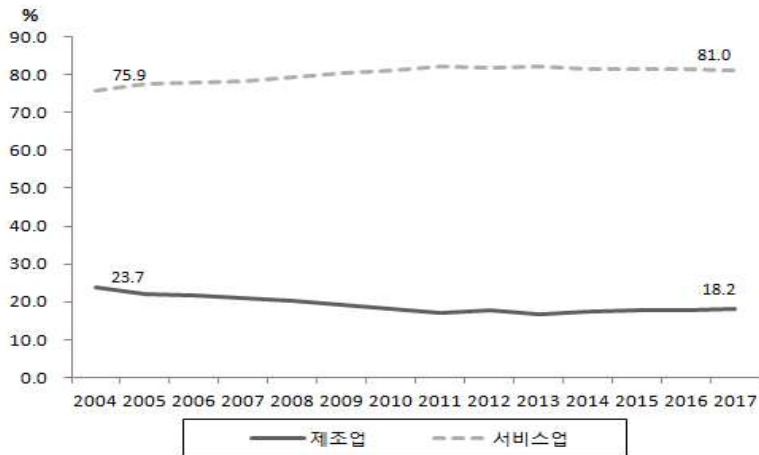
〈그림 7〉은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의 2012년 현재 25~34세 청년층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OECD, 2014). 장년층과 학력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55-64세 장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도 9%에서 2012년 14%로 5%포인트 증가하였으나,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 37%에서 2012년 66%로 29%포인트 증가했다.

셋째, 노동시장 수요측면에서 1990년대까지 청년 노동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성은 점차 낮아져서 청년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서비스직으로 재편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직 비율은 1980년대 43.3%에서 1990년대 60.1%, 2010년 이후에는 69.7%로 신규취업자 10명중 7명이 서비스직에 취업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신규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2002년 75.9%에서 2016년 81.0%로 증가한 반면, 동일 기간에 제조업에 취업한 취업자의 비율은 23.7%에서 18.2%로 감소하였다(〈그림 8〉).



<그림 7> 한국 및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추이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2014 <http://dx.doi.org/10.1787/eag-2014-en>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포함함.
 2) 이수율 =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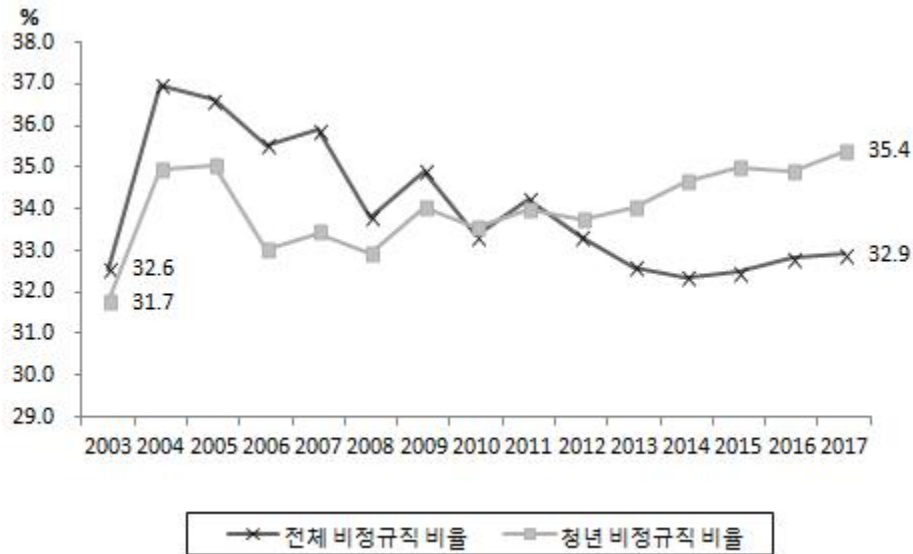


<그림 8> 15-29세 청년층 신규취업자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취업자의 비정규직 규모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3년 31.7%에서 2017년 35.4%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이처럼 노동시장이 불안정 일자리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청년들이 겪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노동 특성으로 고착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 청년층과 전체 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주: 1) 청년은 만15세~29세를 의미하며, 전체는 만15세~64세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함

2)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중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 근로를 포함함.

넷째,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 수준과 고용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진입 과정이 순조롭지 않거나, 진입 이후 이동성이 매우 높은 불안정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성별과 학력 이외에도 기업의 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다(김유빈, 2017).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 내부 정규직과 외부 혹은 주변부에 위치한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되어 고용이 양극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양재진, 2003; 장혜현, 2010). 또한 규제가 약한 개방적 고용관계를 보임과 동시에 폐쇄적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노동시장 특성이 모두 포착된다.¹⁴⁾ 노동시장 분절 수준을 나타내는

학력별, 고용유형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졸자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차이는 1980년에 고졸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대졸자는 231만원을 받았으나,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는 155만원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2015년에 다시 악화되어 대졸자와 고졸자 임금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¹⁵⁾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도 학력 간 임금격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고용안정성, 기업복지 수준의 정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고 실업자가 되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 청년들은 신규 진입자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밖에 위치한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시도하다가, 결국 저임금 불안정 고용이 상시화 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실증 연구들은 청년층이 저임금 근로를 반복한다고 보고한다. 청년취업자의 25%가 특정 시점에 1회 이상 저임금 근로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5%는 3년 동안 저임금근로를 유지하였다(박성재·반정호, 2012). 또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탈출률은 67.4%로 비교적 높지만, 재진입률 역시 39.8%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체계는 조직 공간이고, 복지제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제도적 조정의 영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체계는 교육과 직장의 연계수준이 낮다. 복지제도의 경우, 고용보험 소득대체 수준이 낮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복지제도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약하다.¹⁶⁾

14) 한국의 노동시장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노동시장 성과(고용의 양, 불평등, 고용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앵글로색슨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문다(정이환·김유선, 2011). 이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체제를 신자유주의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려우며, 일부에서는 멕시코와 유사한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있다(김유선, 2010; 정이환·김유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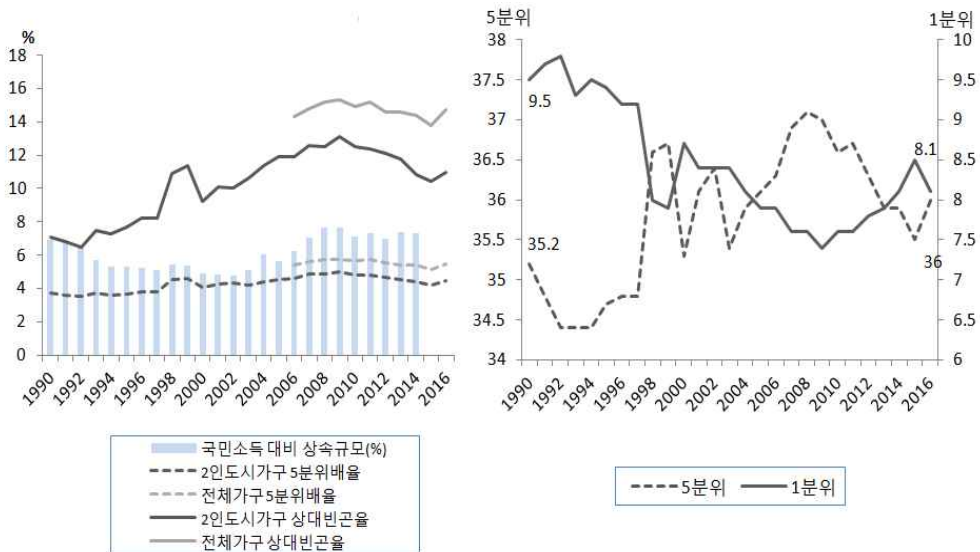
15) 1980년대 대졸자 수 증가로 대졸자 임금이 하락하면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감소하였으나 1994년 이후 대졸자 수요 증가로 임금격차가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정진호·이규용·최강식, 2004).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황수경 외, 2005; OECD, 2008). 또한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고용률이 높고, 첫 일자리 진입에 있어서 화이트칼라 상층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남재량 외, 2011; 장상수, 2008).

요컨대, 우리나라의 거시적 환경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 유형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된 교육팽창과 학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선별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 분절 구조의 악화와 산업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복지제도와 교육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적 조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경제성장이 담보되던 과거와 달리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역시 청년층의 이행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경제적 불평등 추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2010년 이후 완화되었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그림 10>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추이를 보여준다.

16)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변화도 미미한 수준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호황기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고용정책이 전무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98년 정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자는 34만명 수준이었는데, 그마저도 2002년에는 15만명으로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정책 우선순위였다. 2000년부터 근로능력자도 공공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턴제 확대,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그 차이는 대동소이 하다(김성중·성제환, 2005; 김영재·정상완, 2013). 2016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의 63.3%이며, 2008년부터 자영업자(16.10월 기준 569만명) 고용보험을 도입하였으나 가입자가 1.6만명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도 1년 실업시 30.4%로 OECD 3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용노동부, 2017; OECD, 2011).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미래수당(실업부조)의 신설을 발표하였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과 취업 훈련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훈련수당 및 구직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된 30~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급여액은 월60만~80만원, 지급기간은 3~6개월로 검토되고 있다.



A. 소득불평등 지표와 상속규모 추이 B. 5분위와1분위의 소득점유율 추이

<그림 10> 경제적 불평등 추이

자료: 국민소득 대비 상속규모 (김낙년, 2017)
 소득분배 지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1) 상속규모는 국세청 상속세 자료에 Picheti(2011) 방법을 적용해 김낙년(2017)이 추정함.
 2) 소득분배 지표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소득 기준.
 3) 5분위와 1분위 소득점유율 추이는 2인 이상 도시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균등화 소득 기준.

2인 도시가구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2/3 미만)은 1990년 7.1%에서 2010년 12.5%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 10.4%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11.0%로 소폭 상승하였다. 5분위 소득분배율도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소득1분위와 5분위의 소득점유율 추이를 보면 불평등 수준이 악화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그림 10>). 1990년 소득하위 20% 소득점유율은 9.5%였으나, 2016년 8.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상위 20% 소득점유율은 35.2%에서 36.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민소득 대비 상속규모는 외환위기 시점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김낙년, 2017). 1990년 국민소득의 6.9%였던 상속자산은 다소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에 7.7%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4년에는 7.3%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은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보여주는 소득이동성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Corak, 2013). 1975-1990년생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소득이동성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한 이경희(2017)는 부모소득과 자녀소득의 상관관계 계수가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최근 코호트에서 소득계층의 세대간 대물림이 심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출신배경에 따라 불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경향이 최근 코호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제 4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1. 연구문제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행 과정은 과거에 비해 분화되고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거시적 환경은 매우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소득불평등 수준도 악화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불안정하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관계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화 가설과 계층화 가설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다. 기존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측정함에 있어서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변화의 양상과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 모델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한다. 지난 30여년간 한국 청년층이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탈표준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 양상이 가족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탈표준화되었는가?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 연구가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탈표준화 되었는가?’ 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행 과정 변화를 포착하기 보다는 단일코호트를 대상으로 이행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변화를 확인하더라도 출생 코호트 분석이 아니라 여러 연령층이 포함된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 분석을 적용해 한국 청년층의 이행 과정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증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와 노동 상태 변화 양상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다(권혁진·유호선, 2011; 김성남·최수정, 2012; 노혜진, 2012; 박미희·홍백의, 2014; 박지애·남춘호, 2015; 박진희·김용현, 2010; 한준, 2001). 대학 졸업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지만 졸업 후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변화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확인되며, 노동상태 지속성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이행 유형은 출신 고등학교 종류(일반고, 특성화고)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김성남·최수정, 2012; 노혜진, 2012; 박미희·홍백의, 2014).

이와 더불어 이행 과정은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 수준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코호트 비교를 통해 이행 과정의 안정성을 분석한 연구는 문혜진(2013), 최지원과 정진철(2017), 박지애와 남춘호(2015) 등이 있다.¹⁷⁾ 문혜진(2013)은 직장 이동 횟수, 직업, 사업장 규모를 통합하여 직업경력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진입코호트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안정적인 경력유형보다는 불안정한 경력 유형을 보이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저학력 청년에 비해 안정적인 경력유형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최지원과 정진철(2015)은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에 진입한 코호트는

17) 한편, 학교-노동 이행 사건의 변화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도 변화가 관측된다. 장상수(2008)는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가 화이트칼라 상층 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인구규모의 감소로 인한 유리함의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우해봉과 윤인진(2008)은 2001년 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위기 전후 코호트의 첫 일자리 획득 기간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 획득 가능성이 커졌으나, 불안정한 고용(10인미만 상용직/임시일용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보고한다.

이후에 진입한 코호트에 비해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등 다소 비전문적 일자리로의 이행 유형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한 경력유형이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따라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유지기간, 임금이 차이 난다고 분석하였다. 그들은 첫 일자리 진입 기간을 비교하였을 때 외환위기 시점에 진입한 청년층의 이행기간이 더 길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직 생산직 혼재 유형에 위치하는 청년층의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한다. 박지애와 남춘호(2015)는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1987-2007년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의 이행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라 이행 과정이 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지역 학교 출신은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유형과 장기니트형을, 경기인천 출신은 화이트칼라 중소규모 일자리를, 비수도권 출신은 중소규모 일자리 중 블루칼라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더 뚜렷해진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서울지역에서 안정적 이행 유형이 점점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출신학교 지역에 따른 이행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시적 환경과 청년층의 특성 변화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탈표준화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이행 과정의 변화에서 중요한 요인은 교육기간의 연장이다. 급격한 교육수준 상향화와 숙련편향적 기술 발전은 청년층의 교육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는 전형적 유형을 증가시켰다. 교육수준이 높은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보다 이행 시기가 늦고,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는 단선적 유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청년층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다. 즉, 경제적 호황기에는 분절수준이 낮고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기에는 분절수준이 높고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경기호황 후 외환위기를 겪고, 장기적 침체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일자리 질 감소, 특히 청년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지게 관측되는 비정규직 고용과 저임금 일자리 증대는 최근 코호트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요컨대, 청년층의 이행 과정은 ‘대학교-취업’이라는 전형적 이행 유형이 증가하는 양상과 미취업과 불안정 고용 기간이 증가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하는 특성을 동시에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보다 대학 재학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의 비중이 클 것이다.’, ‘경기불황 시기에 이행을 경험한 코호트는 다양성이 크고 분절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보다 고용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은 탈표준화 되었는가?

가설1.1: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보다 대학 재학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 비중이 클 것이다.

가설1.2: 경기불황 시기에 이행을 경험한 코호트는 다양성이 크고 분절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1.3: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보다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계는 변화하였는가?’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분화되고, 분절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그러한 변화가 가족배경에 의해 달라지는가? 여기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계층화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로 측정한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그 크기에 변화가 있는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은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지만, 부모의 소득수준 혹은 빈곤여부에 따른 이행 과정 유형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불리한 가족배경을 가진 청년층의 노동성고가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노혜진, 2012; 변금선, 2015). 또한 유사한 맥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소득이동성, 지위획득모델을 기반으로 한 세대간 지위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배경이 자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됨을 보고하고 있다(김봉근·석재은·현은주, 2012; 김위정·김왕배, 2007; 김종성·이병훈, 2014; 김희삼, 2009; 방하남·김기현, 2002; 안종범·전승훈,

2008; 양정승, 2012; 여유진, 2008; 이상은, 2008; 조우현, 2004; 최지은·홍기석, 2011; 최은영, 2012). 따라서 첫 번째 연구가설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직업지위가 낮으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이다.

횡단분석에서 드러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명확하고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배경 영향력의 변화는 거시적 환경 변화와 개인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따라서 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며, 개인화와 계층화 논쟁이 뚜렷한 실증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가족배경 영향력의 약화를 주장하는 개인화 가설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불안정한 이행 보편화로 인한 이행 과정의 하향 평준화,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상향화로 인한 계층간 차이 감소로 요약된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조건들은 이러한 논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청년층 노동시장은 점차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간의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 등의 질적 격차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남춘호, 2011; 노용환·신종각, 2007; 방하남 외, 2007; 유홍준 외, 2014; 윤윤규 외, 2008; 이병훈·신광영·송리라, 2016). 기존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고용의 질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 불평등도 심화되었는데 주로 고용 안정성 영역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다(남춘호, 2011; 노용환·신종각, 2007). 고용의 질 악화는 주로 청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고용의 질 추이를 분석한 유홍준 외(2014)는 청년층과 노년층에게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병훈 외(2016)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의 질 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청년층은 일자리간 고용의 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뚜렷한 내적 격차가 발견된다. 2007~2014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4년간의 이행 과정을 분석한 김진주와 조민효(2016)는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과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에서 4년제 대졸자 비중이 가장 컸고,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형과 이탈형이 구분된다고 분석하였다. 박미희와 홍백의(2014)는 2007-2008년에 학교를 졸업한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 후 4

년간 관측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지방 소재 중상위권 대학이나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출신이 기타대학을 나온 청년에 비해 준비기간을 거쳐 취업하기보다는 바로 상용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컸으며, 가구소득이 높으면 상용직에 바로 취업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어머니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에 짧은 기간 안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교육팽창으로 인한 계층간 교육수준 격차 감소 효과는 교육계층화와 고학력자의 내적 격차 심화로 인해 상쇄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나 교육계층화 수준은 여전히 높다. 교육계층화 심화는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가족배경이 대학 진학여부 혹은 교육 연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계열이나 대학 서열 혹은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진학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구인회, 2003; 김성식, 2008; 문혜진·변금선·구인회, 2015; 김경근, 2005; 김기현·방하남, 2005; 김위정·김양분, 2013; 방하남·김기현, 2003; 이승은·김태종, 2012; 장상수, 2000).

다음으로 교육팽창은 청년층의 구직 과정에서 대학 학위 이외 요건이 중요해지도록 만들었으며, 요건의 대부분은 가족배경에 의해 결정된다.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학력자 집단에서도 노동성과의 내적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¹⁸⁾ 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성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있어서 대학학위 이외의 요건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대학 학위 이외의 조건들(해외연수나 인턴경험 등 스펙과 취업사교육, 자격증 등)이 취업여

18) 교육팽창은 학위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학위의 상대적 가치 하락과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이어져 고학력자의 내적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며(김기현, 2003b; 오호영, 2005; 박성재·반정호, 2008), 고학력자 집단의 노동성과 하락도 관측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중임금이 상승하여 미취업 기간이 연장된다(변금선, 2015; 신동균, 1999; 이병희 외, 2010), 니트 혹은 실업자 중 교육수준이 높은 고학력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2001년 21.2%에서 2012년 31.1%로 크게 증가했다(신우진, 2015).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하위 20%, 그리고 2년제 대학 졸업자의 하위 50%의 임금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한다(이주호·정혁·홍성창, 2014). 청년층 대졸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986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졸자의 수익률 상승이 아니라 고졸자의 수익률 감소에 기인한다(박소영, 2015).

부, 미취업탈출률, 임금 등의 노동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김성태·전영준·임병인, 2013; 김정숙, 2009; 배호중·안중기, 2011; 변금선, 2015; 성지미·안주엽, 2012; 이규용·김용현, 2003; 장기영,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셋째, 부모세대의 계층이동 수준이 크기 때문에 가족배경의 영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세대간 계층이동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의 계층이동이 청년층에 비해 크고, 최근 청년층에게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경직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한준 외(2017)는 교육개발원의 '2010 교육과 사회이동 코호트 자료'와 2015년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해 부모와 자녀의 직업 이동성을 비교하였는데,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상승이동률은 64%였으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는 57.7%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유진 외(2015)도 민주화세대에서 정보화세대로 올수록 학력, 계층, 직업의 대물림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이와 더불어 소득불평등 수준이 악화되었다는 것도 계층간 이행 과정의 차이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요컨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련성은 약화되기 보다는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이행의 분화와 분절적 이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절 수준이 낮고 안정적 일자리로 이행을 경험하는 집단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전체적인 불안정성은 증가하였어도 그 불안정의 수준은 불평등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계층화가 질적 차별화를 통하여 심화되고, 학위의 가치 하락과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대학 학위만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다. 과거 세대에 비해 최근 청년세대의 세대간 계층이동이 어려워졌으며,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적이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화 가설보다는 계층화 가설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은 '최근 코호트의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련성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더 클 것이다.' 라고 설정한다.

연구문제2: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의 관계는 변화하였는가?

가설2.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직업지위가 낮으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2.2: 최근 코호트의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련성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더 클 것이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개념과 측정

여기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개념에 대한 두 관점과 이행 과정의 개념화에 있어서 제기되는 이슈를 살펴본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 제시하겠다.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개념에 대한 두 관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크게 두 관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하나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변수 중심 총량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경험하는 이행 과정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둔 총체적 과정 중심 접근이다.

1) 변수중심(variable-centered) 총량적 개념 : 이행 사건

경제학적 관점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주로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행사건이라는 변수를 분석한다. 이행(transition)은 보통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하나의 상태 변화(single status change), 즉 하나의 사회적 역할이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을 의미한다(Schoon, 2010; Brizinsky-Fay, 2013). 경제학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 직업탐색이론, 신호이론 등을 바탕으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 동태적 패널 로짓모형(Dynamic panel logit model) 등을 이용해 정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일자리를 갖는데 걸린 기간, 미취업 탈출 확률, 첫 일자리의 질,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관측된 고용상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마친 뒤 노동시장 진입 요인과 불안정한 진입, 즉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경험하는 실업 등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Caspi et al., 1998; Cockx & Picchio, 2013; De Vries &

Wolbers, 2005; Ellwood, 1982; Gebel, 2009; Gregg, 2001; Korpi, Graaf, Hendrickx, & Layte, 2003; Müller & Gangl, 2003; OECD, 2008; Russell & O'Connell, 2001; Scherer, 2004).

경제학적 접근은 총량적(aggregate) 지표를 이용해 이행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고, 변수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기간의 연장과 이행 과정의 복잡성 증대라는 현실을 간과하고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이행 사건 발생확률을 비교하면, 해당되는 사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청년들이 경험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준비 활동, 또는 육아나 가사노동 등 비경제활동 상태를 반영하기 어렵다.¹⁹⁾ 둘째,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일자리의 질에서 첫 일자리의 정의가 모호하다. 기존 연구에서 첫 일자리는 적어도 6개월간 지속된 첫 번째 중요한 일자리(Russell & O'Connell, 2001; Korpi et al., 2003), 혹은 최종시점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로 정의한다(Arum & Hout, 1998). 이 때 주요하지 않은 일자리 경험 혹은 첫 일자리 이후 일자리 경력이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다(Brizinsky-Fay, 2013: 219). 노동생애에서 청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해 경력을 쌓는 시기이다. 따라서 주요한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과정과 첫 일자리 이후 노동경력이 중요한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 이행기간의 길고 짧음, 특정 시점 고용상태만으로 이행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일례로 구직기간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으며(Böheim & Taylor, 2002; Gangl, 2004), 관측시점 현재 고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전 시점에 얼마나 오래 실업상태를 유지했는지, 관측 시점 이후 일자리를 지속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19) 계량경제 분석방법 발전으로 하나의 이행이나 기간 분석이 아니라 다중상태, 반복사건, 역방향적 이행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상태간 이동에 있어서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경험하는 일련의 연속적 이행을 상태간 변화로 분절시켜 이행 성과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 사례중심(person-centered) 총체적 접근 : 이행 과정

사회학자들은 변수중심 접근이 청년층의 이행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변수중심 연구가 사회적 맥락을 결여해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Blanchard, Buhmann, & Gauthier, 2014). 교육팽창으로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조건이 변화하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복잡성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을 하나의 변수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며, 최근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청년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만든다(Brizinsky-Fay, 2007).

이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교육경력(educational careers)과 노동시장 경력(labour-market careers)의 첫 연결이 관측되는 시기의 총체적 배열(holistic sequence), 즉 '이행 과정'으로 인식한다(Raffe, 2014: 177). 여기서 상태의 변화는 궤적(trajjectory), 경력(career), 경로(pathway) 등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포착되는 교육, 훈련, 고용 상태의 연속적인 순서 배열을 의미한다(Schoon, 2010).²⁰⁾ 이들은 생애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청년기라는 생애단계에 경험하는 성인으로 이행의 과업으로 인식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배열 분석(Sequence Analysis)이나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집단기반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연령에 따른 상태변화 배열을 유형화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탈표준화를 확인하거나, 이행 경로 유형이 교육수준이나 출신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다(Buchmann, 1989; Elman & O'Rand, 2004; Esping-Andersen & Wagner, 2012; Furlong et al., 2003; Giudici & Pallas, 2014; Opheim, 2007; Shanahan, 2000; Triventi, 2013; Van de Werfhorst, 2004). 다음 <표 3>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개념 구조이다.

20) 유사한 개념으로 직업경력, 고용상태 변화가 있다. 직업경력과 고용상태 변화는 청년기라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보다 포괄적이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 직업경력 혹은 고용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일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개념 구성

	배경 이론	특성	관점	관측 시점·방향	분석대상	분석방법
변수 중심	경제학: 인적자본이론 직업탐색이론 신호이론	설명 연구	총량적	단일 시점 일방향	이행(실업→고용) 상태의 지속기간 (미취업기간)	사건사분석 동태적패널로짓
사례 중심	사회학: 생애과정이론 계층화이론	기술 연구	총체적	다 시점 양방향	상태의 배열 (학생↔미취업↔ 실업)	배열분석 잠재군집분석 집단기반궤적분석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개념화와 관련된 쟁점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와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과정으로 개념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기적인 이행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이행 과정의 양상과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된다.

1) 이행 과정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복수 상태(status)의 순서(order) 조합으로 존재하며, 이행 과정 연구의 핵심은 이행 과정이 유사한 사례들을 묶어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연구하는 내재적 목적은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과 안정적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 과정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일자리 변동이나 실업/미취업 기간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 일자리에 순조롭게 정착하는 이행 유형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잦은 이직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정 이행 유형을 명확하게 식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행 과정의 유형은 각 시점에 관측되는 상태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연구들은 이행 유형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태를 분석에 포함

하여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복잡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일반적으로 각 시점의 상태를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취업과 미취업으로 나누고, 취업은 시간제와 전일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비경제활동은 돌봄이나 가사노동, 니트 등으로 세분한다(Bacolod & Hotz, 2006; Brzinsky-Fay, 2007; Brzinsky-Fay & Solga, 2016; Crawford et al., 2011; McVicar & Anyadike-Danes, 2002; Scherer, 2001; Schoon et al., 2001; Schoon et al., 2009; Worts et al., 2013). 상태를 세분화하면 분석 결과 도출된 이행 유형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행 유형간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내거나 출생 코호트별 이행 유형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Schoon과 동료들(2001)은 상태를 훈련, 전일제 고용, 전일제 교육, 시간제 고용, 가족돌봄과 가사로 구분하여 노동상태 변화를 유형화한 결과, 전일제 고용, 훈련, 전일제 교육, 실업, 시간제고용, 기타 유형이 도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각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해 특정 시점에 관측되는 고용상태 혹은 고용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에 비해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연구들은 상태를 세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 유형간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Virtanen과 동료들(2011)은 스웨덴의 30세에서 42세 중년기에 관측되는 노동이행 과정을 유형화했는데, 노동 상태를 노동시장 근착성(labor market attachment)의 강도(strength)-강함, 중간, 약함, 이탈-, 즉, 서열화 된 척도로 측정하여 이행 유형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하였다. 여기서 노동시장 근착성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개념으로, 노동시장에 접근한 정도, 결합된 정도를 의미한다. 양극단의 한 쪽에는 노동시장에 완전히 근착된 노동자(전일제, 상용 근로자)가, 그 반대에는 일을 할 의향이 전혀 없거나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이 위치한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한 집단, 니트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영국 중년층의 노동 이행을 노동시장 근착성이 중간으로 유지되는 유형, 높음으로 유지되는 유형, 강해지는 유형, 약해지는 유형, 지체되는 유형, 매우 낮은 유형으로 구별된다고 분석하였다.²¹⁾

21) Virtanen과 동료들(2011)은 노동시장 근착성 ‘강함’은 고용유형이 영구고용이거나 사업자인 경우, ‘중간’은 고용유형이 프로젝트 고용, 대체근로, 견습직, 호출노동, 계절직 근로, 기타 일시 고용인 경우이며, ‘약함’은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노동시장 이탈(비경제활동)이다. 여기에 특정 기간에 두 가지 고용유형이 복합적으로 관찰되면

Brzinsky-Fay와 Solga(2016)는 독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비교 연구에서 이행 유형간 차이를 분절성(non-linearity)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전일제 학생에서 전일제 고용으로 단선적 이행이 분절적 이행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분절 수준을 기준으로 이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독일 청년층의 15-30세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단기교육-직업훈련-노동’, ‘중기 교육-직업훈련-노동’, ‘장기간 교육-직업훈련-교육’, ‘대학과 짧은 직업훈련-장기간 대학교육’, ‘불안정’, ‘직업훈련과 노동-이른 가사/육아’, ‘직업훈련-노동-늦은 가사육아’라는 8개의 이행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이행 유형의 차이를 분절의 수준(degree of non-linearity)과 분절의 심도(severity of non-linearity)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분절 수준은 각 이행 유형 집단에서 관찰되는 상태의 종류, 상태간 변화의 수, 관측 시점까지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례의 수, 30세 시점 고용률, 전체 기간 중 미취업과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절의 심도는 이행 유형과 마지막 시점 임금의 관계로 판단하였다.

국내연구들도 이행 유형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노동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문혜진(2013), 최지원과 정진철(2017)은 외환위기 전후 청년층의 직업경력을 유형화하였다. 먼저 문혜진(2013)은 경력 변화를 고용불안정의 개념구조를 반영하여 직업, 사업장 규모, 고용의 형태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으며, 경력유형과 최종 시점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지원과 정진철(2017)은 직업경력 유형의 특성을 노동시장 진입 특성(첫 일자리 취업소요기간과 임금), 과정 특성(첫 일자리 유지기간과 이직 횟수), 결과 특성(취업여부, 근속년수, 임금)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차이를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다.

2) 이행 과정 관측 기준: 경과 기간(duration)인가?, 연령(age)인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행 상태 변화를 관측하는 시점 기준에 따라 경과기간(duration)과 연령(ag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과기간 방식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직업경력 형성 과정으로 인식

더 낮은 유형으로 조정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기간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탈’로 구분했다(Virtanen et al., 2011: 57-58).

한다. 경과기간 방식을 적용한 연구들은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시점이 동일한 집단, 즉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이다. 경과기간 방식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경제적 사건 전후 노동경력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고, 노동시장 진입 후 누적되는 경력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이행 과정을 분석하므로, 교육수준과 이행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경과기간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이질적 사례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게 된다. 둘째, 경과기간 방식은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이행 과정을 분석하므로 재학 중 노동 상태를 반영하기 어렵다. 졸업·중퇴 이후 노동시장 이행을 관측할 경우, 학교에 다니면서(혹은 휴학 중) 일을 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행의 어려움을 누락할 수 있다. 특히 재학중 시간제근로를 경험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열악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과기간 방식은 청년층이 실제 경험하는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²²⁾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학위를 받기까지 과정이 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이 졸업이나 중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관측된다(Bacolod & Hotz, 2006; Fitzpatrick & Turner, 2007; Horn, Peter, & Rooney, 2002; Hovdhaugen, 2015; Mortimer, 2003; Weiss & Roksa, 2016). 다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실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진학자 중 일부이며, 졸업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휴학 횟수, 재학 중 근로 경험 등에 있어서 분화가 나타난다(Vuolo, Motimer, & Staff, 2014).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휴학을 경험하는 비중은 남성 79.7%, 여성 19.5%로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7). 이는 군입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려는 경우도 많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일을 한다. 통계청 청년층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 비중은 2017년 현재 41.9%로 첫 조사가 시작된 2004년과 유

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일을 한 청년의 68.9%가 시간제취업했다고 응답했으며, 신동준(2013)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대학생의 시간당임금은 교내 일자리 6,642원, 교외 일자리 8,774원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교내 일자리 36만8천원, 교외 일자리 106만3천원으로 매우 낮았다.

사한 수준이지만, 재학 중 전일제 근로 비중은 2004년 32.4%에서 15.5%로 크게 감소하였고, 시간제 근로는 52.3%에서 70.5%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²³⁾

둘째, 생애과정 및 심리사회모델 연구에서 활용되는 연령 방식은 인간이 나이 들에 따른 성숙(mature)과 연령규범(age norm), 생애과정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Brzinsky-Fay & Solga, 2016).²⁴⁾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은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15~30세의 교육-노동시장 진입 준비-진입-정착 과정을 분석한다. 출생코호트는 각 시점의 역사,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이며, 출생코호트의 이행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코호트의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 양상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Elder, 1985). 또한 연령 방식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발생하는 시기(timing)와 연령 구조(age structure)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늦어진 최근 청년층의 생애과정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방식은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교육수준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연령을 기준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할 경우, 교육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인 교육경력,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이 포함된 노동경력이 중첩되므로 교육수준에 따른 이행 유형 분화(differentiation)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령 방식을 적용한 연구들은 인과모형을 상정하지 않고 교육수준과 이행 유형의 상관관계를 상정하거나, 교육수준이 동시적 변수임을 밝히고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밝힌다(Brzinsky-Fay & Solga, 2016).

23) 전일제 근로는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다. 재학 중 전일제 근로를 경험한 집단에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근로학생(working student)과 졸업학기에 취업하여 행정상으로는 재학 중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24) Sterner와 Mayer(1997: 252)는 생애과정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몇 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시기(timing)는 생애과정에서 주어진 이행이 일어나는 연령을 의미하며, 배열(sequence)은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이행의 순서조합이다. 기간(duration)은 주어진 상태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며, 행간-거리(spacing)는 둘 혹은 그 이상 이행간 시간량을 의미한다. 한편, 연령구조(age structure)에 대해서 Neugarten(1970)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사회는 연령에 선호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 체계를 지니고, 개인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된 주기를 거치며, 사회적인 연령-지위의 계승은 권리, 의무로 인식된다. 이런 규범화된(normative) 유형은 대부분의 개인들에 의해 지속된다.”(Marshall & Mueller, 2003: 8).

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개념과 측정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관측되는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연령을 기준으로 만19세부터 29세에 관측되는 노동 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분석대상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청년층이다. 일부 연구들이 성인 이 행기 연장을 근거로 청년층을 만34세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기존 연구와의 일관 성을 고려하여 이행 과정 관측 시점을 만29세까지로 제한하였다.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측정

본 연구는 만19세부터 29세까지 11년 동안 관측되는 교육과 노동 상태의 변화를 이용해 이행 과정을 분석한다. 이행 과정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로 측정한다. 다음 <표 4>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측정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측정

측정		대상
노동시장 근착성		
0. 미취업	비경활(학생 제외)	육아, 가사, 군복무, 실업, 취업준비, 기타공백
1. 교육	전일제 학생	재학 중 일을 한 기록이 없는 학생인 경우
2. 재학노동	재학 중 근로	재학 중 일을 한 경우
3. 노동	취업자	일을 한 경우 (임금, 비임금근로자 포함)
노동 안정성		
0. 미취업	비경활 및 실업자	학생, 육아, 가사, 군복무, 실업, 취업준비, 기타
1. 매우 낮음	저임금	임금, 소득이 중위임금 2/3미만
2. 낮음	중위임금	임금, 소득이 중위임금 2/3이상 - 중위임금 미만
3. 높음	중위임금 이상	임금, 소득이 중위임금 이상
4. 매우 높음	불안정 노동	임시일용 근로자 혹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위임금 이상 안정 노동	임금; 특히 중위임금 이상 상용 근로자 혹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고용주

(1) 노동시장 근착성

노동시장 근착성(labor market attachment)은 노동시장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지를 반영하므로 이행 과정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노동시장에의 결합 정도를 보여주며,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구분되는 경제활동상태보다 후기 산업사회의 분화된 고용상태를 연속체로 보여주는 점에서 노동 특성 변화를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Dooley, 2003; Grzywacz & Dooley, 2003; Jones & Riddell, 2006; Virtanen et al., 2011 재인용).

노동시장 근착성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 번째 방법은 각 시점의 상태를 노동시장에의 결합 정도에 따라 서열화 된 변수로 측정하는 것이다. Laux(1997)는 ‘비고용’, ‘실업’, ‘임시고용’, ‘영구고용’으로 구분하였으며, Aassve와 동료들(2007)은 ‘비고용’, ‘시간제’, ‘전일제 혹은 유급자영자’로 구분하였다. Widmer와 Ritschard(2009)는 ‘부정적 노동분절(실업, 노동의지 상실)’, ‘긍정적 노동분절(해외여행 등)’, ‘학생’, ‘전일제 가사’, ‘시간제 유급노동’, ‘전일제 고용’으로 측정하였으며, Virtanen과 동료들(2011)은 경제활동상태와 고용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근착성 ‘강함’, ‘중간’, ‘약함’, ‘이탈’로 구분했다.

Crawford와 동료들(2011), Bacolod와 Hotz(2006)는 ‘미취업’, ‘전일제 학생’, ‘재학노동’(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간제와 전일제)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일 할 의사를 반영하여 비취업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Little, 2007: 20). Jones와 Riddle(1999)은 구직의사를 반영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집단을 세분하고, De la Fuentes(2011)은 ‘실업’, ‘당장 일할 수 없는 구직자’, ‘일할 수 있는 비구직자’, ‘기타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했다.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전통적 경제활동인구 구분(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였는데,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구직 활동했으나 당장 일 할 수 없는 경우), ‘잠재구직자’(구직활동을 안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로 세분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여부 혹은 비경제활동, 취업, 미취업으로 구분하되 장기간 상태 변화 유형으로 근착성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Furåker와 Berglund(2008)는 노동시장 근착성이 “사람들이 1년 내내 혹은 일부 기간동안 고용 혹은 실직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García-Manglano(2015), Hynes와 Clarkberg(2005), Sun과 Chen(2017)은 장기간 고용 여부 변화로 노동시장 근착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규모가 크므로 비경제활동을 세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비경제활동, 노동시간, 노동할 의사 등 다양한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관찰되는 미취업 상태의 구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장 근착성을 미취업, 학생, 재학 중 근로, 노동 4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정규 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Crawford et al., 2011).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은 경우는 노동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이고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면 노동시장 근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미취업’에는 실업, 니트,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군복무, 육아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이 포함된다. 실업 상태는 자료의 한계로 별도로 구분하지 못 하였는데,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언제라도 적정 수준의 일 기회가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고(안주엽·홍서연, 2001), 최근 청년층 문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밖에 머무는 유희화에 있으므로 실업을 포함한 미취업을 노동시장 근착성이 가장 낮은 상태로 간주하였다. ‘학생’은 취업을 준비

하는 전 단계로 많은 경우 재학 중 휴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므로 미취업보다 노동시장에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설정하였다.²⁵⁾ ‘재학노동’은 교육을 받은 기간과 노동 기간이 겹치는 경우로, 재학 중 근로가 여기에 속한다. 재학 중 일하는 경우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재학노동’은 ‘미취업’ 혹은 ‘학생’보다 노동시장에 가까이 위치한다고 설정하였다.²⁶⁾ ‘노동’은 노동시장 근착성이 가장 높은 상태로,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가 모두 포함된다.²⁷⁾²⁸⁾

(2) 노동 안정성

노동시장 근착성은 노동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므로, 일자리 질 변화를

-
- 25)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대졸자 중 휴학을 경험한 경우는 43.1%였으며, 휴학생 중 42.1%가 휴학 기간동안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 26) 재학 중 근로는 교육 중단과 노동시장 진입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 노동성과와 노동경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존 연구들은 재학 중 근로가 공부에 전념할 시간을 감소시켜 졸업을 유예시키거나, 졸업할 확률을 낮춘다고 보고하며, 재학 중 근로가 대부분 시간제노동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노동경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해 Weiss와 Roksa(2016)는 미국 NLSY79와 NLSY97 자료를 분석해, 재학 중 근로는 대학 졸업 확률을 낮춘다고 보고한다. Hovdhaugen(2015)는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재학 중 근로시간이 길수록(풀타임, 주20시간 이상) 중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재학 중 근로가 교육 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이찬영, 2012). 또한 재학 중 근로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임금수준을 높이지는 못하며(이병희, 2003), 재학 중 비정규노동은 가교보다는 텃을 의미한다고 보고한다(김성훈, 2011).
- 27) 본 연구는 비임금근로자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은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큰 편이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임금근로를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노동의 불안정성은 임금근로자에게서만 관측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노동상태 변화를 확인하므로 비임금근로를 제외할 경우 직업력 정보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누락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안정성 여부는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했다. 더 세부적인 분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자료의 한계임을 밝힌다. 관련하여 이승윤 외(2017)도 불안정 노동을 측정하면서 비임금근로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4인 이하 작업장의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를 불안정 노동으로 간주했다.
- 28) 군복무 상태는 군복무 시작 및 종료 시기가 모두 확인되는 사례가 적어서 별도 상태로 구분하지 못하였다(남성 중 51.3% 군복무 시기 미상). 대학진학자의 경우, 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학력 남성의 군복무 시기는 재학기간에 포함되고, 저학력 남성의 군복무시기는 미취업 상태에 포함된다(이병희 외, 2010). 한편 군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됐다. 육군기준 60코호트의 군복무 기간은 30-33개월, 70코호트는 26개월, 75코호트는 24-26개월, 80코호트는 21-24개월이다. 분석 결과, 최근 코호트 남성의 재학기간과 미취업기간이 모두 길어졌다. 군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재학기간과 미취업기간 변화는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다.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 과정의 질적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동 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동 안정성은 노동 불안정성(work precariousness)의 변화로 정하였다. 노동 불안정성은 “고용계약 형태, 임금 및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정의한다(백승호, 2014).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조직적 차원의 노동조건, 임금과 노동 강도,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보험 접근성, 고용보호법 적용 정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저임금 일자리 등 기준이 포함된다(Rodgers, 1989; 문혜진, 2013 재인용).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따라 노동의 불안정성을 경제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는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²⁹⁾ 사회보험 가입률 등 사회적 보호 수준은 자료의 한계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임금은 비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을 각 년도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저임금이상 중위임금 미만, 중위임금 이상으로 구분하였다.³⁰⁾ 종사상지위는 상용직과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고용주를 안정적 고용상태로, 임시 일용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불안정 고용상태로 구분하였다.

29) 고용 안정성은 비정규직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대리변수로 기업규모나 기업형태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 안정성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자료의 한계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는 고용유형을 구분하는 변수로 종사상지위, 주관적인 응답(정규/비정규직 여부), 근로계약유무, 정규근로시간유무 등의 정보를, 기업과 관련된 변수로 종업원 수, 기업형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1차조사부터 18차조사까지 일관되게 조사가 이루어진 변수는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가족종사자로 구분) 변수이다.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경제활동부가조사를 이용해 청년 고용통계를 분석한 김기현(2015)은 노동패널조사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경제활동부가조사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임시일용직 규모는 보수적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30) 월 중위임금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월 중위임금 값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는 실제 노동시간을 고려해 시간당임금으로 측정하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초기 직업력조사는 근로시간을 조사하지 않아 시간당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저임금근로자는 노동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실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수준인 월평균임금 및 월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OECD도 전일제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전일제근로자의 시간당임금,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연간총임금, 주당총임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저임금근로자를 측정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 한편,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은 277만4천원이었고, 1인 사업장 중위임금은 208만3천원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75%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실제 저임금근로자 규모보다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 일자리의 이행을 식별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분석 결과의 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동 안정성은 '0. 미취업', '1. 매우 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 높음'으로 구분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노동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0. 미취업'은 학생을 포함한 미취업자이다. 월평균 임금·소득이 당해 연도 월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인 경우 노동 안정성이 '1. 매우 낮음'으로, 중위임금 2/3이상 중위임금 미만인 경우 '2. 낮음'으로 정의하였다. 월평균 임금·소득이 당해 연도 중위임금 이상이면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노동 안정성 '3. 높음'으로, 중위임금 이상이면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혹은 고용주인 경우 노동 안정성 '4. 매우 높음'으로 정의했다.³¹⁾

제 2 절 분석대상

본 연구는 경제조건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한 이행 과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코호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사회변동 연구들은 코호트 비교를 통해 사회변화를 포착하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변화 연구들도 코호트 비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 전환은 코호트의 계승(succession)과 대체(replacement)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Ryder, 1965), “코호트 비교는 사회 변화를 확인하는데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Hardy, 1997: 5). 특히 출생코호트는 동일한 시기 사회경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와 제약을 공유하는 집단이다(이병희 외, 2010: 22). 즉, 코호트간 비교에서 발견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유사성과 차이는 청년층이 노동생애를 시작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생애과정의 변화와 지속성을 포착하는데 유용하다.

31)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 교차방법으로 노동 안정성의 서열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직업력 초기자료는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임금근로이면서 임시일용직인 경우와 저임금근로이면서 상용직인 경우 두 집단간 노동 안정성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성이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중위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해 종사상지위를 반영하였다.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1962~1984년생이 만19~29세에 경험한 노동 상태 변화를 분석한다. 거시경제적 환경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미시적 요인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세대(generation) 연구들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준으로 산업화 세대(1940-1959), 민주화 세대(1960-1974), 정보화 세대(1975-1995)로 나누거나(함인희, 2007), 베이비붐 세대(1956-1965), 386 세대(1966-1975), 정보화 세대(1976-1986), 에코 세대(1987-1994)로 구분한다(한준·계봉오·황선재, 2017).

본 연구는 기존의 세대구분을 고려하되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과 해당 사건을 경험한 연령시점을 고려하여 4개의 출생코호트를 구분하였다. 각 코호트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첫 이행이 이루어지는 평균 연령인 20대 중반에 민주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거시적 환경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담지한다. 다음 <표 5>는 거시적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표 2>와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각 출생코호트의 기회구조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그림 11>은 각 코호트가 각 연령대에 어떤 역사적 시간에 위치하였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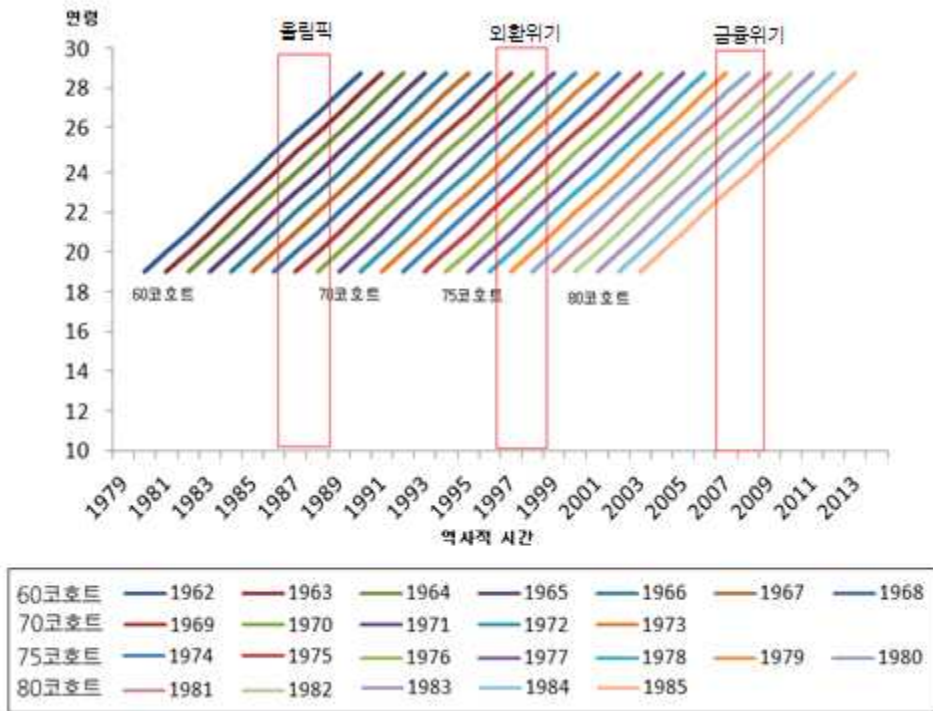
<표 5> 출생코호트별 기회구조의 유형화

출생 코호트	이행 시기	사회경제 사건	교육	경제 조건	노동시장 조건	노동 구조	코호트 사이즈	전반적 조건
60코호트 (1962~68)	1981~ 1997	민주화 올림픽	--	-	+	++	-	- (12)
70코호트 (1969~73)	1988~ 2003	외환위기 이전	++	0	0	0	0	++ (13)
75코호트 (1974~80)	1994~ 2009	외환위기	++	--	--	0	0	++ (17)
80코호트 (1981~85)	2000~ 2015	금융위기	+	--	--	--	+	---- (19)

출처: Brzinsky-Fay & Solga(2016)의 <표 2>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주 1) <표 2>를 반영함

2) 전반적 조건은 가장 긍정적인 것을 1(++), 부정적인 경우를 5(--)로 설정하였을 때, 각 조건을 합산한 값임.



<그림 11> 분석대상 코호트의 연령에 따른 역사적 시간(연도)의 위치

출처: Van Winkle & Fasang(2016)의 <그림 2>를 참고함.

<표 6>은 분석대상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1960년생 코호트(이하 60코호트)는 1962년부터 1968년생으로 구성된다.³²⁾ 이들은 1980년대 민주화와 1988년 올림픽을 경험한 민주화 세대다.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교육수준과 절대적 소득수준이 낮다. 노동구조에 있어서 비정규직 규모가 작고 서비스직으로의 재편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행 시기는 빠르지만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은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노동 시장이 재편되기 이전으로 노동 안정성은 높을 수 있다.

32) 1962년 이전 출생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전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사회적 격동을 경험하였고, 민주화 이전에 이행 과정을 경험하였다는 점, 경제적 발전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 분석적 측면에서 회고해야 하는 시간적 공백이 길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6> 분석대상

구분	연령	19세 시점	29세 시점	사회경제적 맥락 특성
1960 코호트	1962~68년생	1981~87년	1991~97년	고등교육 확대, 민주화 시기
1970 코호트	1969~73년생	1988~93년	1998~03년	고등교육 팽창기, 외환위기 전
1975 코호트	1974~80년생	1994~99년	2004~09년	고등교육 팽창기, 외환위기
1980 코호트	1981~85년생	2000~05년	2010~15년	고등교육 보편화, 세계금융위기

둘째, 1970년생 코호트(이하 70코호트)는 1969년생부터 1973년생으로 구성된다. 386세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 상황에서 이행을 경험한 집단이다. 교육수준이 높으며 민주화 이후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된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고학력자 노동 수요 역시 증가해 이행 시기가 60코호트에 비해 늦어지고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은 높은 수준일 것이다.

셋째, 1975년생 코호트(이하 75코호트)는 1974년생부터 1980년생으로 구성된, 정보화 세대이다. 이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직후 1999년까지 이어진 급격한 실업률 상승과 경기하락, 즉 외환위기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기 이전이고, 경기하락 후 금융위기 전까지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 수준도 다소 회복되는 등 경기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기회 확대로 인적자본 수준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행 과정의 양상은 다소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생 코호트(이하 80코호트)는 1981년생부터 1985년생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안정성의 악화와 이어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로 인한 노동시장 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행을 경험했다. 이들은 다른 두 코호트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유리할 수 있다. 모든 코호트 중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가장 느리지만 높은 교육수준으로 이행 과정의 분절 수준이 낮고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선별

성이 악화될 수 있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된 시점이어서 노동 안정성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60코호트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호황, 70코호트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호황, 75코호트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불안정하게 재편되는 시기와 높은 교육수준, 80코호트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분절,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60코호트와 70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호황이라는 유사한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공급에 변화가 있을 때(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이행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70코호트와 75코호트 혹은 80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외환위기 전후의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75코호트와 80코호트 비교를 통해 유사한 경제조건과 노동시장 공급 조건 속에서 노동시장 분절구조가 심화됐을 때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0코호트와 80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교육수준, 노동시장 구조, 경제적 조건의 변화의 총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1) 분석자료

본 연구를 분석하려면 1960-80년대에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 등의 정보에 대해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층이 포함된 국내 패널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survey),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등이 있다. 청년패널조사와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에 필요한 사례 수 확보가 쉽고 표본 대표성이 높지만, 청년패널은 15~29세, 교육고용패널은 중학교 3학년생 및 고등학교 3학년생을 7-8년간 추적조사 해 청년기 전체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역시 11차조사까지 완료됐으나 직업력 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코호트를 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패널자료 중 최장기간 조사가 이뤄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했다.³³⁾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8차 조사(2015년)까지 진행되었다. 12차년도(2009년)에는 표본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1,415가구 표본을 추가하였다. 패널조사는 표본유지율이 중요한데, 18차 조사의 표본유지율은 68.4%이며, 통합표본의 표본유지율은 86.2%로 안정적인 수준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7b). 본 연구는 10대부터 20대 후반 청년기의 가족배경, 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교육이력과 노동경력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자료의 1차년도(1998년)부터 18차년도(2015년) 개인자료와 18차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만19세부터 29세까지 11년에 대한 132개월의 노동상태 변화 자료를 구축하였다. 직업력 자료의 일자리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의 정보를 1개월 단위로 재구조화하고, 교육력 자료는 개인자료와 3차 부가조사, 9차 부가조사를 이용해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개인특성(성별, 가족배경, 교육수준 등) 자료를 연결하였다. 거시적 환경 변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³⁴⁾

자료를 구성함에 있어서 회고(recall error), 이탈(attrition), 무응답 결측(missing)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고에 의한 직업력과 교육력 자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좌측절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코호트의 직업력은 대부분 회고자료로 구성되며,

33)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청년층 전체 혹은 특정 졸업코호트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므로(문혜진, 2013; 206),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년층을 대표한다거나, 해당 시기에 졸업한 청년층의 특성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4) 본 연구는 상태변화를 월 단위로 구성한다. 각 개인은 총11년 132개월에 대한 상태 값을 갖는다(person-period data). 에피소드를 월 단위로 구성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지만, 비경제활동 상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패널조사 자료는 노동이나 교육상태의 월 단위 지속기간 정보를 제공하지만, 비경제활동의 월 단위 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비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연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에피소드를 구성하기도 한다(김성남·최수정, 2012; Bacolod & Hotz, 2006; Helske et al., 2015; Schoon et al., 2009).

최근 코호트 중 신규조사자도 회고자료가 포함된다. 회고여부에 따라 관측된 일자리의 수에 차이가 발견되는지 분석한 결과, 회고자료가 한번이라도 포함된 집단과 회고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집단이 경험한 평균 일자리 수는 각각 2.3개와 1.7개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회고의 오류가 주로 과거 코호트에서 나타난다면, 이탈은 최근 코호트에서 발생한다. 이탈은 29세 이전에 조사에서 누락하여(우측절단) 132개월의 교육-노동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중 132개월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536명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근 코호트(전체 우측절단 사례의 36.7%)였으며, 대부분(64.7%)이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였다. 우측절단이 발생한 사례를 모두 제거할 경우, 최근 코호트에서 성과가 낮은 집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간 이행 과정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측절단된 기간이 36개월 이하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³⁵⁾

셋째,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이다. 직업력과 교육력은 경험한 모든 일자리와 교육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다닌 학교의 시작점과 종료점의 연월 정보,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월임금/월소득 정보가 결측되지 않은 사례를 분석하였다. 단, 동일한 일자리에 부분적으로 결측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일자리의 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9-29세에 일 한 기록이 전혀 없거나 장기간 동안 교육과 노동 기록이 없는 미상 집단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비자발적, 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구직실패 집단과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미취업 상태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 미상 집단을 분석에서 제외한다.³⁶⁾ 이질적 특성을 갖는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할 경우 분석 결과가

35)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남성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졸업기간은 6년 2.4개월이고,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6개월이다.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최소 8년간의 이행 상태가 관측되는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36)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노동정보가 없는 집단을 분석에 포함하기도, 제외하기도 한다. 미취업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들은 최근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상태 분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이들은 미취업 기간을 다양한 상태로 구분하여 장기간 미취업 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한다(박미희·홍백의, 2014; Brzinsky-Fay & Solga, 2016). 하지만 청년층의 이행 과정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수행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한번이라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1962년-1985년생은 10,613명이었다. 이 가운데 관측기간 중 미취업 상태를 지속한 장기 이탈·미상 사례는 2,922명이었으며, 19-29세 시점에 일을 한 기록이 없는 경우는 1,467명이었다. 대학에 다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학교를 다닌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550명이었으며, 일자리의 시작 혹은 종료 시점 정보가 없거나 일자리의 시작 시점이 종료 시점보다 빠른 조사 오류, 종사상 지위 정보가 없는 경우는 2,002명이었다. 이탈(우측절단)로 인해 관측된 기간 중 36개월 이상 노동, 교육 정보가 누락된 경우는 948명이었고, 19-29세 시기 일자리가 아니거나 임금이나 소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4,044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과 가족배경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225명이었다.

다음 <표 7>은 자료의 구성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각 사례를 순차적으로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대상은 5,653명이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일자리 정보는 총 35,382개였다. 분석대상 중 개인특성과 가족배경 정보가 모두 포함된 사례는 5,246명이었다. 5,653명 중 60코호트는 1,138명, 70코호트는 1,292명, 75코호트는 2,158명, 80코호트는 1,065명이었다. 노동 안정성 궤적은 일자리의 임금/소득 정보가 확인된 4,3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개인특성과 가족배경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경우는 4,019명이었다. 4,322명 중 60코호트는 777명, 70코호트는 958명, 75코호트는 1,720명, 80코호트는 867명이었다.³⁸⁾

노동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회고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미취업 상태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이들을 분석모형에서 제외한다(문혜진, 2013; Manzoni, Härkönen, & Mayer, 2014; Schoon & Lyons-Amos, 2016). 본 연구는 미취업 기간의 다양한 활동(육아, 가사,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가 회고자료로 구성된 60코호트였다는 점(전체 미상 집단의 42.5%)에서 노동정보가 없는 미취업 집단을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장기 미상 집단으로 표기하였다.

37) 교육력과 개인특성 정보가 확인되는 2,147명의 장기 미상 집단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궤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일한 궤적(매우 낮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을 갖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실제로는 이질적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게 되면 교육수준과 이행 성과의 관계, 가족배경과 노동성과의 관계 등 이론적인 가설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부록 1>의 <표 A2>를 보면,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은 장기 미상 집단을 제외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본인 교육수준의 계수 방향과 크기는 변동이 컸다. 장기 미상 집단의 기본 특성과 장기 미상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실질적인 노동시장 장기 이탈 집단에 대한 식별과 분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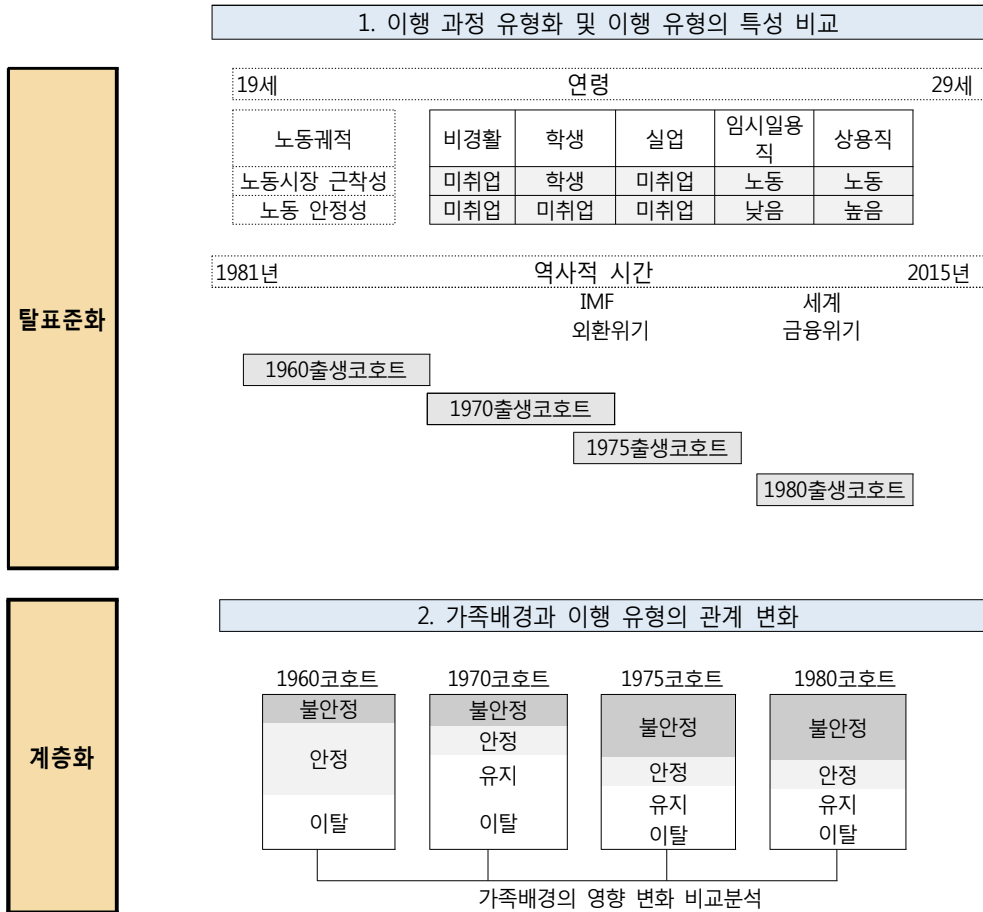
<표 7> 자료의 구성

	총 사례 수 (전체 %)	노동시장 근착성		노동 안정성	
		제외 사례	잔여 사례	제외 사례	잔여 사례
전체 사례(1962-1985년생)	10,613				
19-29세 직업력 없음	1,467(13.82)	1,467	9,146	1,467	9,146
19-29세 교육력 결측	550(5.17)	156	8,990	156	8,990
19-29세 미상	2,922(27.53)	1,455	7,535	1,455	7,535
직업력, 종사상 지위 결측	2,002(18.86)	1,046	6,489	1,046	6,489
3년 이상 우측절단(이탈)	948(8.93)	836	5,653	836	5,653
직업력 임금 결측	4,044(38.10)			1,331	4,332
가족배경 등 특성 결측	2,225(21.00)	407	5,246	313	4,019
궤적분석 사례 수			5,653		4,332
변화 요인 분석 사례 수			5,246		4,019

38) 구체적인 직업력 자료의 구조와 조정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 3 절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분석모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이행 과정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을 통해 최근 코호트에서 이행 과정의 탈표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가족배경과 이행 유형의 관계 변화를 분석해 계층화를 확인한다.

첫째, 이행 과정을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를 반영한 노동궤적(work trajectory)으로 유형화하여 탈표준화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확인한다.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노동궤적을 도출하고 그 분포를 확인하여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탈표준화의 양상은 각 코호트별 궤적의 다양성과 분절 수준을 통해 확인한다.

코호트의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각 코호트별로 궤적을 도출하여 코호트간에 서로 다른 이행 유형이 발견되는지 확인하거나, 전체 코호트(통합코호트, 풀링)의 궤적을 도출하여 코호트간 이행 유형의 분포와 특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특정 이행 유형이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유용하지만 각 코호트에서 발견된 이행 유형이 실제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코호트 비교를 통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통합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행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Brzinsky-Fay & Solga, 2016; Schoon et al., 2009).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을 중심으로 코호트간 이행 과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별 코호트를 대상으로 궤적을 도출하여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된 궤적과 큰 차이가 없는지 검토하고,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된 궤적의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유형의 생성과 전통적 유형의 소멸은 통합코호트의 궤적 분석 결과 도출되는 소수 유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choon et al., 2009).

둘째,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관계가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한 노동궤적을 종속변수로 코호트별 순서로짓분석을 실시한다. 즉, 노동시장 근착성 혹은 노동 안정성이 높은 궤적을 가질 평균 기대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코호트별로 가족배경의 계수에 변화가 관측되면,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각 코호트별로 확인되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격차를 구성변화에 의한 효과와 계수 영향력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한다.

제 4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탈표준화

1. 이행 과정 유형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다. 상태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석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상태변화 분석방법 : 배열분석, 잠재계층분석, 집단기반궤적분석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이행(transition)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이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포착한다. 이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집단기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등이다.

첫째, 배열분석은 DNA배열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던 분석방법으로, 1980년대 Andrew Abbott에 의해 사회과학 연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Abbott, 200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생애 이행 과정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Brzinsky-Fay, 2007, 2013; Giudici & Pallas, 2014; McVicar & Anyadike-Danes 2002; Scherer 2001; Schoon et al., 2001). 종단데이터를 이용하는 배열분석은 이행 과정의 복잡성을 다루는 기술적 설명방식의 하나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anahan, 2000: 683). 특히 배열분석은 비모수적 분석이어서 모집단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분석하므로 자료의 규모와 상태의 변화 수 등에 제약이 없으므로 분석단위를 일간 혹은 주간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Barban & Billari, 2012). 하지만 배열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이행을 유형화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nalysis)은 전환비용 산출이 자의적이라는 제약이 있다(Levine 2000; Wu, 2000). 즉, 배열분석은 이행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기술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하는데 유용하지만, 이행 과정을 유형화했을 때 각 유형의 차이

가 유의미한 것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유형간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많은 연구들이 배열을 유형화한 뒤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모형을 추가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미 종속변수로 설정된 각 유형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변수의 영향을 검증하므로 한계가 있다.³⁹⁾

둘째, 잠재계층분석은 범주형 결과변수를 계층화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이다. 잠재계층분석에서 개인은 미관측 된, 즉 잠재적인 변수에 의해 구성되는 계층에 속한다고 가정한다. 관측된 정보를 이용해 우도함수로 계층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여 잠재계층을 식별한다. 도출된 계층은 특정한 행위를 대표하거나 혹은 동질적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계층은 심층적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성인기로 이행 과정이나 가족의 형성, 출산사건 등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Barban & Linder, 2013). 그러나 명목변수에 적용할 수 있고, 각 개인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독립이라는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이행 사건이 연속적이고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생애과정 접근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집단기반궤적분석은 잠재계층분석을 종단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성장 혼합모형의 한 종류이다(권재기, 2012). 이는 준모수적(semi-parametric) 방식으로 대규모 표본에서 유사한 변화의 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을 나타내는 하위집단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하위집단의 수와 규모는 비모수적으로 추정하고, 각 집단의 궤적은 다항식의 계수를 이용해 추정한다(Virtanen et al., 2011: 57). 변수 중심에서 개인 사례 중심으로 분석단위를 전환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하위집단의 이질성으로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으며 최근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Petras & Masyn, 2010). 주로 의학,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노동궤적, 가족형성 궤적 등에 이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혜연, 2010a, 2010b; 박미희·홍백의, 2014; Besen & Pransky, 2014; Dariotis et al., 2011; García-Manglano, 2015; Hayford, 2009; Hynes & Clarkberg, 2005; Sun & Chen, 2017). 집단기반궤적분석을 발전시킨 Nagin(2005)은 집단기반궤적분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39) 배열분석을 이용해 이행 과정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은 이행 유형이 집단1에서는 A, B, C 로, 집단2에서는 D, E, F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도출된 6개 유형이 실제 차이가 있는 유형인지, 그리고 각기 다른 유형이 도출된 원인이 두 집단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째, 범주형 변수에 제한된 잠재계층분석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종속변수를 적용해 궤적의 변화를 유형화할 수 있다. 둘째, 독립 가정이 잠재집단의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점에서 잠재계층분석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다. 집단기반궤적분석은 개인수준의 시간에 따른 행위가 집단의 경향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셋째, 모집단 내에 이질적 변화의 궤적을 보이는 하위 집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에 적합하며, 그러한 차이에 대해 예측변수와 결과변수를 바탕으로 이론을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기반궤적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거나 복수의 상태변화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선택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유형이다. 어떤 분석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형의 수와 특성, 그리고 각 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변수와 모집단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1) 유형 추정 of 정확성과 분류오류

상태변화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은 고정된 값을 갖는 관심변수로 간주되므로 유형이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유형의 수가 실제 모집단에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유형 추정의 정확도, accuracy and validity of inference), 각 개인들이 얼마나 적합하고 일관되게 특정 하위집단에 할당되는가(분류오류의 최소화, classification error)를 검토해야 한다(Warren et al., 2015).⁴⁰⁾

40)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학자들은 연구결과의 차이가 실제 차이인지, 분석 방법 차이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상태 변화 유형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련하여 분석방법의 강건성(robustness)을 비교한 연구들은 배열분석과 집단기반궤적분석 등이 생애과정 궤적을 유형화하는데 일관적인(consistency)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고하였다(Barban & Billari; 2012; Robette & Bry, 2012). 그러나 궤적 추정의 정확성과 분류오류에 초점을 맞춰 분석방법의 성과를 비교한 Warren과 동료들은 분석 결과의 유사성은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성, 즉 전형적이거나 이상적인

Warren과 동료들(2015)은 분석방법 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준다. 그들은 유형의 수, 각 유형의 확률분포 특성, 유형내 분산(확실성의 정도) 등 다양한 조건을 부여한 28개의 노동상태 자료를 이용하여 배열분석, 집단기반궤적분석, 잠재계층분석 등 상태 변화를 유형화하는 6개 분석방법에 대한 성과(model performance)를 모의 분석하였다.⁴¹⁾ 성과 판단기준은 실제 집단 수와 추정된 집단 수의 차이, Rand index 값(RI; Rand, 1971)이다. RI는 특정 사례를 반복적으로 도출된 유형에 할당하였을 때 매번 동일한 궤적에 할당되는지 반영하는 지표로 1인 경우 완전히 정확하게 할당된 것이고, 1에서 멀어질수록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가 큰 것이다. 모든 분석방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단에 포함된 유형 수가 적으면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그 수가 많으면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유형 내 분산(variability)이 적은 경우, 즉, 특정 유형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관측 시점 수가 많을수록 모델 성과가 높다(Warren et al., 2015).

한편, 모델 성과의 차이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⁴²⁾ 궤적 추정 정확도와 분류오류 최소화라는 두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은 집단기반궤적분석이었다. 첫째, 집단기반궤적분석의 경우, 가상자료의 실제 유형 수와 추정된 유형 수 차이는 -3에서 3 사이여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기반궤적분석은 관측 시점과 실제 유형 수가 많은 경우, 다른 분석방법보다 실제 유형 수를 더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실제 유형 수가 6개인 가상 모집단의 48개월 자료를 여러 조건을 부여하여 4번에 걸쳐 반복 분석하였을 때, 집단기반궤적분석은 4번 모두 유형 수를 5개로 추정한 반면, 배열분석은 2~5개로, 잠재계층분석은 5~8개로 추정하였다. 둘째, 집단기

하나에서 두 개의 궤적을 추정하거나, 유형 수를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만 포착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분석방법들이 비전형적인 유형을 발견하거나, 모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추정할 때는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므로 분석방법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Warren et al., 2015: 1843).

41) 6개 모델에는 Naive 분석, Growth mixture model, Grade of membership 접근이 포함되지만, 이 세 가지 분석방법은 노동상태 변화 연구에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모델 성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Warren 외(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42) Warren과 동료들은 어떤 분석방법도 모집단에 포함된 진실된 궤적유형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 방법이 우월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조건을 부여했을 때 추정 결과의 모델성과가 달라지는 변동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궤적을 분석할 때 궤적 추정의 정확도, 분류오류 등을 고려해 분석방법을 선택하되, 궤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분석 결과를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Warren et al., 2015: 1842-1845).

반궤적분석은 분류오류가 가장 적었다. 예를 들어, 4개 유형을 가진 모집단의 48개월 노동상태를 분석하여 유형 수를 4개로 정확하게 추정했다고 가정했을 집단궤적분석의 RI는 0.94였으나, 배열분석은 0.58이었다. 잠재계층분석은 궤적 수를 정확히 추정한 경우가 없어서 분류오류를 비교할 수 없었다(Warren et al., 2015).

(2) 분석 효율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와 노동 안정성 변화 궤적으로 유형화하고, 코호트간 유형 변화와 동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출된 유형을 관심변수로 활용하므로 결과 해석에 무리가 없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집단기반궤적분석은 이행 과정을 총체적 시각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배열분석과 유사하다. 하지만 배열분석과 달리 도출된 유형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유형 형태와 수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Hynes & Clarkberg, 2005:226; 박미희·홍백의, 2014, 2014:10 재인용). 또한 집단기반궤적분석은 상태 변화 방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변화의 질적 차이를 요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상태 변화를 분석하려는 이유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질적 격차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유형 추정의 정확성이 높고 분류오류가 적으며, 연구문제 적용과 결과해석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집단기반궤적분석방법을 이용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유형화했다.

3) 집단기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절차

집단기반궤적분석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어진 자료에 가장 적합한 궤적(trajectory)의 수를 산출하고, 각 궤적에 대해 궤적함수를 추정한다. 이어서 개별 사례들이 궤적에 포함될 확률을 추정해 가장 높은 확률(maximum probability rule)을 보이는 집단에 해당 사례를 포함시킨다(Ratelle et al., 2004).

(1) 궤적의 추정

첫째, 집단기반궤적분석은 모집단이 시간에 따라 다른 상태 변화를 보이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개인이 각 시점에 특정 궤적 집단에 포함될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다(김혜연, 2010a, 2010b). 궤적함수를 추정하고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특성에 따라 궤적함수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횡수이면 프아종 분포(Poisson distribution),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변수인 경우에는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이분변수이면 이분형로짓 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를 이용해 궤적함수를 추정한다(Nagin, 1999: 144-145). 빈곤율이나 소득과 같은 연속변수도 통계프로그램 분석시 절단값(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없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라는 서열적 변수의 변화를 분석하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자료에 적합한 절단정규분포를 적용한다.⁴³⁾

집단기반궤적분석의 기본적 개념은 연령 혹은 시간을 조건으로 한 결과변수의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P(Y_i | Age_i)$ 라는 결과변수의 궤적 분포로 표현할 수 있으며, Y_i 는 개인 i 의 종단적 상태 배열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이다.

Age_i 는 각 관측치가 측정된 시점의 개인 i 의 연령으로, 본 연구에서 연령은 19세부터 29세까지 총 11년의 값을 월별로 전환하여 최장 132개월 혹은 그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집단기반궤적분석은 모집단의 궤적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은 J 의 finite mixture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J 라는 집단의 수를 조건으로 한 각 개인 i 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집단은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혹은 노동 안정성 궤적을 의미한다. 여기서 π^j 는 집단 j 에 속할 확률이며, 집단 j 에 속할 경우 Y_i 의 조건적 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은 파라미터 항인 β^j 에 의해 조정된다(Jones & Nagin, 2013: 609).

43) 집단기반궤적분석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도 노동상태 변화를 분석할 때 절단정규분포를 적용해 궤적함수를 추정한다(김혜연, 2010a, 2010b; 박미희·홍백의, 2014). 이들 연구는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노동시장에의 통합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 극단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절단정규분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P(Y_i|Age_i) = \sum_{j=1}^J \pi^j \times P(Y_i|Age_i, j; \beta^j) \quad (1)$$

j 가 주어졌을 때, Y_i, y_{ij} 요소의 배열적 실현을 위해 T 기간에 걸쳐서 조건적 독립성이 가정되며, 이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cdot)$ 는 시간 y 의 개인 i 의 연령과 집단 j 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y 의 분포이다. 최적 궤적은 우도함수 극대화를 통해 도출되는데, 집단내 분산을 최소화하고 집단간 분산을 극대화하는 하위집단 j 에 개인을 할당하는 β 와 π 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García-Manglano, 2015: 1970).

$$P(Y_i|Age_i, j; \beta^j) = \prod_{t=i}^T P(Y_{t,i}|Age_{t,i}, j; \beta^j) \quad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고려할 때 상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beta_1^j, \beta_2^j, \beta_3^j$ 으로 정의되는 시간(T)에 대한 다항식으로 궤적을 추정하고, 각 집단 j 의 궤적 형태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시점 Age 의 이행사건 수준과 시간변화에 따른 이행사건 변화 과정을 포함하여 각 집단 간 이질적인 변화 궤적을 구분할 수 있다(Nagin, 2009: 38).

$$y^* = \beta_0^j + \beta_1^j Age + \beta_2^j Age^2 + \beta_3^j Age^3 + \epsilon \quad (3)$$

한편, 시간에 따라 상이한 변화 궤적을 갖는 집단이 몇 개인지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해 집단이 한 개인 경우부터 집단의 수를 증가시켰을 때 계산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초로 판단한다. 이 때 BI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때 k 는 모델의 파라미터의 수이고, N 은 표본의 수이다. L 은 모델의 최대우도값을 의미한다.

$$BIC = \log(L) = 0.5k \log(N) \quad (4)$$

최적의 잠재집단, 즉 궤적 수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권재기, 2012; Luyckx et al., 2008; Nagin, 2005). 첫째,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와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Nagin(2005)은 Jeffreys's scale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의 수가 1개 더 증가할 때 변화하는 BIC값이 크기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둘째, j 개의 그룹과 $j-1$ 개의 그룹으로 잠재계층을 나눴을 때 적절한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도출된 잠재집단이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다(Nagin, 2005). 넷째, 유형에 속하는 사례 비율이 최소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Jung과 Wickrama(2008)는 집단에 속한 사례수가 5% 이상인 경우를 집단의 수 선택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권재기·김진호, 2011: 59).

본 연구에서는 Nagin(2005)이 소개하고 있는 Jeffreys's scale을 활용해 적합한 집단의 수를 판단하되, 할당 정확도 오즈(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⁴⁴⁾, 잠재집단 분포와 양상, 이론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집단 수를 도출했다.

(2) 궤적에의 할당

둘째, 각 개인이 특정 궤적에 포함될 확률을 추정한다. 최적 궤적 수가 도출되면 해당 궤적에 개별 사례가 포함될 사후확률(Posterior group membership probabilities)을 산출하고, 사후확률이 가장 높은 궤적에 사례를 할당한다. 사후확률은 t 기간에 측정된 상태가 주어졌을 때 개인 i 가 궤적 j 에 속할 확률을 의

44) 할당의 정확도(OCC, 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를 도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AvePP_j$ 는 궤적의 수를 j 개로 설정했을 때의 사후할당확률의 평균값이며, $\hat{\pi}_j$ 는 궤적함수에 의해 추정된 할당 확률이다. 할당의 정확도 odds 값이 5보다 크면 궤적의 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Nagin, 1999).

$$occ_j = \frac{\frac{AvePP_j}{1 - AvePP_j}}{\frac{\hat{\pi}_j}{1 - \hat{\pi}_j}}$$

미한다. 따라서 사후확률은 개인의 상태변화에 가장 적합한 궤적에 배치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Nagin, 2005: 78-79). 사후확률을 이용하여 상태 변화 궤적이 이질적으로 구분되는 잠재집단들의 평균 특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Nagin, 1999), 모델 적합도의 질을 분석할 수 있다(Nagin, 2005: 78).

각 궤적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π_j 는 j 라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다. 즉자적으로 적용하면 특정 궤적에 포함될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부터 j 의 값을 지닌 θ_j 의 함수식을 만들면, π_j 이 0과 1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과 무관하게 θ_j 은 어떤 값도 취할 수 있다. 모든 j 집단의 π_j 의 합은 1이다.

$$\pi_j = \frac{e^{\theta_j}}{\sum_{j=1}^j e^{\theta_j}} \quad (5)$$

(3) 궤적 특성 분석

마지막으로 도출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특성을 분석한다. 도출된 궤적을 도식화 하고, 각 궤적의 분포를 분석해 도출된 유형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집단기반궤적분석은 개인들의 시점, 궤적별 할당 사후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각 궤적에 포함된 개인의 시점별 상태값 평균을 그래프로 그리면 궤적간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도출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은 각각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수준과 변화의 방향에 따라 구별되므로 이행 유형간 질적 차이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은 특정 연령시점에 노동시장 근착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착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의 방향에 따라 등급화 된다. 예를 들어, 각 궤적을 그래프를 이용해 시각화하면 노동시장 근착성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 노동시장 근착성이 낮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집단,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집단을 구별할 수 있다.

2. 이행 유형의 특성 비교 분석

집단기반궤적분석에서 도출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궤적이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한다. 먼저 전체 코호트와 개별 코호트를 대상으로 궤적을 도출하고 코호트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어서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된 궤적분포와 특성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탈표준화는 이행 유형에서 관측되는 이행 유형의 분포 변화, 상태 종류 다양성, 상태 변화, 상태 구성의 분절 수준, 안정성 수준으로 확인한다.

첫째, 코호트에서 확인되는 노동시장 근착성의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분포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최근 코호트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더 불안정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최근 코호트에서 불안정한 이행 특성을 갖는 사례가 더 많아졌는지 확인한다. 불안정한 이행은 시각적 방법과 분절 수준을 이용해 식별한다.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변화 양상이 노동시장 근착성 혹은 노동 안정성 수준이 낮은 경우,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화한 경우, 그리고 분절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이행 유형을 불안정한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불안정 이행 유형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분포하는지 비교하여, 최근 코호트에서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증가하였는지 확인한다.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다양성은 각 개인이 이행 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노동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개인 단위에서 관측되는 상태 조합의 다양성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상태 변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성은 엔트로피 지수, 상태 변화의 횟수, 경험한 일자리의 수로 측정한다. 상태조합 다양성은 기존 연구를 따라 Shannon(1948)의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한다(남춘호, 2015; Billari, 2001; Fussel, 2005; Widmer & Ritschard, 2009). 엔트로피 지수는 개인단위 상태의 조합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시점에서 동일한 상태로 측정되는 개인의 엔트로피 값은 '0'이며, 모든 시점에서 다른 상태를 경험하는 개인은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갖게 된

다. 엔트로피 지수는 관측 기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모든 상태를 경험할 때 극대화된다. 그러나 순서를 반영한 다양성 지표는 아니다. 즉, A의 노동궤적이 ‘학생-학생-재학노동-학생’이고, B의 노동궤적이 ‘학생-학생-학생-재학노동’일 때 두 노동궤적의 엔트로피 값은 동일하게 도출된다.(Widmer & Ritschard, 2009: 33-34).⁴⁵⁾ 다음은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하는 도식이다.

$$h(p_1 \dots p_0) = \sum_{j=1}^0 -p_j \log_2 p_j \quad (6)$$

마지막으로, 분절 수준은 코호트별로 특정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얼마나 비연속적이고 불안정한지 확인하여 측정한다. 노동시장 근착성에서 분절 수준은 ‘비연속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는 노동상태의 배열에 끊김(미취업 상태)이 있고, 그러한 비연속성이 자주 그리고 길게 관측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rzinsky-Fay와 Solga(2016)의 방법을 적용해 코호트간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분절 수준 변화를 확인한다. 전체 기간 중 미취업이 차지하는 비중, 임시일용직 비중 등을 확인한다. 노동 안정성 수준은 일자리의 경제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중위임금 미만 근로 비중, 저임금 근로 비중 등을 통해 확인한다.

45) 유사한 지표로 지니 불순도 지수(Gini impurity index),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 동요성 지수(turbulence index), 복잡성 지수(complexity index) 등이 있다. 지니 불순도지수와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Shannon의 엔트로피 지수와 큰 차이가 없고, 동요성 지수와 복잡성 지수는 상태와 기간의 다양성이 모두 반영된 복합지수이므로 상태 다양성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Widmer & Ritschard, 2009: 33). 이에 본 연구는 다양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엔트로피를 활용하였다

제 5 절 계층화: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계 변화

최근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경험한다면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거시적 변화에 따라 이행 과정이 실제 변화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첫째, 코호트별로 가족배경과 이행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1. 가족배경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관계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기반계층분석에서 도출한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서로짓분석(Ordered logistic model)을 실시한다.⁴⁶⁾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노동궤적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 높고 낮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열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식 7과 식 8은 기본 순서로짓모형의 수식이다. 각 개인은 Y_i 라는 노동시장 근착성 혹은 노동 안정성 궤적을 갖는다. 여기서 각 궤적은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값인 Y_i^c 에 의해 결정되며, 범주는 1부터 K 혹은 N개로 구성된다. c 는 각 범주를 결정하는 경계값(cut point)이다. K는 집단기반계층분석에서 도출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을 구분하는 범주값으로 1부터 K, 1부터 N의 값을 갖는다. 순서로짓모형에서 범주가 c 가 K개만큼 주어졌을 때 결과 범주(c)에 속할 확률은 다음 식 7과 같다. X 는 독립변수의 벡터이고, β 는 로짓계수로 OLS모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는 가족배경(아버지 교육수준, 직업지위)이며,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14세시점 거주지역, 혼인상태, 최종 학교 졸업시점 청년 실업률이다.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이 K개로 식별되었을 때,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범주 값을 갖고, 노동시장 근착성이 감소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은 낮은 값을 갖게 된다. 여기서 $F_{logistic}$ 는 표준

46) 본 연구는 가족배경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은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과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기서 '영향'은 인과적 영향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가까운 관련성의 크기를 의미한다.

로지스틱 누적 분포(cdf)를 따른다. 비례적 오즈 가정에 따라 각 범주에서 구성되는 로짓 함수의 β_s 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즉, 어떤 범주와 비교해도 모든 독립변수가 로그 오즈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Fullerton, 2009; Long, 1997).⁴⁷⁾⁴⁸⁾

$$Y_i = \begin{cases} 1 & \text{if } Y_j^\alpha \leq c_1 \\ 2 & \text{if } c_1 < Y_i^\alpha \leq c_2 \\ \vdots & \\ K & \text{if } Y_i^\alpha > c_k \end{cases} \quad (7)$$

$$Y_i^\alpha = \alpha + \beta_1 X_i + u_i \quad (u_i \text{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름})$$

47) 서열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순서로짓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순서로짓 모형이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순서로짓모형은 비례적 오즈 모형(Proportional odds model) 혹은 누적오즈모형(Cumulative odds model)이라고도 하는데, 각 종속변수 범주값에 대해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동일하다는 비례적 오즈 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 or 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McCullagh, 1980)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비례적 오즈 가정을 완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적용해왔다. 순서로짓모형의 다양성과 개념적 차이, 분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Fullerton(2009)는 비례적 오즈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모델에서 비례가정을 전제로 한 순서로짓분석을 적용하면 선형모형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과에 편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비례적 오즈 가정을 완화하면 결과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모형구성이 매우 복잡해지고, 명료한(straightforward) 해석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론적 근거를 따라 모형을 구성하되, 검약성(parsimony)과 정확성(accuracy)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Fullerton, 2009: 310-311).

48)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변화 궤적이다. 개인 특성이 노동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기울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알려진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여성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과, 비정규직에 비해 미취업이 될 가능성의 크기가 (남성에 비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성별(남성=1, 여성=0)의 '1.매우 불안정 이행' 대비 '2. 불안정 이행'을 가질 가능성의 계수가 3.00이고, '2.불안정 이행' 대비 '3.안정 이행'을 보일 가능성의 계수가 1.5라고 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정적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계수의 격차 1.5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배경에 따라 이행 과정의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수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코호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각 개인이 범주간 선택에서 경험하는 세부적 기울기의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기울기를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례적 오즈 가정을 전제로 한 순서로짓모형을 이용해 해석의 편의를 확보하였다.

$$\begin{aligned}
pr[Y_i = 1|X_i] &= F_{\logistic}[c_1 - \beta_1 X_i] \\
pr[Y_i = 2|X_i] &= F_{\logistic}[c_2 - \beta_1 X_i] - F_{\logistic}[c_1 - \beta_1 X_i] \\
&\vdots \\
pr[Y_i = K|X_i] &= 1 - F_{\logistic}[c_{k-1} - \beta_1 X_i]
\end{aligned} \tag{8}$$

본 연구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화선형회귀모형(OLS)을 병행해 분석했다. 서열변수를 명목 범주변수 혹은 선형적 특성을 가진 비율변수로 취급하는 것은 추정의 정확성(accuracy)을 떨어뜨릴 수 있으나(Long, 1997), 순서로짓모형은 결과 해석이 복잡하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인 경우 OLS를 적용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며, OLS를 사용하면 선형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층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⁹⁾ 건강불평등, 교육성취, 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2차 분석(종단적 분석, 요인분해 적용)을 위해 일반화선형회귀모형을 병행해 분석하고 있다(Allen, & Carter, 2007; Ben-Ner, Kong, & Putterman, 2004; Doorslaer & Jones, 2003; Kleiner, & Krueger, 2010).

2. 요인분해

이행 과정 변화는 청년층의 인구규모,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 변화(특성효과)와 각 특성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계수효과)의 결과다. 예를 들어, 이행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교육기간이 장기화되어 청년층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특

49) 로짓이나 프로빗 대신 LPM(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로짓모형도 OLS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방법론상의 오류보다 OLS를 이용할 때 해석편의가 주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OLS를 선호한다(Angrist & Pischke, 2008).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의 범주의 수가 4-5개 이상이고, 분포가 준정규분포(quasi-normal)인 경우 OLS와 순서로짓모형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변수인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귀적은 6개 범주로 도출되었으나, 완전한 정규분포가 아니므로 순서로짓모형과 일반화회귀모형의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순서로짓모형은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의 컷포인트를 추정하는데 반해, OLS는 카테고리간 거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특정 계수의 값(예를 들어, 임금값의 변화율)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코호트간 변화의 경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컷포인트간 거리의 차이와 컷포인트 값이 아니라 귀적과 변수간 관계를 보여주는 계수의 방향과 크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카테고리간 거리를 동일하게 가정하여도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성효과)과 교육수준이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진 것(계수효과)이 결합된 결과일 수 있다.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계 변화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불리한 가족배경을 가진 청년층이 감소한 것으로 인한 효과(특성효과)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층이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안정성의 크기 변화로 인한 효과(계수효과)로 구성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계층화-가족배경 영향력 유지 혹은 강화-를 확인하려면 불리한 가족배경을 가진 청년층이 유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에 보다 불안정한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는지, 즉 계수효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호트간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수준 격차를 요인분해한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가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낮은 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면, 그러한 차이가 각 코호트의 구성 변화에 의한 특성 효과(characteristic effect, explained component)에 의한 것인지, 계수의 영향력 변화(differences in coefficients, coefficient effect)에 의한 것인지 분해한다. 코호트간 비교에서 산출되는 이행 과정의 안정성 격차, 즉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수준의 차이가 가족배경의 계수효과에 의해 설명된다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가족배경에 의해 계층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요인분해의 적용

본 연구는 임금격차를 분해할 때 활용하는 계량경제연구방법인 요인분해(decomposition method)를 적용해 이행 과정의 변화 요인을 분해한다. 요인분해는 두 집단 간 관심변수의 격차(gap)를 구성효과와 계수효과로 분해하며, 개별 변수의 영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Blinder, 1973; Oaxaca, 1973).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범주형 서열변수이므로 선형 요인분해를 확장한 비선형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세부분해를 적용하기 위해 선형 요인분해를 적용하였다(Bauer & Singing, 2008).⁵⁰⁾

50) 비선형 요인분해 방법은 다양한 변수에 적용된다. 하지만 다범주 비선형 모형의 요인분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이분형 변수에 적용하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과 로짓(Logit model)모형, 횡수 자료에 대한 프아종 모형(Poisson model), 위험모형(Hazard rate model) 등은 세부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순서로짓모형이나 다항로짓모형처럼 다범주 변수인 경우에는 세부분해가 어렵다. 또한, 비선형 요인분해를 적용 할 경

선형모형에 적용하는 요인분해 방법인 Blinder(1973)-Oaxaca(1973)의 요인 분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립변수 X 에 의해 설명되는 결과변 수 Y 가 있다고 했을 때(식 9), A집단과 B집단의 \bar{Y} 의 격차는 다음 식 10으로 표현된다.

$$Y_{ig} = X_{ig}\beta_g + \epsilon_{ig} \quad (9)$$

$$i = 1, \dots, N_g \quad \sum_g N_g = N$$

$$\bar{Y}_A - \bar{Y}_B = \Delta^{OLS} = (\bar{X}_A - \bar{X}_B)\hat{\beta}_A + \bar{X}_B(\hat{\beta}_A - \hat{\beta}_B) \quad (10)$$

$$\bar{Y}_g = N_g^{-1} \sum_1^{N_g} Y_{ig}, \quad \bar{X}_g = N_g^{-1} \sum_1^{N_g} X_{ig}$$

여기서 \bar{X} 는 통제변수의 평균이며, $\hat{\beta}$ 는 추정된 계수이다. 수식 9의 첫 번째 항은 관측된 특성 차이로 인한 결과변수의 격차(gap)이며, 두 번째 항은 계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변수의 격차이다(Kalb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가족배경 의 영향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부 요인분해(detailed decomposition)를 통해 각 변수가 결과변수의 차이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3. 변수설명

다음 <표 8>은 계층화 분석의 순서로짓모형과 요인분해에 반영할 주요 변 수를 정리한 것이다.

우,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해결하기 어렵다. 경로의존성은 개별 변수가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할 때, 변수를 투입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Powers, Yoshioka, & Yun, 2011). 특성효과 E 와 계수효과 C 에 대해 각 변수의 기여를 E_k 와 C_k ($k=1, \dots, K$)라고 할 때, E_k (C_k)는 순차적 차(sequential substituting)으로 계산하게 된다. 선형모형과 달리 비선형모형에서는 순서에 민감하다(Yun, 2004). 일부 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Even & Macpherson, 1993; Nielsen, 1998; Yun, 2004에서 재인용), 횡수 변수 혹은 이분형 범 주변수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순서로짓모형에 대해 요인분해를 수행한 연구들은 총 분해 결과만 제시하거나(Kalb et al., 2014), 총 분해는 순서로짓모형을 활용하고 세부 분해는 선형 요인분해를 적용한다(Madden, 2010).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와 일관성 을 위해 총 분해와 세부분해 모두 선형요인분해를 적용하였다.

〈표 8〉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설명	속성 및 단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19-29세 시점 교육-노동 궤적 (집단기반궤적분석을 이용해 도출된 K개의 유형) 노동시장 근착성 측정: 0. 미취업, 1. 학생 2. 재학 노동 3. 노동	K	
이행 유형	노동 안정성 궤적 (집단기반궤적분석을 이용해 도출된 N개의 유형) 노동 안정성 측정: 0. 미취업, 1. 매우 낮음(저임금: 중위임금 3/2 미만), 2. 낮음(저임금 이상 중위임금 미만), 3. 다소 높음(임시일용직, 중위임금 이상), 4. 높음(상용직, 중위임금 이상)	N	
가족 배경	아버지 교육수준	1. 중학교 졸업 이하=0, 2.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전문대학 진학 이상=2 (아버지 정보가 없는 경우, 어머니 정보로 대체함)	0~2 (0=중졸 이하)
	아버지 직업지위	1. 전문, 관리직: 관리자 및 전문직, 중간관리자 전문가와 높은 수준의 기술자, 2. 사무직(사무직과 서비스 직 고용자) 3. 일반기술직 및 단순노무직 (아버지 정보가 없는 경우, 어머니 정보로 대체함)	0~2 (0: 일반기술, 단순노무직)
개인 특성	교육수준	29세 시점 교육 수준 1. 고졸 이하, 2. 전문대 졸업, 3. 4년제대학 졸업 이상	0~2 (0=고졸 이하)
	성별	성 (남, 여)	남=1
	거주지역	14세 주거지(광역시, 경기도, 주요도시인 경우 대도시, 그 외는 중소도시)	대도시=1
	혼인상태	29세 시점 혼인여부 (미혼, 기혼)	기혼=1
노동 시장 조건	실업률	29세 시점 최종학교 졸업/중퇴 시점의 청년 실업률	%

첫째,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집단기반궤적분석에서 도출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이다. 각각 K개와 N개의 서열변수로 구성한다.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은 근착성이 낮은 수준이 유지되거나,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등 변화의 방향 그리고 분절 수준에 따라 서열적 특성을 갖는다. 노동 안정성도 이와 유사하다.

둘째, 가족배경은 14세시점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로 측정한다. 가족배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배경이론과 연구 목적에 맞게 변수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계층간 차이, 즉 가족배경이 유리한 집단과 불리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교육수준은 교육연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로 적용하였다. 교육수준 측정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전문대 진학이상으로 구분했다. 직업지위는 Esping-Anderson과 Wagner(2012)의 방식을 따라 5개의 범주형 변수로 측정했다. 이는 EGP(Erikson-Goldthorpe-Portocarrero module)에 Ganzeboom과 Treiman의 통합방식(Ganzeboom & Treiman, 1996)을 조정한 것으로, 관리자 및 전문직, 중간관리자 전문가와 높은 수준의 기술자, 사무직과 서비스직 고용자, 숙련육체노동자(일반기술직), 비숙련육체노동자(단순노무직) 총 5개의 서열적 범주로 직업계층을 구분한다.⁵¹⁾ 사례 수의 확보를 위해 이를 3개의 범주(전문/관리직, 사무직, 일반 단순노무직)로 통합하여 분석했다.

셋째, 계층화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과정 결정 요인과 요인분해 모형에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하였다. 개인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성별, 14세 시점 거주 지역, 혼인상태 여부 등이다. 교육수준은 29세까지 관측되는 졸업 혹은 중퇴 학력으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측정했다. 한편 코호트 집단내 거시적 경제 환경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시점 15-29세 청년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했다.⁵²⁾

51) Esping-Anderson과 Wagner(2012)는 다음과 같이 직업지위를 설정하고 있다. 직업지위가 가장 높은 관리자 및 전문직에는 상위 관리자, 행정관리자, 전문가가 포함된다. 중간관리자는 중간수준 전문직과 관리직, 숙련 기술자다. 화이트칼라에는 일반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 근로자가 포함된다. 숙련육체노동자에는 일반 기술직과 농업 숙련직이 포함되며, 다섯번째 비숙련노동자에는 단순노무직과 농업 비숙련직이 포함된다.

52) 청년 실업률 이외의 거시경제 환경 변수인 노동시장 진입 시점 GDP, 대학 진학 시점의 대학진학률, 청년인구비율,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서비스 일자리 비중을 추가한 모형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 교육 등 다른 변수의 크기가 소폭 증감하였으며 계수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일부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확인되었다(GDP, 대학진학률). 모형의 검약성을 위해 실업률만 투입한 모형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거시경제 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에 대해서는 <부록 6>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일반적 특성

다음 <표 9>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이다. 첫째,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를 반영하는 상태별 기간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취업 기간 평균은 60코호트 30.8개월에서 70코호트 31.0개월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가 75코호트에서 28.3개월로 다소 감소하여 80코호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과 재학노동 기간 평균은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증가했다. 학생 기간 평균은 60코호트 28.4개월에서 70코호트 30.5개월, 75코호트 33.2개월, 80코호트 33.9개월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재학노동 기간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반면, 노동 기간 평균은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코호트 노동 기간 평균은 67.3개월이었고 80코호트는 59.3개월로 나타나 약 8개월 감소했다.

둘째, 노동 안정성 변화에서 학생을 포함한 미취업 기간 평균은 60코호트 70.1개월, 70코호트 74.4개월, 75코호트 71.9개월, 80코호트 70.1개월이었다. 월평균 임금 및 소득은 중위임금 2/3미만인 저임금 기간 평균은 60코호트 25.8개월, 80코호트 35개월로 증가했다. 임금 및 소득이 중위임금 2/3이상 중위임금 미만인 기간은 60코호트 평균 10.3개월에서 80코호트 평균 13.5개월로 증가했다. 중위임금 이상, 임시일용직 혹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은 60코호트는 2.5개월, 70코호트는 1.1개월로 다소 감소하였고 75코호트와 80코호트는 0.9개월, 0.7개월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최근 코호트에서 임시일용직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중위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경우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중위임금 이상, 상용직 근로자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혹은 고용주에 종사한 상태는 60코호트 22.3개월에서 70코호트 18.9개월, 75코호트 14.6개월, 80코호트 11.4개월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코호트에서 노동 불안정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9〉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노동시장 근착성				노동 안정성			
	60 코호트	70 코호트	75 코호트	80 코호트	60 코호트	70 코호트	75 코호트	80 코호트
사례 수(n)	1,138	1,292	2,158	1,065	777	958	1,720	867
노동시장 근착성 상태 (평균, 월)								
미취업	30.82	30.95	28.33	28.48				
학생	28.43	30.49	33.18	32.85				
재학노동	5.47	5.94	7.80	8.10				
노동	67.28	62.96	60.22	59.27				
이탈(attrition)	0.00	0.97	1.20	2.26				
노동 안정성 상태(평균, 월)								
미취업					70.79	74.41	71.89	70.88
저임금					25.77	25.54	32.04	35.54
저임금 이상 중위임금 미만					10.26	12.10	12.57	13.51
중위임금 이상 임시일용직					2.90	1.09	0.87	0.71
중위임금 이상 상용직					22.28	18.85	14.63	11.36
이탈(attrition)					0.00	0.98	1.25	2.21
가족배경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69.35	59.48	50.26	36.73	70.89	61.47	51.32	37.50
고등학교 졸업	18.46	27.43	34.34	45.99	18.24	27.05	34.14	45.83
전문대 진학	12.19	13.09	15.41	17.28	10.87	11.47	14.54	16.67
아버지 직업지위								
단순노무직	4.40	6.75	6.77	6.94	4.47	7.08	7.40	6.37
일반기술직	58.34	51.62	45.60	45.43	59.65	52.66	46.20	46.68
사무직,서비스직	25.87	28.13	32.16	31.44	25.65	27.27	32.25	30.56
중간전문관리직	4.60	6.75	6.98	8.73	4.61	7.08	7.01	9.36
전문 관리직	6.79	6.75	8.48	7.47	5.62	5.90	7.14	7.02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여성)	35.33	40.02	49.21	50.23	36.04	38.94	48.66	49.71
29세 시점 기혼	68.79	54.12	45.98	36.11	72.64	57.74	49.46	38.52
14세 대도시 거주	39.38	48.87	51.91	55.56	37.42	48.38	52.43	55.43
29세 시점 교육수준								
고졸 이하	51.82	44.56	36.30	31.86	54.14	46.73	35.08	29.68
전문대 졸업	11.57	17.87	24.29	27.16	10.96	18.33	25.86	29.45
4년제 대졸이상	36.61	37.57	39.41	40.98	34.89	34.94	39.05	40.88
노동시장 조건								
졸업시기								
실업률 평균	6.51	6.24	7.51	7.34	6.49	6.17	7.51	7.33

가족배경,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시장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는 최근 코호트에서 높아졌다. 60코호트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저학력자 비율이 69.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18.5%, 전문대학 이상 진학자는 12.2%에 그쳤다. 70코호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27.4%, 전문대학 이상 진학자는 13.1%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코호트에서도 지속되어 80코호트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46.0%, 전문대 진학 이상이 17.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버지 직업지위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 아버지가 일반 기술직이나 단순노무직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사무직과 서비스직, 중간수준 전문, 관리직과 전문 관리직의 비중은 증가했다. 아버지가 일반기술직인 경우는 60코호트에서 58.3%였으나, 70코호트와 75코호트에서 점차 감소하여 80코호트에서는 45.4%로 줄었다. 반면, 아버지가 사무직 혹은 서비스직인 경우는 60코호트 25.9%에서 80코호트 31.4%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셋째,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동시장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60코호트 여성 비중은 35.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코호트에서 비중이 높아져서 75코호트와 80코호트 여성 비중은 49.2%와 50.2%였다.⁵³⁾ 최근 코호트에서 여성 비중이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보여준다. 29세 시점까지 결혼 한 것으로 확인된 기혼자는 60코호트에서는 68.8%로 대다수가 결혼하였으나 최근 코호트에서 기혼자 비중이 감소하여 80코호트 기혼자 비중은 37.4%로 줄었다. 이는 결혼을 미루는 최근 청년층 변화를 반영한다.⁵⁴⁾ 14세 시점 대도시 거주자 비중은 과거 코호트보다 최근 코호트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53) 분석에서 제외된 전체 사례(직업력 혹은 교육력 정보 결측, 우측절단 등)에서 여성 비중은 60코호트 58.1%, 70코호트 55.2%, 54.5%, 80코호트 49.1%였으며, 장기 미상 집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코호트 60.1%, 70코호트 58.2%, 75코호트 57.8%, 80코호트 51.4%였다.

54) 본 연구에서 최근 코호트의 기혼 비율은 과소추정된 수치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80코호트 중 다수는 부모가구에서 성장한 집단이다. 따라서 최근 코호트 기혼자의 다수가 조사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분가한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므로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분가가구는 매해 100가구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며, 18차년도 '98표본 조사성공 가구의 39.3%, 2009년 통합표본의 경우 18차년도 조사 성공가구 6,577가구 중 분가가구는 784가구였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 위주 인구집중을 확인하게 해 준다.

29세 시점 교육수준은 청년층의 교육수준 상향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60코호트에서 전문대 졸업 혹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은 각각 11.6%와 36.6%로 절반을 밑돌았으나, 80코호트에서는 24.3%와 39.4%로 63.7%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육수준 상승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비중은 60코호트 11.6%에서 80코호트 27.2%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중은 60코호트 36.6%에서 80코호트 41.0%로 약 5%포인트 증가했다.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영향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구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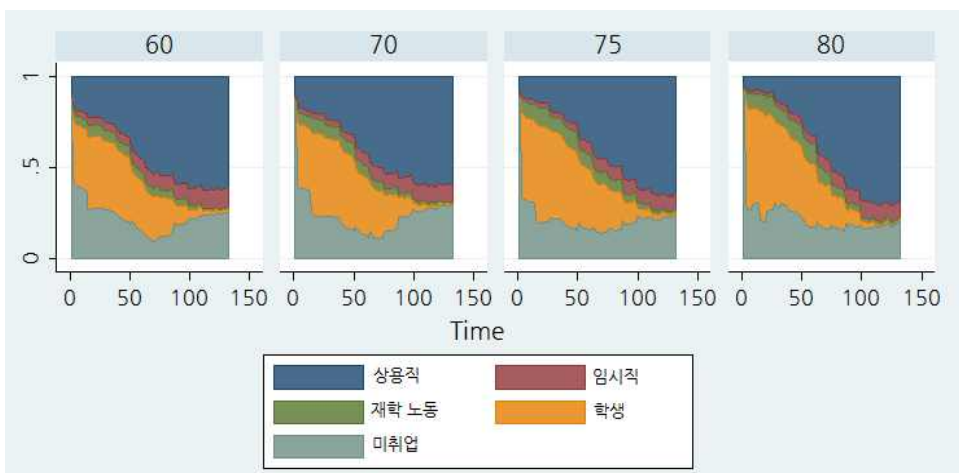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조건을 반영하는 최종 학교 졸업 혹은 중퇴시점 실업률은 앞에서 살펴본 거시경제적 변화와 유사했다. 80년대에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한 60코호트의 졸업/중퇴 시점 평균 실업률은 6.5%였으며, 3저 호황기에 이행을 경험한 70코호트는 6.3%였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이행을 경험한 75코호트의 평균 실업률은 7.5%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이행을 경험한 80코호트의 평균 실업률은 7.3%로 75코호트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음 <표 10>은 분석대상에 포함된 일자리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와 일자리 지속기간이 확인되는 총 35,382개의 일자리와 임금 및 소득수준이 확인되는 31,572개의 일자리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모든 코호트에서 상용직 일자리 비중이 가장 컸으나 최근 코호트에서 그 비중이 감소했다. 자영업 및 고용주의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한편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는 60코호트 39.1%에서 점차 감소해 80코호트에서는 12.1%로 감소하여 20대 청년층이 경험하는 일자리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하였으나 과거 코호트의 경우 회고자료 비중이 크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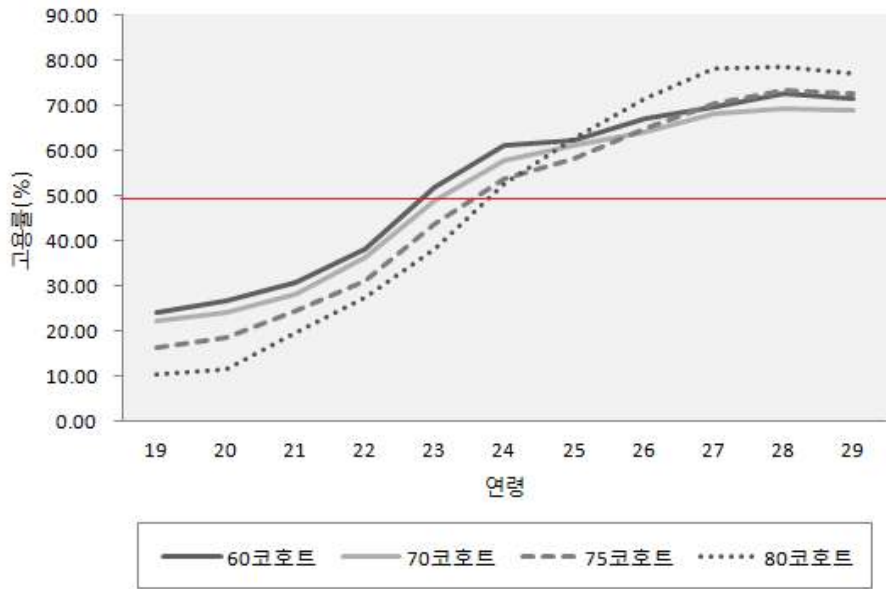
〈표 10〉 분석대상 일자리의 특성

	60 코호트	70 코호트	75 코호트	80 코호트	전체 (%)
종사상지위					
상용직	76.54	79.95	79.13	73.68	77.8
임시일용직	5.11	8.8	13.62	19.47	12.49
1인 자영업	11.23	6.8	4.56	4.5	6.04
자영업 및 고용주	7.11	4.45	2.69	2.34	3.66
전체 n	5,457	7,308	15,488	7,129	35,382(100)
임금 수준					
중위임금 2/3 미만	35.71	46.79	60.84	68.37	58.94
~ 중위임금 미만	25.18	25.09	20.59	19.54	21.36
중위임금 이상	39.11	28.12	18.56	12.09	19.7
전체 n	4,386	6,116	14,244	6,826	31,572(100)

〈그림 13〉은 연령 변화에 따른 상태 분포를 코호트별로 나타내며, 〈그림 14〉는 각 코호트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학생 상태의 비중이 크고, 그에 따라 재학 중 노동 비중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이 50% 이상이 되는 연령은 60코호트는 22세였으나 80코호트에서는 24세로 연장됐다.



〈그림 13〉 연령에 따른 상태 분포 코호트 비교



<그림 14> 연령에 따른 고용률 변화 코호트 비교

제 2 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1.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1)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유형화

(1) 모형 적합도

19-29세에 관측되는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궤적(이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집단기반궤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 유형 수와 함수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설정하였다. 첫째, BIC의 절대값이 가장 작으며 둘째, 집단 분포의 비중이 최소 5% 이상이고, 셋째, 유형 할당의 평균 사후확률이 90% 이상, 할당 정확도의 odds값이 5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추정된 유형의 분포와 실제 표본 집단의 유형 분포의 유사성 및 신뢰구간 값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다음 <표 11>은 유형의 수와 함수식을 변경하였을 때 BIC와 집단 분포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 결과, BIC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경우는 유형 수를 6개로 설정하고, 궤적 함수식을 3차, 3차, 3차, 3차, 2차, 1차식으로 적용한 경우였다.⁵⁵⁾

<표 11> 최적 유형 수 추정

궤적 수	함수식	BIC	Adjusted BIC	AIC	집단분포
1	3	-963595	-963583	-963567	5,635
2	32	-880998	-880976	-880946	3,644/2,009
3	321	-836931	-836901	-836862	2,376/1,547/1,730
4	3321	-802328	-802287	-802230	2,003/1,792/1,080/778
5	33321	-808208	-808155	-808082	1,471/1,335/1,133/978/736
6	333321	-766318	-766252	-766162	1,415/1,286/1,063/879/534/476
6	333210	-898198	-898140	-898060	2,059/1,323/976/492/420/383
6	333333	-889991	-889918	-889818	1,872/1,168/1,047/638/533/395
7	3333321	-773324	-773246	-773140	1,429/1,384/954/577/489/415/405

55) 유형 수 증가에 따른 궤적 분화는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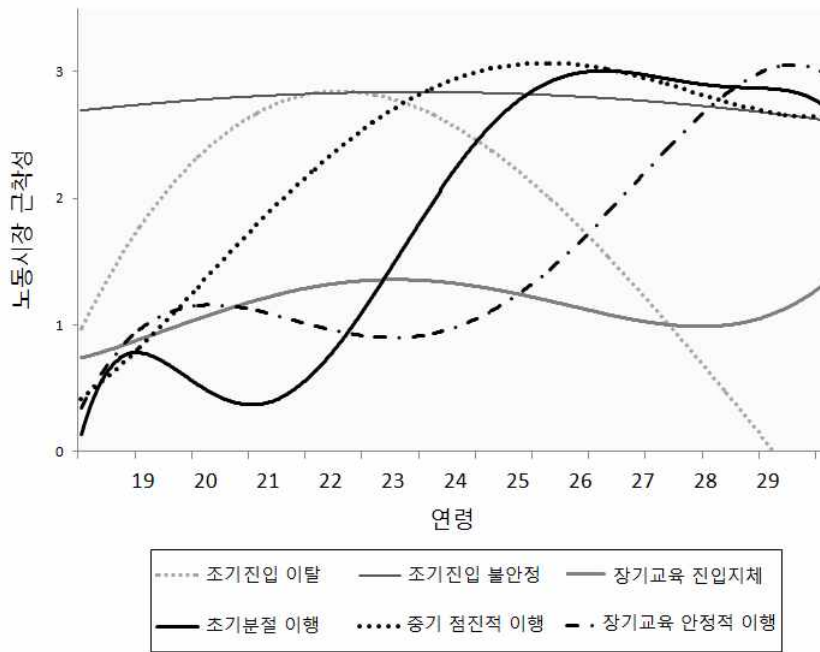
다음 <표 12>는 6개 유형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모든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이 90% 이상이었고, 할당 정확도의 odds는 5이상이었다. 추정 유형의 분포와 실제 표본 유형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신뢰구간 범위도 1% 미만으로 추정 정확도가 높았다.

<표 12> 6개 집단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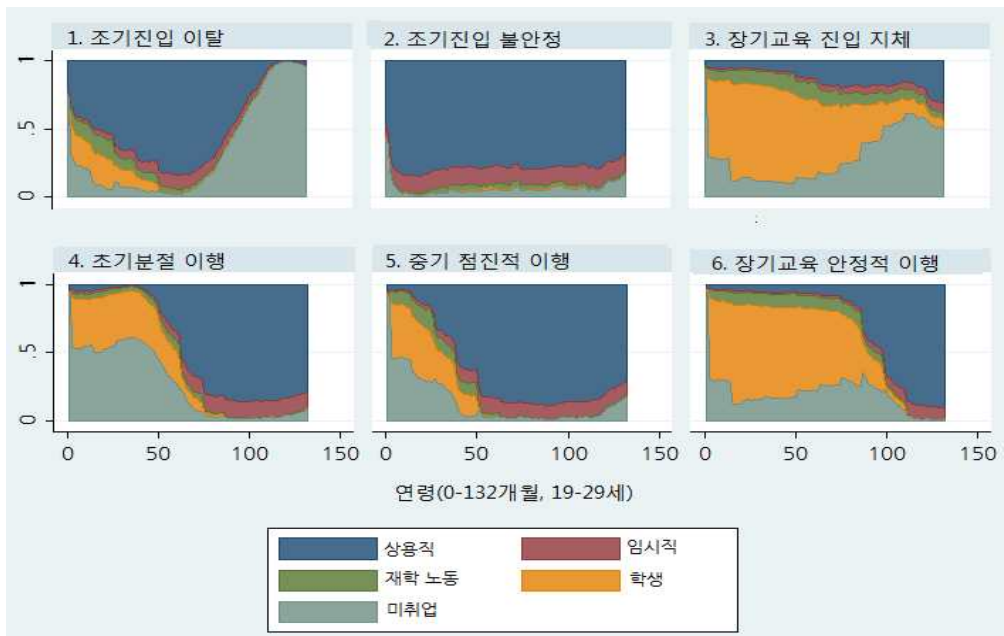
	평균 사후확률	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유형에의 할당		
			추정(%)	표본(%)	추정 확률 신뢰구간(±%)
1	99.52	1973.6909	9.46	9.45	0.39
2	99.50	2170.6339	8.41	8.42	0.37
3	99.00	429.1591	18.79	18.8	0.53
4	98.79	277.76938	22.73	22.75	0.57
5	98.92	500.07645	15.54	15.55	0.49
6	99.04	309.59028	25.08	25.03	0.59

(2)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특성

다음 <그림 15>는 도출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보여준다. 각 궤적은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의 변화(증가 혹은 감소)를 기준으로 서열적으로 배치하였다. 즉, 여기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단에는 두 집단, 연령이 많아 질수록 노동시장 근착성이 감소하는 집단과 증가하는 집단이 위치한다. x축은 연령을 y축은 노동시장 근착성(미취업, 학생, 재학노동, 노동)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가까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은 각 유형의 상태 빈도수가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도식화한 것이다. 노동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시일용직(영세 자영업자 포함)과 상용직(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포함)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그림 15>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그림 16>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상태 분포

첫째, ‘조기진입 이탈’ 유형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태분포를 보면 20대 초반에 교육, 노동, 미취업을 경험하고 20대 중반에 거의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다. 20대 중후반부터 미취업 분포가 급격히 증가해 29세 시점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

둘째,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은 노동시장 근착성이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태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만 임시일용직 종사 비중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대 후반 미취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장기교육 진입 지체’ 유형은 노동시장 근착성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20대 후반부터 높아진다. 상태분포를 보면 20대 중반까지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 후반 교육 비중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다.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노동 이 증가하지만 미취업 역시 상당히 크다.

넷째, ‘초기분절 이행’ 유형은 20대 초반까지 노동시장 근착성에 변동이 크지만 20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태분포를 보면 20대 중반까지 교육과 미취업 비중이 크지만 20대 중반 이후부터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섯째,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은 노동시장 근착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대 중반에 거의 모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상태 분포는 ‘초기분절 이행’과 유사하지만 학생 상태 비중이 비교적 작고 재학 노동 비중이 상당히 크며, 20대 중반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은 오랜 기간 교육을 거쳐 20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근착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태분포를 보면 20대 중반 이후에도 학생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노동상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성, 분절 수준을 확인하였다. <표 13>은 성별,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를 보여준다. <표 14>는 유형별 다양성과 분절 수준을 요약한 것이다.

<표 13>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분포

궤적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전체 %	여성 %	남성 %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조기진입 이탈	하향 후 이탈	9.5	19.8	1.2	15.0	11.6	3.1
조기진입 불안정	장기적 하향	8.4	11.3	6.2	18.5	4.1	0.7
장기교육 진입 지체	장기적 상향	18.8	16.4	20.8	10.8	13.7	29.3
초기분절 이행	하향 후 상향	22.8	15.6	28.5	27.5	26.8	16.0
중기 점진적 이행	점진적 상향	15.6	23.5	9.2	18.0	23.7	9.0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상향	25.0	13.6	34.2	10.2	20.2	41.9

<표 14>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다양성 및 분절 수준

궤적	다양성			분절 수준					
	상태 변화 횟수	엔트로피	일 개 수	29세 시점 고용 %	1년 미만 노동 %	총 기간 중			노동 기간 중 임시 일용직 %
		Shan	평			미	학	재	
		-non	균						
조기진입 이탈	4.8	0.41	2.2	3.9	0	34.2	5.8	4.7	11.0
조기진입 불안정	3.7	0.12	2.7	82.9	0	6.2	0.5	2.9	13.4
장기교육 진입 지체	5.8	0.65	2.5	44.2	43.7	30.5	42.9	9.0	22.1
초기분절 이행	4.7	0.57	2.4	91.4	0.9	27.6	16.4	2.9	13.5
중기 점진적 이행	4.5	0.53	2.3	82.9	0	13.0	11.8	4.3	12.0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5.4	0.93	2.1	98.6	3.7	20.0	40.7	6.6	10.5

<표 14>의 다양성은 유형에서 나타나는 상태 구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변동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상태 변화 횟수는 동일한 상태로 구성되는 에피소드 수를 나타낸다. 엔트로피는 모든 상태가 동일한 상태로 구성될 때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각 상태가 다른 값으로 구성될수록 0에서 멀어진다. 일 개수는 19-29세에 경험한 직장이동 경험을 반영한다. 둘째, 분절 수준은 세 가지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각 유형에 속한 사례의 29세 시점 고용률이다. 이는 29

세 최종 시점 관측되는 노동 비율이다. 1년 미만 노동은 전체 사례 중 노동 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 비중이다. 둘째, 미취업, 재학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의 비연속성을 반영한다. 학생 비중은 분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지만 유형별 교육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시일용직 비중은 총 노동 기간 중 고용 안정성이 낮은 기간을 보여준다.

첫째, ‘조기진입 이탈’ 유형은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여성의 19.8%, 남성의 1.2%가 여기에 속하였다. 결혼과 육아라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경력 단절이 반영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가 15%, 전문대 졸업자의 11.6%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3.1%에 불과했다. 경험한 일의 수가 적고 그만큼 다양성 수준도 낮다. 상태 변화횟수는 4.8로 중간수준이었으며, 엔트로피는 0.41로 비교적 낮았고 일의 개수는 2.2개였다. 분절 수준을 보면, 29세 시점 고용률은 3.9%에 불과하고, 미취업기간이 34.2%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둘째,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은 전체의 8.4%가 여기에 속하고, 여성의 11.3% 남성의 6.2%가 여기 속했다. 저학력자의 18.5%가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에 속한 반면,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4.1%, 0.7%에 불과했다. 이 유형은 지속적으로 노동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낮고, 상태 변화의 수도 가장 작다. 하지만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고, 29세 시점 고용률은 82.9%로 중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일을 한 기간 중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른 노동시장 진입 후 불안정 노동을 지속하는 유형임을 보여준다.

셋째,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은 전체의 18.8%가 이 유형에 속하고, 여성은 16.4%, 남성은 20.8%의 비중을 보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29.3%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변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엔트로피 역시 6개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험한 일의 수는 2.5개로 중간수준이었다. 분절 수준을 보면, 29세 시점 고용률은 44.2%에 불과하고, 전체 기간 중 1년 미만 노동을 유지한 사례의 비중이 43.7%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 기간도 ‘조기진입 이탈’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 ‘초기분절 이행’ 유형은 전체의 22.8%가 여기에 속하며, 여성의 15.6%, 남성의 28.5%가 여기에 속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각각 27.5%, 26.8% 였다. 이는 저학력자

와 전문대 졸업자의 유형 분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상태변화 횟수는 4.7, 엔트로피는 0.57, 경험한 일의 개수는 2.4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중간수준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분절 수준을 보면 미취업 비중은 27.6%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동기간 중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9세 시점 고용률과 1년 미만 노동 비율은 각각 91.4%와 0.9%로 분절 수준이 낮았다.

다섯째,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은 여성의 23.5%, 남성의 9.2%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18.0%, 23.7%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고, 대학 졸업자 중 이 유형에 속하는 비중은 9%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상태변화 횟수는 4.5, 엔트로피는 0.53, 경험한 일의 개수는 2.3개로 다양성은 중간 수준이었다. 분절 수준은 29세 시점 고용률은 82.9%였으며, 1년 미만 노동을 한 사례의 비중은 0%로 고용 지속성이 높았다. 한편, 미취업과 임시일용직 기간 비중은 전체 유형 중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은 6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의 25.0%가 이 유형에 속하였고, 여성의 13.6%, 남성의 34.2%가 이 유형에 속하였는데 남성 이행 유형 분포 중 가장 컸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고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상태 변화와 엔트로피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경험한 일의 개수는 2.1개로 가장 낮았다. 분절 수준을 보면, 29세 시점 고용률은 98.6%였으며, 1년미만 노동한 비중도 3.7%에 그쳐 고용지속성이 높았다. 미취업 기간 비중이 40.7%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다음 <표 15>는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특성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빠를수록 다양성 수준이 낮았고, 분절 수준은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유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15>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특성 요약

	다양성		분절 수준			종합	
	상태 변화	상태 구성	고용 지속	연속성	고용 안정성	다양성	분절 수준
조기진입 이탈	중	중	하	하	상	중간	높음
조기진입 불안정	중	하	중	상	하	낮음	높음
장기교육 진입지체	상	상	하	하	하	높음	높음
초기분절 이행	중	상	상	하	하	높음	중간
중기 점진적 이행	중	중	중	중	중	중간	낮음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상	상	상	중	상	높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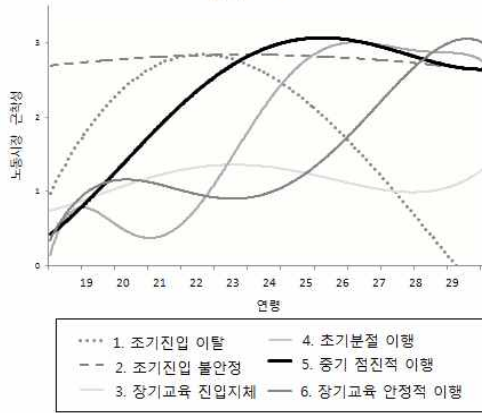
2)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변화

(1)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코호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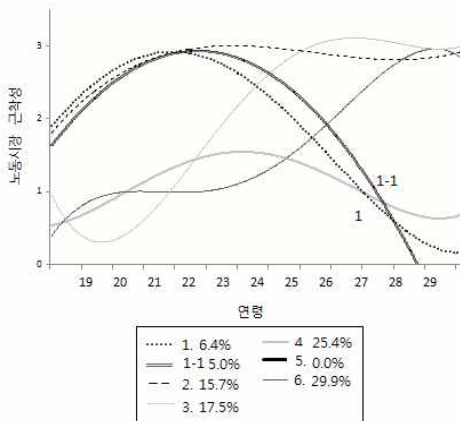
여기서는 코호트별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각 코호트별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확인하고, 이어서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와 특성의 코호트간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17〉은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이다. 분석 결과,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도출한 6개의 궤적이 각 코호트에서 나타난 궤적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코호트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0코호트에서는 ‘조기진입 이탈’ 유형이 두 개로 구분된다(1번과 1-1번 궤적). 둘째, 70코호트에서는 ‘조기진입 이탈’ 유형이 하나로 합쳐지고,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3번과 3-1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조기진입 이탈’ 유형 비중이 감소하고, 대학준칙주의로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층이 증가한 것으로 인한 영향이다. 셋째, 75코호트에서는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으로 분화되었다(2번과 5번 궤적). 마지막으로 80코호트는 75코호트와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분포와 궤적의 기울기에서만 다소 변화가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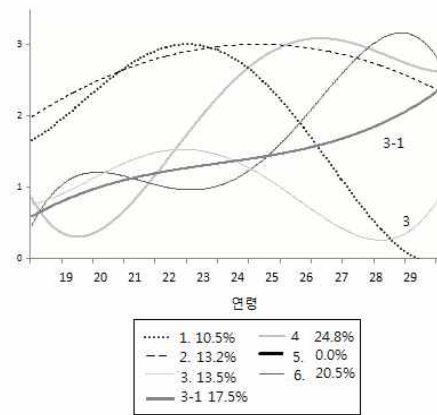
전체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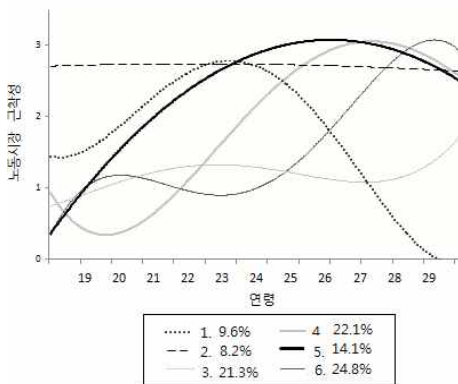
60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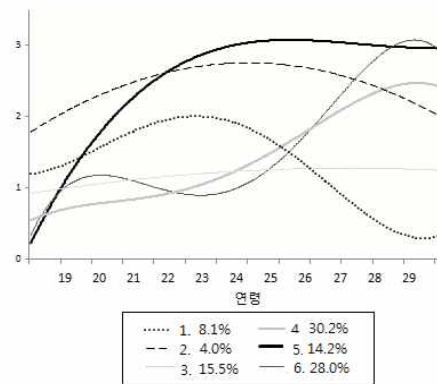
70 코호트



75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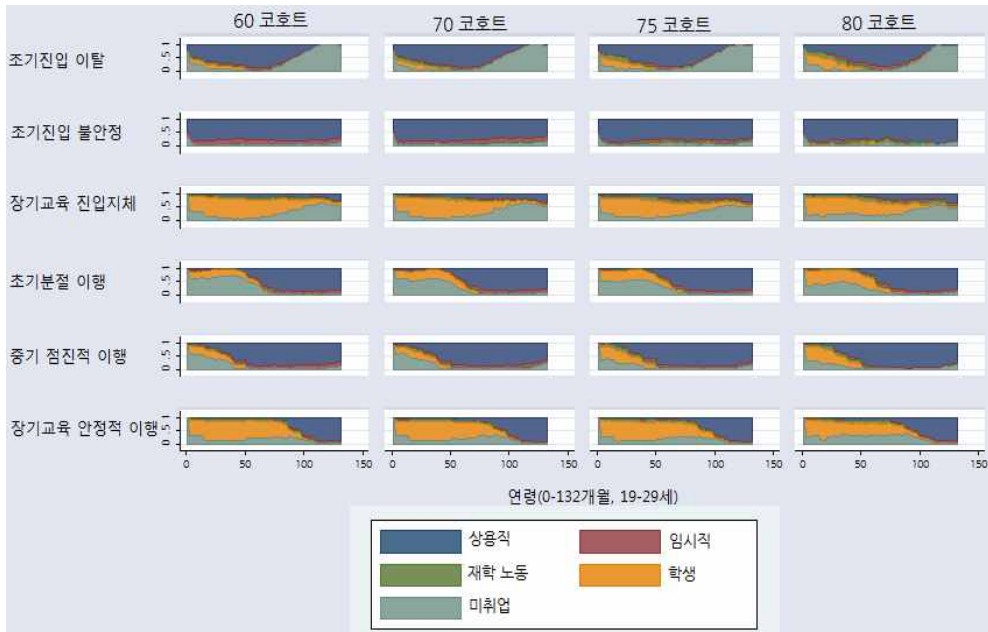
80 코호트



<그림 17>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소멸된 유형은 60코호트의 ‘조기진입 이탈’ 유형과 70코호트의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이며, 새로 발견된 유형은 75코호트와 80코호트의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이었다.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궤적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궤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된 궤적의 각 코호트별 상태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림 18>). 대부분 코호트에서 유사한 상태 분포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모든 궤적에서 학생(교육)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궤적의 미취업 상태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18>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상태 분포

자료: <표 12>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적용함.

(2)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변화

다음 <표 19>와 <그림 19>는 전체 코호트에서 도출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이다. 먼저 각 코호트별 변화를 살펴보면, 60코호트는 각 유형에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초기분절 이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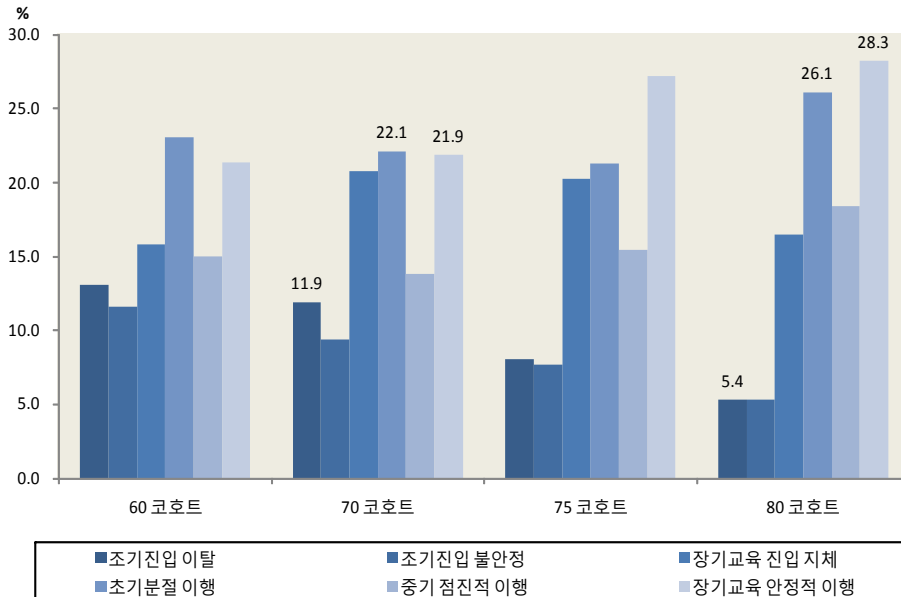
이었고,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 유형은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었다. 70코호트는 60코호트 보다 ‘조기진입 이탈’, ‘조기진입 불안정’,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이 감소하고, ‘장기교육 진입지체’와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소폭 증가하였다. 증가한 두 유형은 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형을 대표하는데, 70코호트의 교육수준이 60코호트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과 맥을 같이한다. 75코호트에서 ‘조기진입 이탈’과 ‘조기진입 불안정’은 더 감소하였고,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27.3%로 70코호트에 비해 6.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75코호트에서 관측되는 급격한 교육수준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80코호트에서 ‘조기진입 이탈’과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장기교육 진입지체’,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코호트별 궤적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16>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궤적	코호트				변화(%포인트)
	60	70	75	80	
조기진입 이탈	13.09	11.92	8.06	5.35	-6.57
조기진입 불안정	11.60	9.37	7.69	5.35	-4.02
장기교육 진입 지체	15.82	20.82	20.30	16.53	-4.29
초기분절 이행	23.11	22.14	21.27	26.10	+3.96
중기 점진적 이행	15.03	13.85	15.43	18.40	+4.55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21.35	21.90	27.25	28.26	+6.36
편포도 왜도(Skewness)	-0.23	-0.21	-0.36	-0.53	우측 편포
편포도 첨도(Kurtosis)	1.92	1.99	2.11	2.51	중앙 편중

각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근착성이 가장 낮은 ‘조기진입 이탈’ 유형 비중은 60코호트에서는 13.1%였으나, 70코호트 11.9%, 75코호트 8.1%, 80코호트에서는 5.4%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고 분절 수준이 낮은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 비중은 60코호트 21.4%에서 70코호트 21.9%, 75코호트 27.3%, 80코호트 28.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뒤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인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은 60코호트 15.8%에서 70코호트 20.1%, 75코호트 20.3%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80코호트에서 16.5%로 감소하여 60코호트와 80코호트 차이는 0.7 퍼센트 포인트에 불과했다. 편포도를 보면 최근 코호트에서 우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고(왜도가 -0.23에서 -0.53으로 변화), 첨도가 점차 증가해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노동시장 근착성이 낮고 분절 수준이 높은 유형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고 분절 수준이 낮은 유형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아지는 유형(‘초기분절 이행’,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중 분절 수준이 높고 불안정한 이행을 보이는 ‘초기분절 이행’ 과 ‘중기 점진적 이행’ 비중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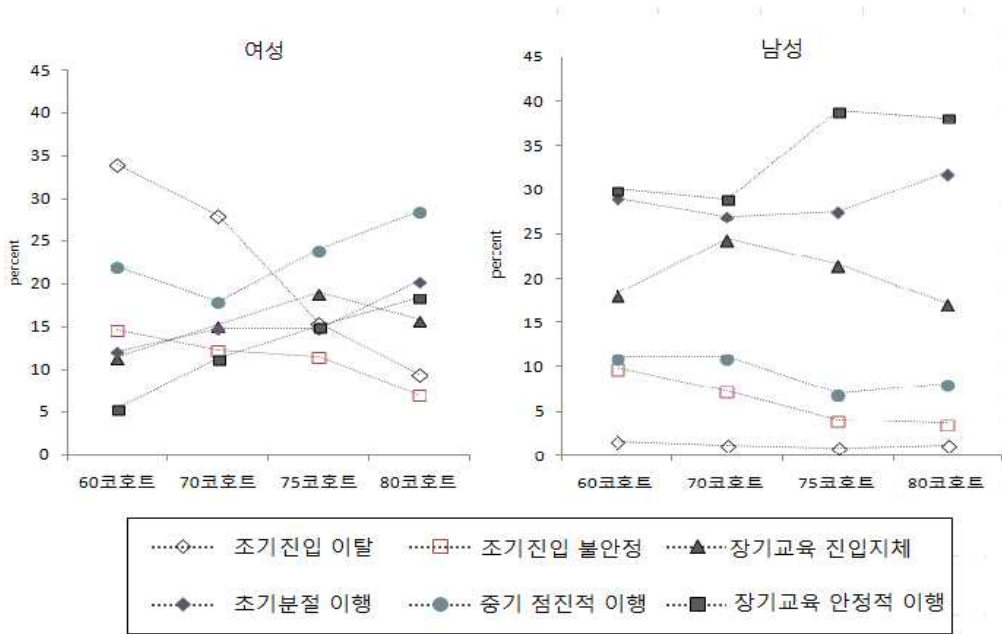
<그림 19> 코호트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이러한 변화가 성별, 교육수준, 가족배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특성과 가족배경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림 20>은 성별에 따른 궤적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⁵⁶⁾ 여성의 경우, 최

56) 여성과 남성은 궤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노동

근 코호트에서 ‘조기진입 이탈’ 유형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과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60코호트는 ‘조기진입 이탈’ 유형 비중이 가장 컸으나, 80코호트는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60코호트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약 15.0%)을 차지하던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은 80코호트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이었던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이 80코호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이 사라지고,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이 이를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코호트별 분석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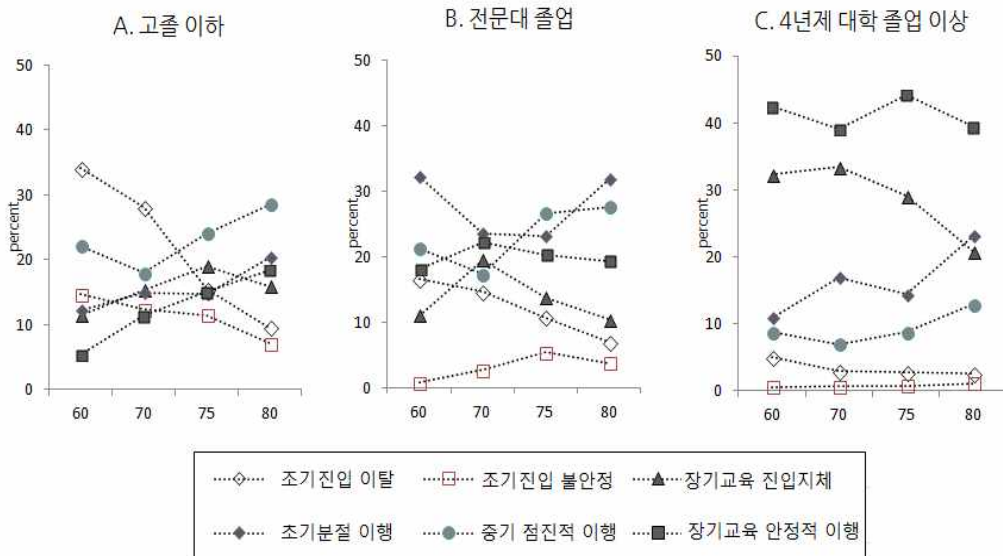
<그림 20>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은 감소하고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유형이 증가

시장 근착성 궤적을 도출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남성은 ‘장기교육 진입지체’와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의 비중이 컸고, 여성은 ‘조기진입 이탈’ 비중이 컸으며, ‘장기교육 진입 지체’ 유형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궤적 기울기가 낮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석 결과는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조기진입 불안정’과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이 감소하고,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과 ‘초기분절 이행’ 유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 <그림 21>은 교육수준에 따른 궤적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는 각 코호트에서 모두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조기진입 이탈’ 유형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코호트에서 ‘장기교육 진입지체’ 비중이 감소하고, ‘초기분절 이행’과 ‘중기 점진적 이행’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해 이행 기간이 연장되고, ‘대학 재학-취업’ 유형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졸 이하 저학력 집단과 전문대를 졸업한 집단의 변화 경향은 유사했다. 특히 저학력자 집단에서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여성의 궤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코호트 여성의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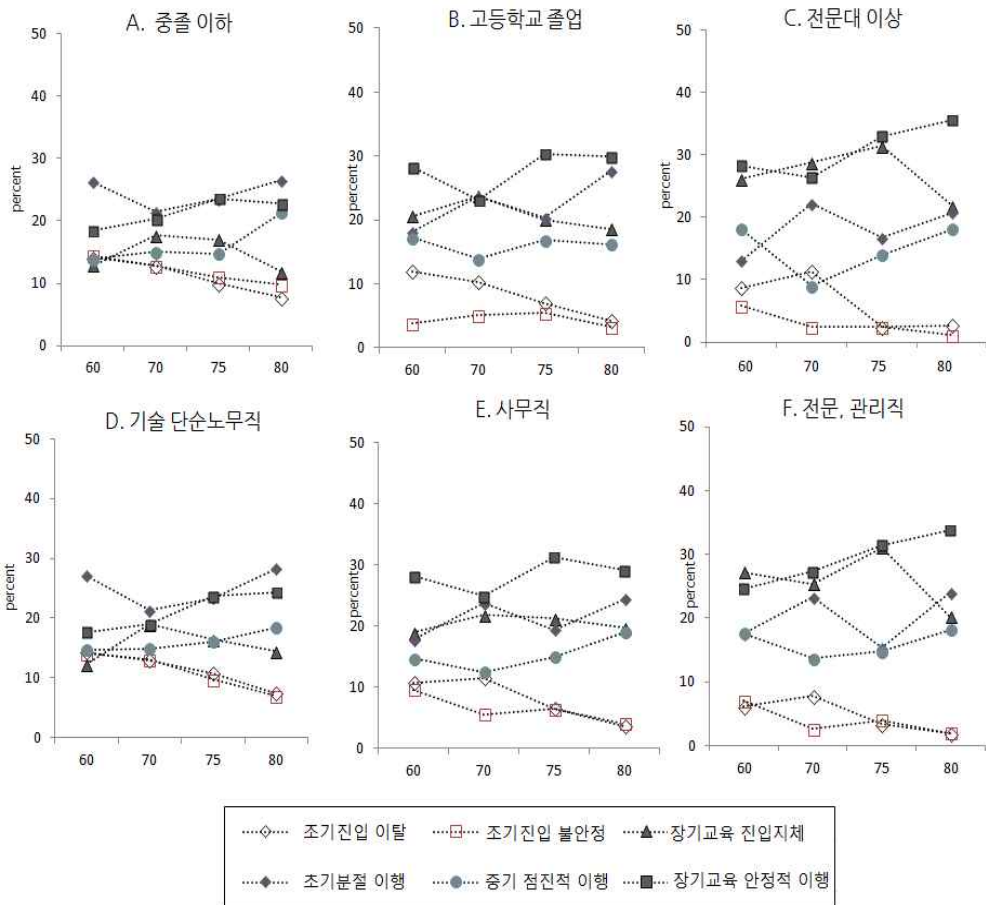


<그림 21>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포 변화

한편, 75코호트 중 전문대 졸업 집단에서 유일하게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75코호트에서 급격히 증가한 교육수준으로

인해 과거에는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가 경험하던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 전문대 졸업자들에게서 관측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는 가족배경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른 분포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집단에서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과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이 증가하고, ‘조기진입 이탈’과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저학력이거나, 직업이 일반 기술직 혹은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매우 더디게 증가하였고, 각 유형간 분포의 차이도 크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혹은 전문대 진학 이상이거나, 사무직 혹은 서비스직인 경우에는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75코호트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80코호트에서는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의 변화도 크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이거나 직업지위가 중간수준 관리자 전문가 이상인 경우였다.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은 75코호트까지 증가하다가 80코호트에서 감소한다. 이들 집단에서는 코호트에 따른 유형의 분포 변화가 가장 크게 관측된다. 이는 가족배경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차이가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2> 아버지의 교육 수준 및 직업지위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변화

(3) 다양성 및 분절 수준 변화

〈표 17〉은 코호트별 다양성과 분절 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수치에서 최근 코호트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 코호트의 이행 과정이 복잡하게 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7> 코호트별 이행 과정의 다양성 및 분절 수준 변화

		코호트			
		60	70	75	80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0.43	0.52	0.67	0.83
	상태변화의 횟수	3.70	4.60	5.30	6.00
	경험한 일자리의 수	1.87	2.34	2.47	2.38
분절 수준	미취업 기간 비중 (%)	23.31	23.66	22.11	22.56

〈표 18〉은 19-29세 시점에 관측되는 상태 변화 횟수와 미취업 기간의 비중 변화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배경, 귀적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태 변화 횟수 증가 경향은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족배경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여성의 상태 변화 횟수는 60코호트 평균 3.7회에서 80코호트 평균 5.8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60코호트 3.8회에서 80코호트 6.2회로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변화를 보면, 고졸 이하의 평균 상태변화 횟수는 60코호트 3.2회에서 80코호트 5.7회로 증가하였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80코호트 4.0회에서 80코호트 6.0회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에서 상태 변화 횟수가 상당 부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상태 변화 횟수는 다소 증가하였다. 상태 변화에 ‘학생’이 포함되므로 교육수준에 따른 상태 변화 횟수의 증가는 교육수준 상향화의 영향을 일부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변화를 보면, 60코호트는 미혼과 기혼의 상태 변화 횟수에 큰 차이가 없었고, 이러한 경향은 75코호트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80코호트는 미혼 6.3회, 기혼 5.4회로 약 1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이행 과정 관계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가족배경에 따른 평균 상태 변화 횟수를 보면, 최근 코호트의 상태 변화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배경에 따른 횟수의 차이는 미미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상태 변화 횟수는 다음과 같다. 최근 코호트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상태 변화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상태 변화 횟수가 가장 적은 유형과 가장 큰 유형의 차이도 60코호트 1.6회에서 80코호트 2.3회로 증가하였다. 한편, 가장 큰 변화가 관측되는 것은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이었는데, 60코호트의 평균 상태변화 횟수는 4.2회였으나, 80코호트에서는 6.7회로 약 2.5회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근착성이 감소하는 유형에 속하는 최근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에 보다 더 많은 상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총 관측기간 중 미취업이 차지하는 기간 비중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미취업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여성에 집중된다. 남성은 전체적 경향과 달리 미취업 기간이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 미취업 기간 변화를 보면, 고졸 이하와 전문대 졸업 집단의 미취업 기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고학력자의 미취업기간 비중은 60코호트는 18.9%였으나, 80코호트에서 22.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 직업지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이 일반기술,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최근 코호트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아버지 직업이 전문, 관리직인 경우, 60코호트는 20.0%였으나 80코호트에서는 24.5%로 약 5%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의 가족배경이 유리한 경우 취업하는데 유리하므로 미취업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코호트별 미취업 비중 변화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노동시장 근착성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의 미취업 기간은 60코호트 16.9%에서 80코호트 26.%로 9.7%포인트 증가하였다.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에서도 분절 수준(미취업 기간)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교육 진입지체’ 유형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표 18> 19-29세 상태 변화 횟수 평균 및 미취업 기간 비중 변화

	상태 변화 횟수 (평균)				미취업 기간 (%)			
	60	70	75	80	60	70	75	80
전체	3.70	4.60	5.30	6.00	23.31	23.66	22.11	22.56
여성	3.68	4.78	5.59	5.79	24.79	24.57	21.88	20.09
남성	3.75	4.50	5.03	6.18	22.50	23.05	22.34	25.05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0	4.26	4.92	5.69	27.16	27.03	27.22	26.57
전문대 졸업	5.02	5.47	5.92	6.27	25.48	25.45	21.53	20.71
4년제 대졸 이상	3.99	4.63	5.28	6.02	17.57	18.86	17.77	20.69
혼인상태								
미혼	3.69	4.61	5.40	6.32	22.54	23.49	21.98	23.09
기혼	3.73	4.64	5.21	5.40	23.76	23.95	22.27	21.90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3.62	4.60	5.24	5.97	24.33	23.79	23.50	21.95
고졸	3.81	4.64	5.38	5.92	22.42	23.42	20.88	22.88
전문대 이상	4.18	4.74	5.39	6.26	18.92	22.74	19.62	22.84
아버지 직업								
일반기술, 단순노무직	3.54	4.56	5.25	6.00	24.65	24.01	23.03	22.64
사무직, 서비스직	3.74	4.59	5.27	5.77	21.05	23.02	21.15	21.20
전문, 관리직	4.14	4.61	5.34	6.25	20.20	22.54	20.17	24.52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조기진입 이탈	3.79	4.86	5.27	5.44	36.06	34.33	32.93	29.69
조기진입 불안정	2.69	3.67	4.21	4.46	5.11	6.57	6.75	5.59
장기교육 진입지체	4.18	5.41	6.23	6.72	30.50	31.28	29.10	30.68
초기분절 이행	3.58	4.23	5.00	5.93	31.33	27.59	28.31	24.08
중기 점진적 이행	3.36	4.02	4.77	5.34	15.47	15.90	11.76	9.81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4.30	4.90	5.48	6.42	16.87	18.84	19.07	26.56

2. 노동 안정성 변화

1) 노동 안정성 궤적 유형화

(1) 모형 적합도

앞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최적 유형의 수를 추정하였다. 마찬가지로 6개 집단에 대해 3차, 3차, 3차 3차, 2차 1차식을 적용해 궤적을 추정하였을 때 모형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BIC의 절대값은 7개의 집단으로 궤적을 추정하였을 때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나, 이 경우 두 궤적에 할당된 사례 비중이 5% 미만이었으며 가장 규모가 작은 궤적의 사례는 82명으로 1.9%에 불과했다.

<표 19> 최적 유형의 수 추정

궤적 수	함수식	BIC	Adjusted BIC	AIC	궤적 분포
1	3	-700359	-700347	-700331	4,322
2	32	-723138	-723116	-723087	3,515/807
3	321	-624027	-623998	-623960	2,491/1,343/488
4	3321	-539305	-539263	-539209	1,814/1,492/594/422
5	33321	-548996	-548942	-548872	2,396/770/605/440/110
6	333321	-504260	-504194	-504108	1,507/1,180/557/549/396/133
6	333210	-510129	-510070	-509994	1,548/1,192/551/487/444/100
6	333322	-508066	-507997	-507908	1,806/1,018/562/415/393/128
6	333333	-530836	-521344	-530763	2,064/816/589/380/358/115
7	3333321	-484566	-484488	-484386	1,359/1,023/909/453/281/21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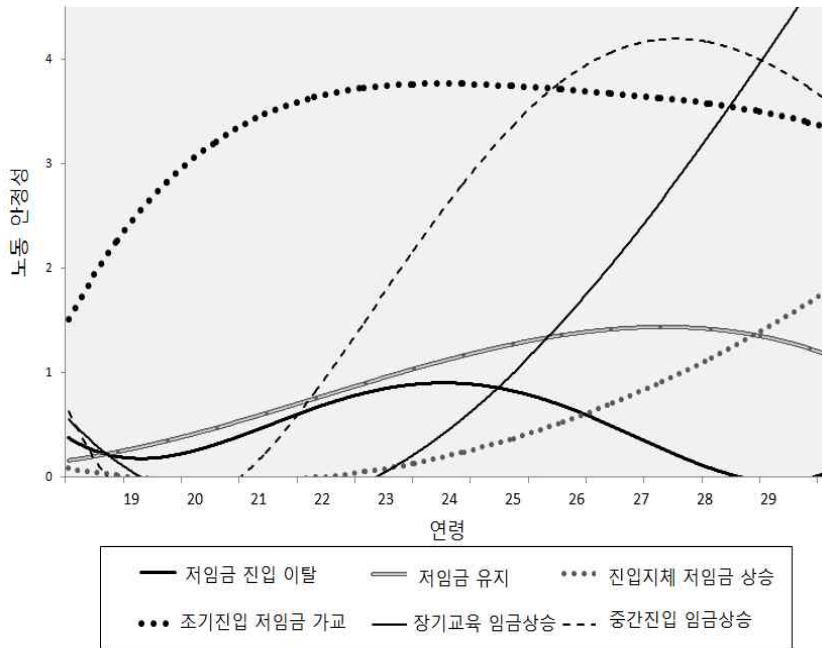
다음 〈표 20〉은 모형 적합도를 요약한 것이다. 각 사례가 해당 궤적에 속할 확률인 사후확률 평균은 모두 99% 이상이었으며, 할당 정확성의 odds는 모두 5 이상이었다. 추정된 궤적과 표본의 유형 분포는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궤적 추정의 신뢰구간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20> 모형 적합도

	사후확률 평균(%)	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사례의 할당		
			추정(%)	표본(%)	추정 확률의 신뢰구간(±%)
1	99.24	882.45	12.89	12.91	0.52
2	99.48	509.45	27.30	27.34	0.69
3	99.40	309.43	34.87	34.82	0.74
4	99.97	104860.31	3.08	3.08	0.26
5	99.84	4289.39	12.70	12.69	0.51
6	99.99	99160.39	9.16	9.18	0.44

(2) 노동 안정성 궤적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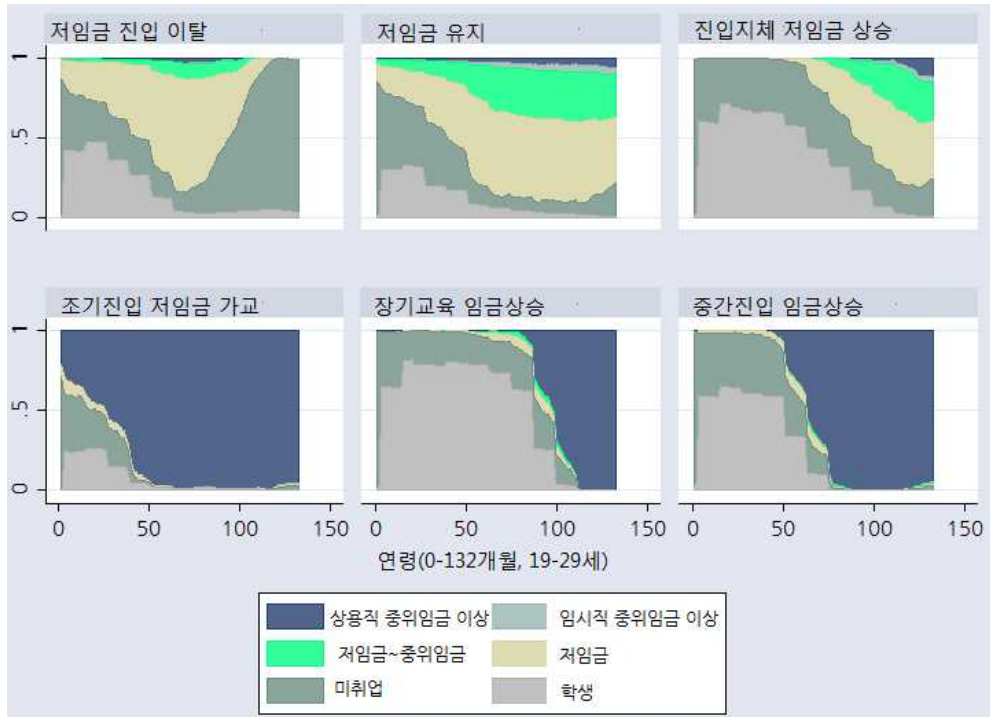
다음 <그림 23>은 노동 안정성 변화 궤적(이하 노동 안정성 궤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4>는 각 궤적별 연령 변화에 따른 상태 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노동 안정성 궤적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른 노동 안정성의 변화 유형을 보여준다. <그림 23>에서 x축은 연령을 y축은 노동 안정성(0. 미취업, 1. 저임금, 2. 저임금 이상 중위임금 미만, 3. 중위임금 이상이면서 임시일용직, 4. 중위임금 이상이면서 상용직)을 의미하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 즉 노동 안정성이 높다.



<그림 23> 노동 안정성 궤적

첫째,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동 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다 감소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 상태 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까지 교육과 미취업을 경험하다가 20대 초중반부터 일을 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2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미취업 상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저임금 유지’ 유형은 20대 초중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주로 저임금 수준 일자리에 종사하는 유형이다. 셋째,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은 앞의 두 유형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지만 노동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앞의 두 유형에 비해 20대 중반까지 학생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20대 중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저임금, 중위임금,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넷째,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은 20대 초반까지 노동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유형이다. 상태 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까지 학생 상태가 관측되고, 20대 중반까지는 저임금과 미취업 비중이 비교적 크지만 20대 중반 후부터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섯째,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은 20대 중반 이후 상용직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에 바로 취업하는 유형이다.

상태 분포를 보면 20대 후반까지 학생 상태가 관측되고, 저임금 노동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20대 중반으로 비교적 빠른 편이다.



<그림 24> 궤적별 연령에 따른 상태 분포

다음으로 각 궤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성, 안정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표 21>은 성별, 교육수준별 궤적의 분포를 보여주며 <표 22>는 유형별 다양성과 안정성 수준을 요약한 것이다. 다양성은 노동시장 근착성과 동일하게 상태 변화의 수, 상태 구성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경험한 일자리 수로 측정하였으며, 안정성의 수준은 고용의 지속성(총 기간 중 미취업기간, 29세 시점 고용률), 고용 안정성(일을 한 기간 중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 경제적 안정성(일한 기간 중 저임금, 중위임금 미만 노동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표 21> 노동 안정성 궤적의 분포

궤적	노동 안정성 변화	전체	성별		교육수준		
			여성	남성	고졸	전문대 졸업	4년제 대졸 이상
저임금 진입 이탈	하향 이탈	12.9	25.4	2.9	16.6	14.51	8.26
저임금 유지	하향	27.3	34.2	21.8	42.02	31.76	10.06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중상향	34.9	26.6	41.5	24.66	32.6	46.96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단계적 상향	3.1	3.1	3.1	5.47	3.58	0.37
장기교육 임금 상승	장기적 상향	12.7	2.9	20.6	3.94	9.04	23.17
중간진입 임금 상승	상향	9.2	7.9	10.2	7.3	8.52	11.18

<표 22> 노동 안정성 궤적별 다양성 및 안정성 수준

궤적	다양성			안정성 수준				
	상태 변화	엔트 로피	일의 수	29세 시점 고용	미취업 (총기간 비중)	일한 일용직	기간 중 저임금 노동	비중 중위임금 노동
	평균	shannon	평균	%	%	%	%	%
저임금 진입 이탈	3.8	0.9	2.3	1.26	32.9	12.7	74.5	85.1
저임금 유지	3.9	1.0	2.7	78.7	19.2	14.6	58.2	88.5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3.3	0.9	2.6	75.9	23.3	16.7	49.3	74.5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2.3	0.6	1.4	97.0	8.2	0.6	2.5	2.5
장기교육 임금 상승	2.5	0.9	1.8	99.6	16.4	2.0	5.0	7.2
중간진입 임금 상승	2.4	1.1	1.6	97.2	17.4	1.7	3.5	4.0

첫째, 6개 유형 중 안정성이 가장 낮은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은 대부분 기간동안 미취업과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며, 2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29세 시점에는 미취업인 집단이다. 전체의 12.9%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25.4%, 남성은 2.9%가 여기에 속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생애주기는 20대 초반에 증가하다가 20대 후반부터 30대에 감소하고, 40대와 50대에 다시 증가하는 ‘M’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의 16.6%, 전문대 졸업자의 14.5%가 여

기에 속한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8.3%만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다양성과 안정성 수준을 살펴보면, 상태 변화와 엔트로피 수준이 높고, 경험한 일 개수는 평균 2.3개로 '저임금 유지'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안정성 수준은 29세 시점 고용률은 1.3%로 매우 낮았고, 미취업 기간은 32.9%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일한 기간 중 임시일용직에 종사한 비중은 12.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저임금 노동에 종사한 비중은 74.5%, 저임금 노동을 포함한 중위임금 미만 노동 비중은 85.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저임금 유지' 유형은 2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을 지속하였으나 대부분 저임금과 중위임금 미만 일자리에 종사하며, 2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미취업 상태를 반복 경험하는 유형이다. 전체의 27.3%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여성의 34.2%가 여기에 속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1.8%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대부분인 42.0%가 여기에 속하였고, 전문대 졸업자도 비교적 많은 수인 31.8%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반면 4년제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의 1/3 수준인 10.1%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태 변화 평균은 3.9, 엔트로피는 1, 경험한 일의 개수는 2.7개로 모든 유형 중 다양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안정성 수준을 보면, 29세 시점 고용률은 78.7%였다. 미취업기간은 19.2%로 높은 수준이었고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도 14.6%로 높은 수준이었다. 일한 기간 중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한 비중은 58.2%로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중위임금 미만 노동 비중은 8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은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여 저임금 일자리에서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로 상향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전체 사례의 34.9%가 이 유형에 속했으며, 모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의 26.6%, 남성의 41.5%가 여기에 속하였는데, 남성의 군 복무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전문대 졸업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경우 각각 32.6%, 47.0%가 여기에 속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는 5.5%에 불과했다. 평균 상태변화의 수는 3.3, 엔트로피는 0.9, 경험한 일의 개수는 2.6개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 안정성이 증가하는 나머지 3개의 유형에 비해 다양성이 다소 높

은 수준이었다. 안정성 수준을 보면 미취업 기간은 23.3%로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9세 시점 고용률은 75.9%로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 임시일용직 종사 비중은 14.6%로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유형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저임금 노동과 중위임금 미만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은 각각 49.3%, 7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은 20대 초반에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지속하는 유형인데, 20대 중반에도 저임금 노동과 미취업이 일부 발견된다. 전체의 3.1%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⁵⁷⁾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의 5.5%, 전문대 졸업자의 3.6%가 여기에 속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0.4%만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변화의 수는 2.3개, 엔트로피는 0.6, 경험한 일의 수는 1.4개로 다양성이 낮은 수준이었다. 안정성 수준을 보면, 미취업 기간은 8.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고용률은 97.0%였다. 저임금과 중위임금 미만 노동에 종사한 비중은 각각 2.5%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섯째,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은 20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위임금 이상의 일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의 12.7%가 이 유형에 속하였고 여성의 2.9%, 남성의 20.6%가 여기에 속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는 3.9%, 전문대 졸업자는 9.0%로 낮은 비중이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3.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양성과 안정성 수준을 보면, 상태 변화 평균은 2.5, 엔트로피는 0.9로 모든 유형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경험한 일의 개수는 1.8개로 적은 편이었다. 안정성 수준을 보면 29세 시점 고용률은 99.6%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취업 비중은 16.4%로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임시일용직 비중은 2.0%, 저임금과 중위임금 미만 노동은 각각 5.0%와 7.2%로 낮은 편이었다.

57) 집단기반궤적분석에서 최적 유형 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집단에 할당된 사례의 규모가 전체 표본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기반궤적분석을 개발한 Nagin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할당된 사례의 수가 적더라도 해당 궤적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독립된 궤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조기진입 가교’ 궤적의 분포변화는 코호트간 노동 안정성 변화를 보여주며, 과거 궤적의 소멸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궤적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2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20대 중반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위임금 이상의 일을 하는 유형이다. 6개 궤적 중 노동 안정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여성의 7.9%, 남성의 10.2%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는 7.3%, 전문대 졸업자는 8.5%,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자는 11.2%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다양성에 있어서 평균 상태변화의 수는 2.4로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엔트로피는 1.1로 높은 편이었다. 상태 변화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상태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안정성 수준을 보면, 29세 시점 고용률은 9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임시일용직 비중, 저임금 노동, 중위임금 미만 노동 비중은 각각 1.7%, 3.5%,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 <표 23>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노동 안정성이 높을수록 상태 변화의 수는 감소하지만 상태 구성은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은 안정성 수준도 높았다.

<표 23> 노동 안정성 궤적의 특성 요약

	다양성		안정성 수준			종합	
	상태 변화	상태 구성	고용 지속성	고용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다양성	안정성
저임금 진입 이탈	상	중	하	하	하	높음	낮음
저임금 유지	상	상	중	하	하	높음	낮음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중	중	하	하	중	중간	중간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하	하	상	상	상	낮음	높음
장기교육 임금 상승	하	중	상	상	상	중간	높음
중간진입 임금 상승	하	상	중	중	상	중간	높음

2) 노동 안정성 궤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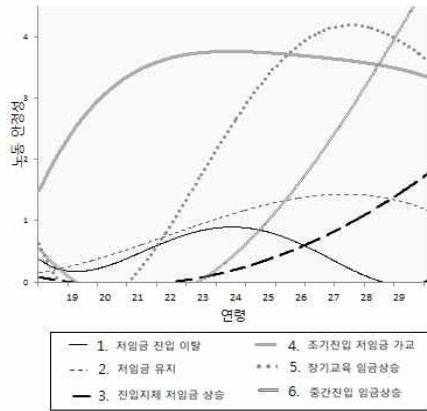
(1) 노동 안정성 궤적 코호트 비교

〈그림 25〉는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이다. 분석 결과,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도출한 6개의 유형이 각 코호트에서 나타난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코호트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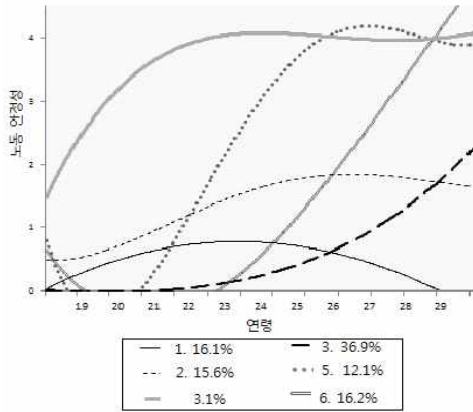
첫째, 60코호트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코호트에 비해 임금이 증가하는 유형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장기교육 임금 상승’(5번)과 ‘중간진입 임금 상승’(6번) 유형은 각각 12.1%와 16.2% 였다. 한편,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1번)과 ‘저임금 유지 유형’(2번)의 비중은 가장 적었다. 둘째, 70코호트는 60코호트와 매우 유사한 노동 안정성 유형을 보였으나, 60코호트에 비해 ‘중간진입 임금 상승(6번)’ 유형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1년 정도 늦어지고 비중이 감소하였다. 셋째, 75코호트는 70코호트에서 저임금 진입 이탈(1번)유형이 저임금 유지(2번) 유형으로 합쳐져서 그에 따라 ‘저임금 유지’ 유형의 전반적인 노동 안정성 수준이 0에 가깝게 위치한다. 대신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4번)이 2개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새로 분화된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1-2년 지체되고 임금수준도 저임금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 상향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 코호트에서는 그 여지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80코호트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80코호트에서는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중위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유형(중간진입 임금 상승, 장기교육 임금 상승)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도출된 궤적 유형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도출된 궤적 유형에 따라 각 코호트의 상태 분포를 분석하였다(〈그림 26〉). 대부분 코호트에서 유사한 상태 분포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모든 유형에서 중위임금이상 상용직의 분포가 감소하는 한편, 미취업 상태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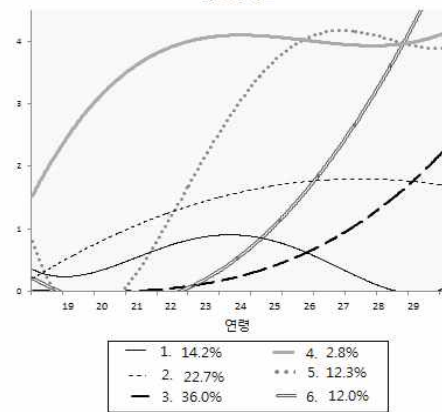
전체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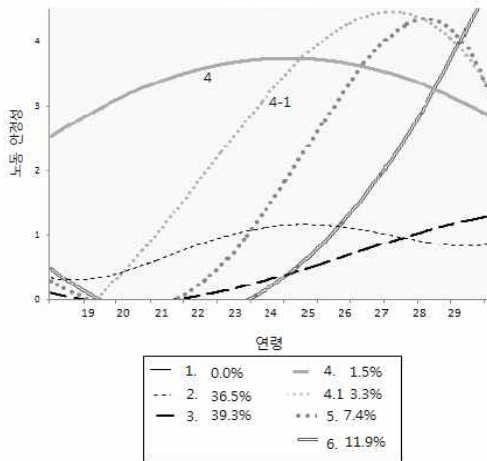
60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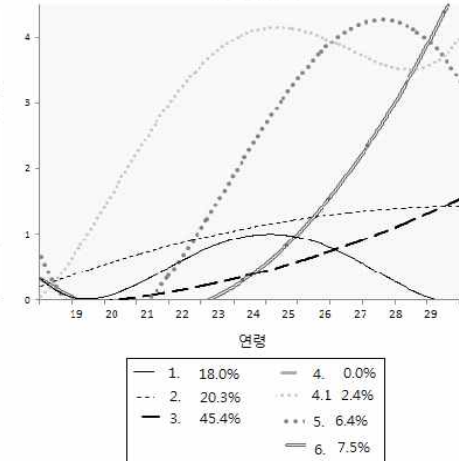
70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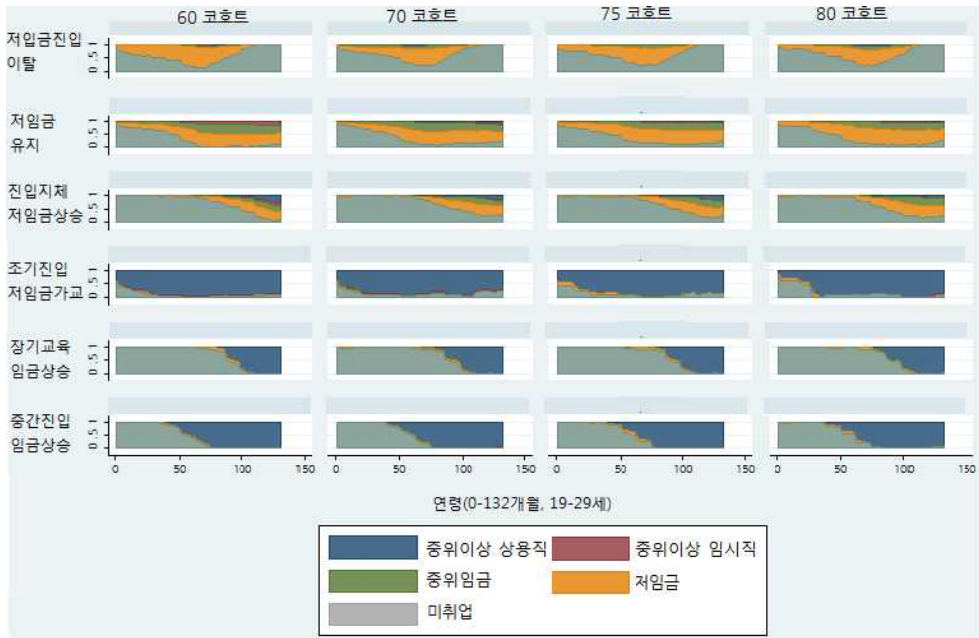
75 코호트



80 코호트



<그림 25>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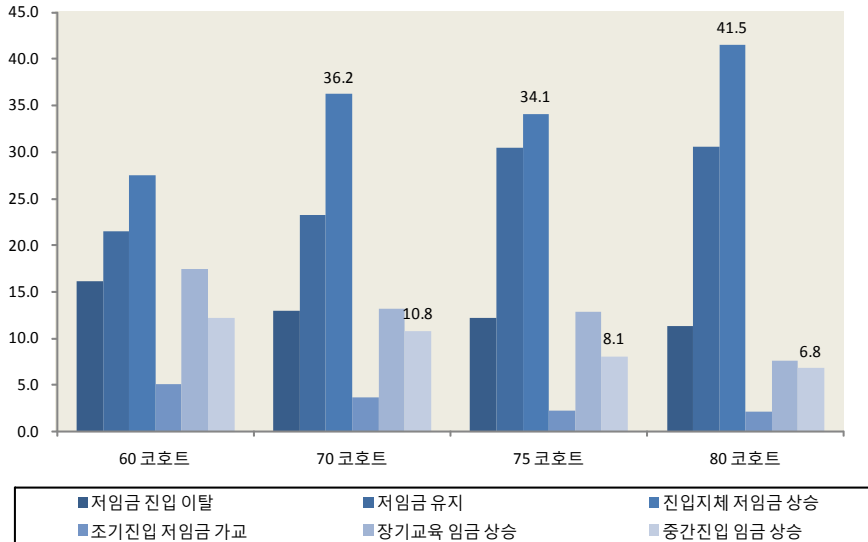
<그림 26> 코호트별 노동시장 안정성 궤적 상태 분포

(2)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도출된 궤적의 분포와 특성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였다. <표 24>와 <그림 27>은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표 24>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궤적	코호트				변화(%포인트)	
	60	70	75	80	70→80	
저임금 진입 이탈	16.1	12.9	12.2	11.3	-1.6	
저임금 유지	21.5	23.3	30.5	30.6	+7.3	
진입자체 저임금 상승	27.5	36.2	34.1	41.5	+5.3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5.2	3.7	2.3	2.2	-1.5	
장기교육 임금 상승	17.5	13.2	12.9	7.6	-5.6	
중간진입 임금 상승	12.2	10.8	8.1	6.8	-4.0	
편포도	왜도(Skewness)	0.32	0.54	0.72	0.94	좌측 편포
	첨도(Kurtosis)	1.90	2.33	2.63	3.53	중앙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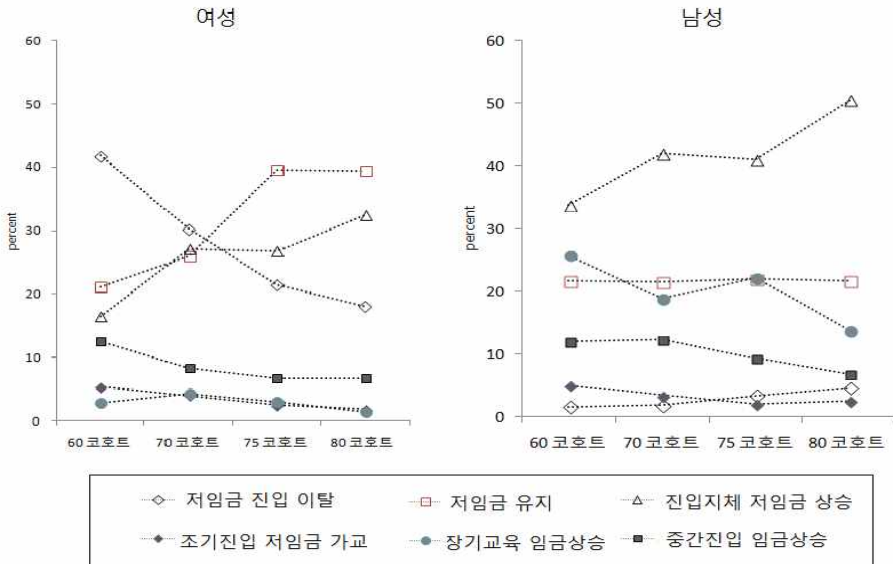
<그림 27> 코호트별 노동 안정성 궤적의 변화

모든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유형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이었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과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은 70코호트에서 13.2%로 전체 유형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80코호트에서는 7.6%로 감소했다. 또한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도 70코호트에서는 10.8%였으나, 점차 감소해 80코호트에서는 6.8%만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안정성이 높은 유형이 감소한 것과 달리,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은 최근 코호트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은 70코호트에서 36.2%였는데 80코호트에서는 41.5%로 5.3%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저임금 유지’ 유형도 60코호트 21.5%에서 75코호트 30.5%로 8.5%포인트 증가하여 80코호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편포도를 보면, 최근 코호트에서 좌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커지고(왜도가 0.32에서 0.94로 변화), 첨도 역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노동시장 근착성 유형 분포와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코호트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유형 비중이 크지만, 임금수준과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경우에는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 비중이 크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성별, 교육수준, 가족배경(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라 노동 안정성 궤적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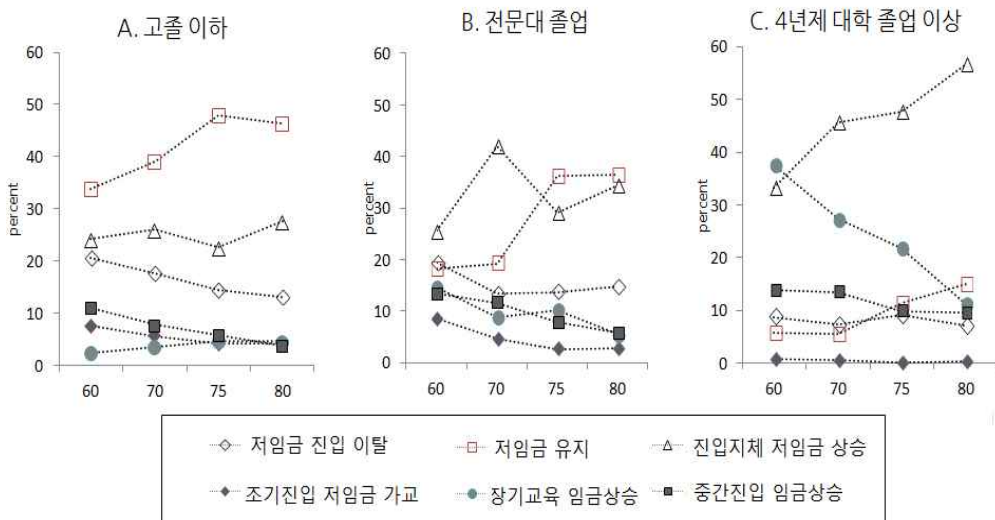


<그림 28> 성별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

첫째, <그림 28>은 성별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에게서 공통적인 부분은 앞서 전체 분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근 코호트일수록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성은 노동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을 중심으로 변화가 관측되며, 남성은 '중간진입 임금 상승'과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을 중심으로 변화가 뚜렷했다. 최근 코호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상당수 여성들이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해준다.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과 '저임금 유지'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들 대부분이 여전히 저임금 혹은 중위임금 미만 열악한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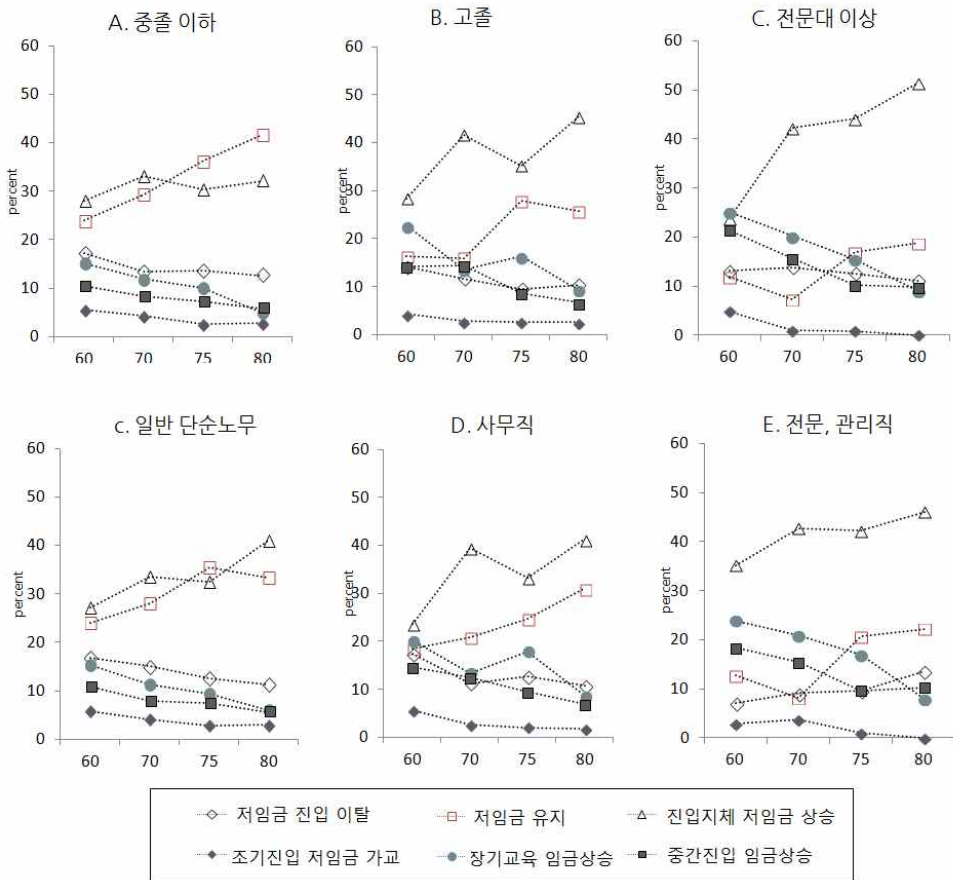
에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그림 29>는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의 분포 변화를 보여 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 ‘저임금 유지’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과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임금 진입 이탈’과 ‘중간진입 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은 모두 감소하였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의 증가와 감소, ‘저임금 유지’ 증가를 중심으로 변화가 관측되었다. 주목할 점은 60코호트와 70코호트에서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은 ‘저임금 유지’ 비중보다 높았으나, 75코호트부터 ‘저임금 유지’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노동 안정성 수준이 최근 코호트에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동 안정성 수준의 악화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0코호트에서는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보다 낮은 비중이었으나, 70코호트부터 이것이 역전되어 80코호트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

다음으로 <그림 30>은 가족배경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경향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른 청년층의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30> 아버지의 교육 수준 및 직업지위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변화

아버지 학력이 낮은 경우 최근 코호트에서 노동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유지’ 유형과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에의 분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저임금 유지’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은 비슷하게 유지됐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저임금 유지’ 유형은 70코호트에서 75코호트에서 급격히 증가해 80코호트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아버지 교육수준

이 전문대학 진학 이상의 고학력인 경우 각 유형별 변화는 앞의 두 집단과 유사했으나, ‘장기교육 임금 상승’과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의 비중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 불안정성 유형의 변화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 반면, 직업에 따른 분포의 변화는 다소 모호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지위에 따른 노동 안정성의 차이는 60코호트에서는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아버지 직업이 일반기술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저임금 유지’ 유형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 증가해 사무직이나 전문 관리직의 변화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저임금 유지’ 유형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80코호트에서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기술직 및 단순 노무직의 비중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문 관리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 다양성 및 안정성 수준의 변화

다음 <표 25>는 코호트별 이행 과정의 다양성과 안정성 수준 변화를 보여준다. 다양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지수는 60코호트에 비해 70, 75, 80코호트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상태변화의 횟수와 경험한 일자리의 개수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75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정성 수준을 보면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임시일용직 비중의 경우 80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저임금 근로 비중 역시 유사하였다.

<표 25> 코호트별 이행 과정의 다양성 및 안정성 수준 변화

		코호트			
		60	70	75	80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0.13	0.19	0.19	0.19
	상태 변화의 횟수	2.52	3.14	3.56	3.73
	경험한 일의 수	1.81	2.36	2.55	2.48
안정성 수준	임시일용직 비중(%)	10.48	11.88	11.75	13.44
	저임금 노동 기간(%)	32.95	36.88	47.08	54.14

다음 <표 26>은 총 노동기간 중 임시일용직 및 저임금 노동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보다 임시일용직과 저임금 노동에 종사한 기간이 더 많았다. 60코호트는 일한 기간 중 임시일용직에 종사한 기간이 10.5%였는데, 80코호트는 13.4%로 2.9%포인트 증가했다. 저임금 노동 기간은 60코호트 33.0%에서 80코호트 54.1%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19-29세 총 노동기간 중 임시일용직 및 저임금 노동 비중 변화

	임시일용직(%)				저임금 노동 기간 (%)			
	60	70	75	80	60	70	75	80
전체	10.48	11.88	11.75	13.44	32.95	36.88	47.08	54.14
여성	6.55	12.77	12.70	12.60	50.04	52.08	60.29	67.86
남성	12.69	11.31	10.86	14.28	23.32	27.19	34.56	40.5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27	14.34	13.33	15.44	42.4	42.26	55.49	58.29
전문대 졸업	7.89	8.40	10.37	13.05	37.06	42.11	54.31	58.76
4년제 대졸 이상	6.82	9.93	11.21	12.31	19.40	27.68	35.11	47.67
혼인상태								
미혼	12.46	11.75	12.37	15.87	32.78	38.16	49.33	56.89
기혼	9.78	12.27	10.80	9.67	33.47	37.01	45.14	49.61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85	12.31	11.75	15.51	35.95	37.87	52.50	58.38
고졸	7.39	9.73	11.50	12.14	30.32	34.63	41.27	53.79
전문대 이상	7.16	13.00	12.55	11.97	17.34	36.21	41.34	44.62
아버지 직업								
기술, 단순노무직	10.96	12.62	11.27	14.01	36.6	39.82	50.19	56.29
사무직	8.51	11.36	10.59	11.73	28.64	31.75	43.07	51.26
전문, 관리직	11.32	10.54	15.20	14.25	21.19	33.63	38.82	50.56
노동 안정성 궤적								
저임금 진입 이탈	7.13	12.83	12.72	19.64	73.54	65.17	79.05	77.62
저임금 유지	21.59	16.67	12.51	12.58	47.50	49.72	61.32	66.03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14.84	16.30	17.4	17.26	34.88	44.27	51.35	59.2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0.88	0.31	0.31	0.86	2.11	1.64	2.98	4.23
장기교육 임금 상승	1.68	1.86	2.44	1.57	4.96	3.97	5.81	4.04
중간진입 임금 상승	2.12	1.67	1.64	1.12	2.70	2.35	5.01	2.98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았으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특히 저임금 노동 기간 비중의 성별 격차는 60코호트에서 남성 23.3%, 여성 50.0%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후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혼은 기혼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임시일용직 혹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의 비중이 낮았으나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확인되었다. 60코호트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임시일용직과 저임금 노동을 경험하는 기간의 비중은 각각 6.8%와 33.5%였는데, 80코호트에서는 12.3%와 47.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고학력 청년들의 전반적인 노동 성과가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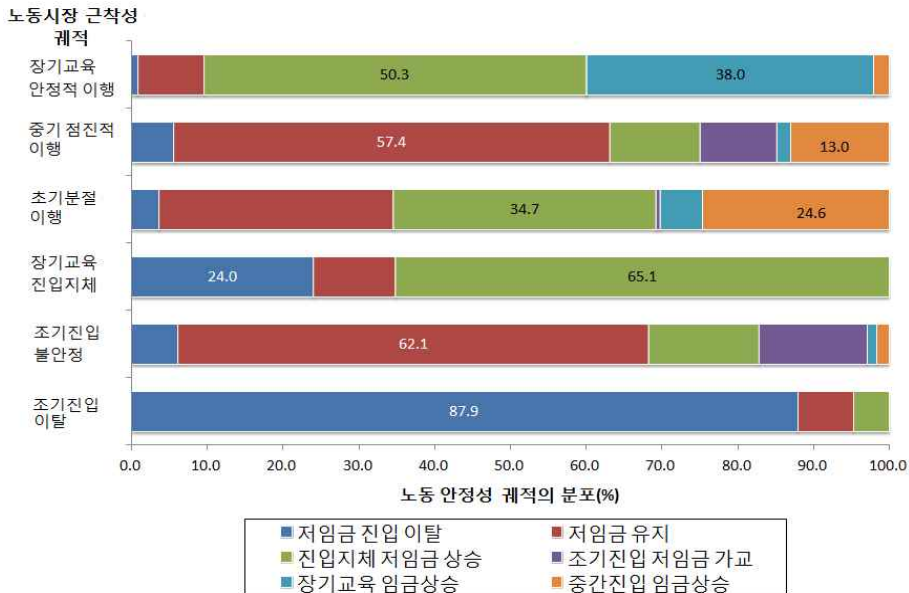
아버지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 혹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 격차는 과거코호트와 최근 코호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임금 노동 비중에서 변화가 관측되었다. 60코호트 청년층이 19-29세에 경험한 저임금 노동 비중은 아버지가 저학력인 경우에는 36.0%, 아버지가 고학력인 경우에는 17.3%로 그 차이가 약 18.6%포인트였는데, 70코호트에서는 그 차이가 1.7%로 급감하였고 75코호트부터 다시 상승해 80코호트에서는 부모 학력에 따른 저임금 노동 비중의 차이가 13.8%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배경이 자녀의 청년기 노동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아버지 직업지위에 따른 임시일용직 비중과 저임금 노동 기간 비중의 차이는 아버지 교육에 비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궤적 분포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며, 직업구조의 변화로 부모의 직업지위에 따른 유리함이 불분명해질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저임금 유지’와 ‘조기진입 저임금 상승’ 유형의 임시일용직 비중과 저임금 노동기간을 보면, 최근 코호트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안정성 궤적 유형의 분포뿐만 아니라 유형의 특성에서도 최근 코호트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궤적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은 유형이 증가하였으나,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더라도 노동 안정성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음을 변화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여기서는 두 궤적이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그러한 관계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31>은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기준으로 노동 안정성 궤적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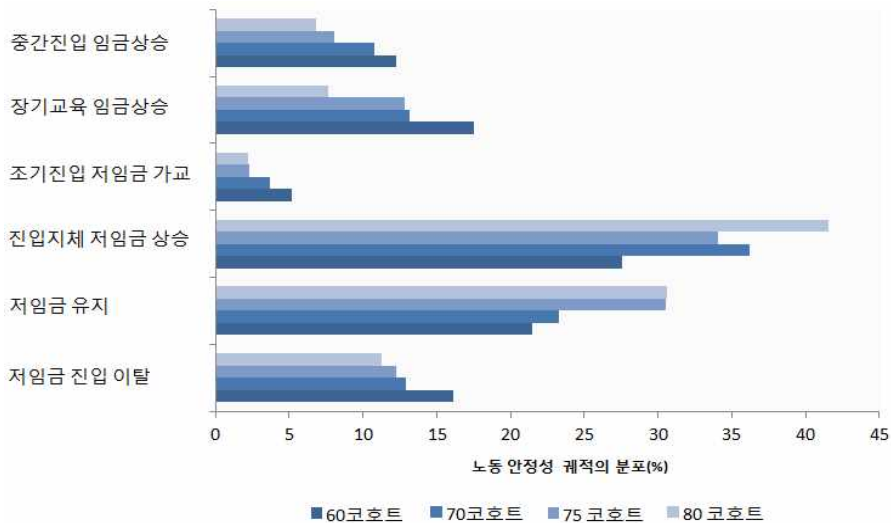


<그림 31>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교차 분포

먼저 노동시장 근착성이 ‘조기진입 이탈’ 유형인 경우 87.9%가 ‘저임금 진입 이탈’에 분포하였다. 둘째,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 중 62.1%는 ‘저임금 유지’ 유형에 분포하지만,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과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도 관측된다. 이처럼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 유형의 불일치

는 ‘초기분절 이행’,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에서 더 뚜렷하게 관측된다. 노동시장 근착성 ‘초기분절 이행’ 유형의 경우 노동 안정성이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34.7%였으며, ‘중간진입 임금 상승’인 경우도 24.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노동시장 근착성 ‘중기 점진적 이행’인 경우 57.4%가 노동 안정성 ‘저임금 유지’ 유형에 속하였으며, 일부인 13%만이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에 속하였다. 노동시장 근착성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인 경우 노동 안정성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과 ‘장기교육 임금 상승’인 경우가 많았다.

<그림 32>는 노동시장 근착성이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에 속하는 경우 어떤 노동 안정성 유형을 보이고, 그러한 분포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식화한 것이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노동 안정성 변화 유형이 ‘저임금 유지’이거나,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인 경우는 증가하고,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인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노동시장 근착성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의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표 27>은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상관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요약통계이다. 각 궤적은 노동시장 근착성의 변화 수준과 노동 불안정성의 변화 수준을 서열적으로 보여주므로 피어슨 상관계수와 더불어 비모수적 순서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켄달의 타우 b, 스피어만 상관관계 계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를 전제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서열이 높아질수록 노동 안정성 궤적의 서열이 높아지는지, 켄달의 타우 b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각 궤적의 서열적 순서가 일치하는지 보여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60코호트에서 0.54였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80코호트에서는 0.30이었다. 이는 과거에는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으면 노동 안정성이 높을 가능성이 컸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켄달의 타우 b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과거 코호트에서는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서열과 노동 불안정성 궤적의 서열이 일치하는 정도가 컸으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그 수준이 감소하였다.

<표 27>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상관관계 변화

	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Kendall's tau-b (τb)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60 코호트	777	0.5386	0.4348	0.5349
70 코호트	958	0.4707	0.3804	0.4673
75 코호트	1,720	0.4262	0.3660	0.4461
80 코호트	867	0.3078	0.2599	0.3116
전체	4,322	0.4288	0.3560	0.4357

4. 소결

4개의 출생코호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은 각각 6개로 유형화되었다. 각 궤적은 연령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 양상, 이행 상태의 다양성, 분절 수준, 안정성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첫째,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분포는 ‘대학재학-취업’ 이행을 경험하는 유형의 분포가 증가하고 20대 초반에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이 감소하였

다. 60코호트에서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21.4%였는데,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0코호트에서는 28.3%로 80코호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조기진입 이탈’ 유형과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은 급격히 감소하여 60코호트 13.1%였던 ‘조기진입 이탈’ 유형은 80코호트 5.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 졸업자에게서 더 명확하게 관측되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보면,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의 증가 추세는 모든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기진입 이탈’, ‘조기진입 불안정’ 유형의 분포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지위에 따른 분포 변화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비해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더디게 증가하였다.

한편, 궤적의 특성에서도 변화가 관측되었다. 노동시장 근착성의 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상태 변화 횟수와 미취업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의 상태 변화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는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증가하는 유형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 유형에서 드러나는 상태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업기간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노동 안정성 궤적 변화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에의 분포가 증가하고, 노동 안정성이 높은 유형에의 분포가 감소하였다. 장기간 교육을 거쳐 늦게 저임금 노동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진입 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은 70코호트 36.2%에서 80코호트 41.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을 마치고 중위임금 이상의 안정적 노동에 종사하는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70코호트 10.8%에서 80코호트 6.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궤적의 분포는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에 분포가 집중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최근 청년층의 교육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게 해준다. 노동 불안정성 증가는 남성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집단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 여성과 고졸 이하 저학력 집단은 ‘조기진입 이탈’ 유형의 증가를 통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른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에서 노동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은 유사했으나,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저학력인 경우는 ‘조기진입 이탈’ 유형, 전문대 이상 고학력의 경우는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아버지 직업지위에 있어서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궤적의 특성 변화에서는 저임금 노동 비중과 임시일용직 비중이 최근 코호트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들(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은 최근 코호트에서 저임금 노동과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장기교육 임금 상승’과 상향 유형에서는 임시일용직 비중과 저임금 노동 비중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가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외에 궤적의 특성에서도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관련성은 최근 코호트에서 약화되었다. 과거에는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을 하면 노동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이 컸지만 최근 코호트에서는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분절수준이 낮은 이행을 경험하더라도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 분석을 통해 최근 코호트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행 과정이 불안정하게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포착되는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에 있어서 각 요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근착성의 관계

1) 노동시장 근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8〉은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이다.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가장 큰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을 6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조기진입 이탈’ 유형을 1로 두고, 그 사이 4개의 궤적에 2부터 4의 값을 부여했다. 유형의 서열화는 〈그림 15〉의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양상(증감)과 〈표 15〉의 다양성과 분절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높다고 표기하였다. 순서로짓모형과 OLS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각 계수의 방향은 모두 동일했으나 계수의 크기는 OLS 모형이 다소 작았다. 분석 결과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순서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의 각 값을 가질 단위당 한계효과는 OLS 모형의 회귀계수와 방향과 일치하였다. 요인분해의 적용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OLS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⁵⁸⁾

58) OLS 모형의 계수는 서열로짓분석의 계수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요인분해 결과는 과소추정될 수 있으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8> 아버지 교육수준이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

	Ordered Logistic model				OLS			
	60	70	75	80	60	70	75	80
아버지 교육 (중졸 이하)								
고졸	0.347*	0.034	0.264**	0.214	0.302*	0.019	0.203**	0.197*
	(0.169)	(0.132)	(0.094)	(0.130)	(0.122)	(0.101)	(0.073)	(0.099)
전문대 이상	0.216	-0.113	0.226	0.361*	0.192	-0.091	0.212*	0.311*
	(0.214)	(0.195)	(0.133)	(0.183)	(0.154)	(0.145)	(0.099)	(0.1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611**	0.812***	0.740***	0.436**	0.548***	0.690***	0.576***	0.347**
	(0.198)	(0.158)	(0.110)	(0.149)	(0.154)	(0.124)	(0.088)	(0.116)
4년제 이상	1.201***	1.351***	1.252***	0.897***	0.875***	1.087***	0.925***	0.676***
	(0.163)	(0.137)	(0.107)	(0.158)	(0.118)	(0.102)	(0.078)	(0.110)
성별 (여)	1.583***	1.269***	1.091***	0.625***	1.251***	1.026***	0.837***	0.501***
	(0.134)	(0.119)	(0.086)	(0.124)	(0.099)	(0.092)	(0.065)	(0.089)
거주지역 (중소도시)	-0.080	0.025	-0.137	-0.151	-0.064	0.034	-0.116#	-0.131
	(0.129)	(0.113)	(0.085)	(0.119)	(0.096)	(0.088)	(0.066)	(0.089)
혼인상태 (미혼)	0.026	-0.150	-0.32***	-0.307*	0.015	-0.126#	-0.276***	-0.251**
	(0.127)	(0.108)	(0.082)	(0.120)	(0.097)	(0.086)	(0.065)	(0.091)
실업률	-0.149**	-0.009	0.007	-0.136	-0.111**	-0.006	0.006	-0.097
	(0.052)	(0.037)	(0.019)	(0.099)	(0.042)	(0.024)	(0.016)	(0.074)
Constant					3.015***	2.469***	3.199***	3.816***
					(0.310)	(0.155)	(0.147)	(0.556)
Pseudo R2	0.083	0.062	0.054	0.026	0.262	0.206	0.167	0.092
F					40.94	34.15	44.70	11.12
N	1,045	1,167	2,013	1,021	1,045	1,167	2,013	1,021

주 1) #: p<.10, *:p<.05, **:p<.01, ***: p<.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관련성은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0코호트에서는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이 0.302 더 높았는데 이는 70코호트에서 0.019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했다. 하지만 75코호트에서는 0.203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80코호트에서는 0.197로 소폭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가 전문대 진학 이상 고학력자에게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60코호트에서는 아버지가 전문대 진학 이상인 경우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인 경우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70코호트에서는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75코호트에서 이러한 경향이 변화하여 아버지가 고학력자인 경우 저학력자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이 0.212 더 컸으며, 80코호트에서는 0.313으로 증가하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청년 본인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코호트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수준이 0.548더 컸고, 70코호트에서는 격차가 더 커져서 0.690으로 증가하였으나, 75코호트부터 감소하여 80코호트에서는 0.34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4년 대학준칙주의 이후 대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 집단이 늘어난 것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의 경우도 유사했다. 60코호트에서는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이 0.875 더 높았으나, 80코호트에서는 0.676으로 감소했다.

성별의 영향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60코호트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1.251만큼 높았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여 80코호트에서는 0.501 높은 수준에 그쳤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혼인상태의 경우, 60코호트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70코호트부터는 계수의 방향이 음(-)으로 바뀌었고,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75코호트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은 0.276 낮았으며 80코호트에서는 0.251만큼 낮았다. 결혼에 이어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60코호트에서만 유일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은 0.1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는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은 아버지 교육 모형과 매우 유사했다. 성별 차이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점차 감소하며, 혼인상태가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지위가 미치는 영향은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5코호트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인 경우, 일반 기술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은 0.192 높았으며, 80코호트에서는 0.243 높았다. 한편, 전문 관리직의 영향은 80 코호트에서만 유의했다.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은 교육수준 모형과 유사하였다.

<표 29> 아버지 직업지위가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

	Ordered Logistic model				OLS			
	60	70	75	80	60	70	75	80
아버지 직업 (일반/단순노무)								
사무직	0.105 (0.167)	0.071 (0.150)	0.234* (0.100)	0.267* (0.135)	0.103 (0.124)	0.059 (0.111)	0.192* (0.078)	0.243* (0.101)
전문관리	0.070 (0.203)	0.175 (0.196)	0.116 (0.133)	0.383* (0.183)	0.067 (0.152)	0.118 (0.146)	0.117 (0.100)	0.341** (0.130)
교육 (고졸 이하)								
전문대	0.776*** (0.212)	0.779*** (0.170)	0.736*** (0.115)	0.392* (0.155)	0.663*** (0.165)	0.663*** (0.132)	0.582*** (0.092)	0.312** (0.120)
4년제이상	1.245*** (0.170)	1.326*** (0.147)	1.292*** (0.109)	0.834*** (0.166)	0.932*** (0.124)	1.065*** (0.108)	0.965*** (0.080)	0.630*** (0.115)
성별(여)	1.482*** (0.143)	1.314*** (0.127)	1.091*** (0.088)	0.515*** (0.131)	1.166*** (0.107)	1.058*** (0.097)	0.848*** (0.068)	0.427*** (0.094)
거주지역 (중소도시)	-0.056 (0.146)	0.001 (0.121)	-0.121 (0.089)	-0.190 (0.124)	-0.036 (0.108)	0.006 (0.094)	-0.107 (0.069)	-0.159# (0.093)
혼인상태 (미혼)	0.015 (0.138)	-0.208# (0.116)	-0.323*** (0.086)	-0.321* (0.126)	0.008 (0.104)	-0.163# (0.091)	-0.281*** (0.068)	-0.278** (0.097)
실업률	-0.142* (0.058)	-0.011 (0.039)	0.000 (0.020)	-0.150 (0.096)	-0.104* (0.046)	-0.007 (0.025)	0.001 (0.017)	-0.111 (0.072)
Constant					3.015*** (0.310)	2.469*** (0.155)	3.199*** (0.147)	3.816*** (0.556)
Pseudo R2								
R2	0.079	0.065	0.055	0.024	0.252	0.218	0.171	0.086
F					33.98	32.99	42.39	9.72
N	922	1,041	1,836	918	922	1,041	1,836	918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2)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근착성의 관계 변화

회귀계수의 비교만으로 각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의 실질적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요인분해를 적용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였다.

(1)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 변화

〈표 30〉은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 첫째, 60코호트와 70코호트는 경제 호황기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평균의 차이는 0.039로 미미하지만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총 효과 중 특성효과는 145.6%, 계수효과는 -45.4%였다. 이는 60코호트와 70코호트를 설명하는 관측된 변수의 특성 차이가 70코호트와 6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의 격차에 145.6% 기여하였으나, 계수의 영향 변화는 격차를 45.4%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60코호트 분석에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에 속할 확률이 30.2% 높았는데, 70코호트에서는 계수의 크기가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다. 요인분해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의 증가는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028만큼 증가시켰으나(총 격차의 70.5%),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 아버지 대비 고등학교 졸업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면서(-0.077, 총 격차의 -196.3%) 특성 변화의 영향이 상쇄되었다. 이는 아버지 교육수준의 상향화로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증가했으나, 동시에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⁵⁹⁾ 한편, OLS 모형(〈표 28〉)에서 60코호트에 비해 70코호트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계수 크기가 0.875에서 1.0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인분해 결과, 고학력 청년층의 증가로 인한 특성효과는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

59) 여기에서 모든 범주형 변수의 요인분해는 기준변수의 실제 평균으로 기준변수값을 고정 한 상태에서의 변화라는 점에서 기준변수 집단의 변화가 누락되며, 이로 인해 해당 변수의 계수효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모든 범주변수의 계수효과는 이러한 제약을 전제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요인분해에서 나타나는 누락 집단 문제(omitted group problem)에 대해서는 Fortin, Lemieux, & Firpo(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성 수준을 0.009만큼 증가시켰고(총 격차의 22.8%), 고학력의 영향력 변화는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079 증가시켰음(총 격차의 200.0%)을 알 수 있다. 60코호트와 70코호트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은 실업률의 영향력이다. 60코호트에 비해 70코호트는 경제적 호황기에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경험하였다. 요인분해 결과, 실업률의 계수 효과는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60코호트에 비해 0.651 더 크게 만들어서 두 코호트간 노동시장 근착성의 총 격차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70코호트와 80코호트는 경제 호황기와 경기 침체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 변동 이전과 이후 청년층이 경험한 노동시장 근착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70코호트와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의 차이는 0.514로 80코호트가 70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궤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 격차를 설명하는 총 효과 중 특성효과는 4.3%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이 계수효과(95.7%)에 의해 설명되었다. OLS 모형에서 70코호트 부모의 교육수준 계수는 0.019와 -0.019로 80코호트의 0.197, 0.311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인분해 결과 아버지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인 청년의 증가(특성 효과)는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004만큼 감소시켰으며(총 격차의 -0.8%), 고학력 아버지가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80코호트의 근착성 수준을 0.068만큼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총 격차의 13.3%).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청년의 증가는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0.004만큼 증가시켰으며(총 격차의 0.7%),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0.083 더 컸다(총 격차의 16.2%). 아버지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한 구성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 교육수준 영향력의 증대는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아버지를 중심으로 관측되었다.

<표 30> 아버지 교육수준과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의 관계 요인분해

	60코호트와 70코호트				70코호트와 80코호트				60코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C	%	C	%	C	%	C	%	C	%	C	%	C	%	C	%
평균차이	0.039				0.514				0.553				0.226			
총 효과	0.057	145.6	-0.018	-45.4	0.022	4.3	0.491	95.7	-0.049	-8.8	0.602	108.8	0.084	37.0	0.142	63.0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0.028	70.5	-0.077	-196.3	0.004	0.7	0.083	16.2	0.087	15.7	-0.049	-8.9	0.025	11.2	-0.003	-1.4
전문대 이상	0.002	5.5	-0.035	-89.8	-0.004	-0.8	0.068	13.3	0.011	2.0	0.020	3.7	0.004	1.6	0.017	7.5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036	90.7	0.026	65.0	0.065	12.7	-0.094	-18.3	0.087	15.8	-0.055	-10.0	0.017	7.5	-0.063	-27.9
4년제 이상	0.009	22.8	0.079	200.0	0.042	8.1	-0.168	-32.8	0.043	7.7	-0.081	-14.7	0.020	9.0	-0.102	-45.1
성별 (여성)	-0.045	-114.4	-0.136	-344.7	-0.103	-20.1	-0.264	-51.3	-0.171	-30.9	-0.377	-68.1	-0.005	-2.1	-0.169	-74.7
거주지역 (중소도시)	-0.007	-16.8	0.047	120.5	0.003	0.5	-0.093	-18.1	-0.012	-2.1	-0.038	-6.8	-0.005	-2.2	-0.008	-3.7
혼인 (미혼)	-0.002	-5.7	-0.076	-194.2	0.023	4.5	-0.045	-8.7	-0.005	-0.9	-0.095	-17.2	0.028	12.6	0.009	4.0
실업률	0.037	92.9	0.651	1655.7	-0.007	-1.3	-0.667	-129.9	-0.089	-16.0	0.103	18.6	-0.001	-0.5	-0.757	-335.1
Constant	0.000		-0.496	-1261.8	0.000		1.671	325.3	0.000		1.174	212.4	0.000		1.218	539.4
N	2,212				2,188				2,066				3,034			

주: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고학력자 증가는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높였으나(전문대 0.065, 4년제 0.042), 중학교 졸업자 기준 전문대 졸업자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영향력의 크기는 각각 -0.094, -0.168로 감소하였다. 성별의 영향을 보면, OLS모형에서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에 속할 가능성은 70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에서 더 작았다. 요인분해 결과, 70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의 여성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103 감소시켰으며(총 격차의 -20.1%), 성별의 영향력 하락은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264(총 격차의 -51.3%) 감소시켰다.

셋째, 60코호트와 80코호트는 경제적 조건, 노동시장 구조, 교육수준 등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30여년사이 발생한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80코호트는 60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에 속할 가능성의 차이는 0.553이었다. 총 효과 중 특성효과는 -8.8%였고, 계수효과는 108.8%로 두 코호트간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의 차이는 대부분 계수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 상승은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087(고등학교 졸업, 총 격차의 15.7%), 0.011(전문대 이상, 총 격차의 2%)만큼 높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인 경우에 비해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나타나는 노동시장 근착성의 차이가 감소해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0.049만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 고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에 위치할 가능성은 0.020(총 격차의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 확인된 부 교육수준 계수의 크기 증가는 대부분 아버지 교육수준 상향화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되고,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고등학교 졸업)와 증가(전문대 이상)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 성별, 혼인상태 등 기타 변수의 영향 변화는 다른 코호트간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75코호트와 80코호트는 교육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위기 시점과 바로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차이를 반영한다. 75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0.226 큰 것으

로 나타났고, 노동시장 근착성의 격차는 특성효과(37%)보다는 계수효과(63%)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는 75코호트와 80코호트의 특성에 큰 변화가 없음을 반영한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OLS 모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75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의 계수가 감소하고, 전문대 이상 졸업의 계수는 증가하였다. 요인분해 결과를 보면, 80코호트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교육수준의 상향화로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증가하였으나(고등학교 졸업 0.025, 총효과의 11.2%, 전문대 이상 0.004, 총효과의 1.6%),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를 둔 경우 영향력이 감소해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0.003(총 격차의 -1.4%)만큼 낮췄고, 전문대 이상 고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는 그 영향력이 증가해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017(총 격차의 7.5%)증가시켰다.⁶⁰⁾

다음 <그림 33>은 아버지 교육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효과, 계수효과의 계수값을 도식화한 것이다.

첫째, 1980년대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경험한 60코호트에 비해 1990년대 중반에 이행을 경험한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한 효과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근착성의 관련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분절과 경기침체를 경험한 80코호트는 70코호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한 고학력 청년의 증대는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높였으나, 교육수준의 계수효과는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특성효과보다는 계수효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80코호트는 70코호트에 비해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의 관련성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60코호트와 80코호트는 노동시장 조건과 교육수준 등 거시적 특성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요인분해 결과도 다소 혼재되어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고학력자의 증가는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높였으나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노동시장 근착성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그 영향력이 증가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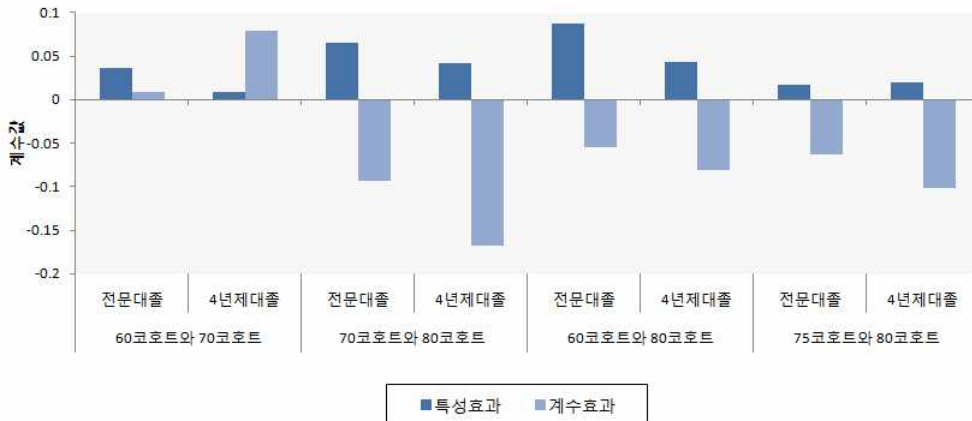
60) 모든 모형에서 절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미관측 요인에 의한 추세적 영향이 이행 과정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요인분해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버지를 둔 경우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를 둔 경우의 차이가 커졌으나, 전문대 이상 고학력 아버지의 영향은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교육수준이지만 외환위기 시점 전후 이행을 경험한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 교육수준의 특성 효과와 계수효과 모두 다른 코호트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계수효과는 더 감소하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 집단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아버지 교육수준



본인 교육수준



<그림 33> 아버지 교육수준· 교육수준 요인분해 결과

자료: <표 30>에서 아버지 교육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의 요인분해 계수값을 도식화한 것임.

(2) 아버지 직업지위 영향 변화

〈표 31〉은 아버지 직업지위가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보여준다. 각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총 효과 중 특성효과와 계수효과가 차지하는 비중, 직업지위 변수 이외 기타변수의 영향 변화는 아버지 교육수준 모형과 유사해 별도로 해석하지 않았다.

첫째, 70코호트는 60코호트에 비해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상향화 되었고(〈표 9〉 참조), OLS 모형에서 직업지위의 계수는 사무직은 감소하고, 전문관리직은 증가하였으나 두 코호트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요인분해 결과, 아버지의 직업지위 상향화는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미미하게 높인 것을 나타냈다. 사무직의 단순노무직 대비 특성효과는 0.003(총효과의 6.8%)이었으며, 전문관리직의 단순노무직 대비 특성효과는 0.001(총효과의 2.3%)였다. 한편 사무직이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은 0.012만큼 감소하고(총 격차의 26.5%) 전문관리직이 미치는 영향력은 0.007(총 격차의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70코호트와 80코호트의 OLS 결과를 보면, 80코호트에서 직업지위의 계수가 더 커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요인분해 결과도 이러한 계수의 변화와 일치했다.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의 비중 증대는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각각 0.002, 0.004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 대비 사무직이 노동시장 근착성을 높이는 영향은 8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을 0.058(총 격차의 11.9%)증대시키고, 전문관리직은 0.036(총 격차의 7.3%)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0코호트와 80코호트를 비교하면 70코호트, 80코호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70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는 직업지위 계수 효과의 크기가 사무직에서 더 컸는데, 60코호트와 80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의 계수 효과가 동일했다. 하지만 75코호트와 80코호트의 요인분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순노무직 대비 사무직의 계수효과는 0.016이었고 전문관리직의 계수효과는 0.036(총 격차의 17.1%)이었다. 80코호트에서 75코호트에 비해 부 직업이 노동시장 근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고, 이는 전문 관리직의 영향력 증가로 설명됨을 보여준다.

<표 31> 아버지 직업 지위와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의 관계 요인분해

	60코호트와 70코호트				70코호트와 80코호트				60코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C	%	C	%	C	%	C	%	C	%	C	%	C	%	C
평균차이	0.046				0.492				0.538				0.212		
총 효과	0.064	139.5	-0.018	-39.5	0.017	3.4	0.475	96.6	-0.081	-15.1	0.619	115.1	0.061	29.0	0.150
아버지 직업지위(일반기술 단순노무직)															
사무직	0.003	6.8	-0.012	-26.5	0.002	0.5	0.058	11.9	0.007	1.3	0.044	8.3	-0.001	-0.4	0.016
전문관리직	0.001	2.3	0.007	14.3	0.004	0.8	0.036	7.3	0.003	0.6	0.044	8.2	0.001	0.4	0.036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042	92.5	0.000	-0.1	0.066	13.3	-0.097	-19.6	0.108	20.1	-0.097	-18.0	0.018	8.5	-0.074
4년제이상	0.018	40.1	0.049	107.0	0.041	8.3	-0.177	-36.0	0.054	10.1	-0.123	-22.8	0.014	6.7	-0.136
성별 (여성)	-0.033	-72.4	-0.066	-144.5	-0.118	-23.9	-0.318	-64.7	-0.163	-30.3	-0.373	-69.3	0.001	0.7	-0.213
거주지역 (중소도시)	-0.004	-9.2	0.020	42.6	0.001	0.1	-0.090	-18.2	-0.007	-1.3	-0.066	-12.4	-0.003	-1.6	-0.028
혼인상태 (미혼)	-0.001	-2.6	-0.092	-201.5	0.029	6.0	-0.041	-8.4	-0.003	-0.5	-0.103	-19.1	0.031	14.8	0.001
실업률	0.038	82.0	0.603	1314.7	-0.008	-1.6	-0.766	-155.7	-0.081	-15.0	-0.053	-9.8	0.000	-0.1	-0.826
Constant	0.000		-0.525	-1145.5	0.000		1.870	379.9	0.000		1.345	249.9	0.000		1.374
N	1,963				1,959				1,840				2,754		

주: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2. 가족배경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

1) 노동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 안정성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도출한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각 궤적을 노동 안정성의 변화의 방향과 수준에 따라 서열적으로 배치하여 1부터 6의 값을 갖도록 했다. 유형의 서열화는 <그림 23>에서 확인된 노동 안정성의 양상(증감)과 <표 22>의 다양성과 안정성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노동 안정성 수준이 가장 낮은 궤적인 '조기진입 이탈' 궤적은 1의 값을 갖고, 노동 안정성 수준이 높은 '중간진입 안정' 궤적은 6의 값을 갖는다. 즉, 값이 클수록 노동 안정성이 높다.

<표 32>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19-29세에 관측되는 노동시장 안정성의 변화 유형(노동 안정성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관련성은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노동 안정성의 차이는 60코호트와 70코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는 계수의 크기가 커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했다. 한편, 아버지가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인 경우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의 노동 안정성 차이는 60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60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의 계수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코호트의 경우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0.216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80코호트에서 0.253 상승하였다. 60코호트에서 아버지가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인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0.451 높았으며 80코호트에서는 0.270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수준과 성별의 영향 변화는 노동시장 근착성 모형에서 확인한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는 60코호트에 비해 70코호트에서 증가하였으나,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는 일관되게 감소했다. 성별의 영향은 과거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시장 근착성 모형에서는 혼인상태가 노동시장 근착성을 감소시키는 영

향이 최근 코호트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동 안정성에 있어서는 미혼에 비해 기혼의 노동 안정성이 높고 그 계수는 최근 코호트에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아버지 교육수준과 19-29세 노동 안정성의 관계

	Ordered Logistic model				OLS			
	60	70	75	80	60	70	75	80
아버지 교육 (중졸 이하)								
고졸	0.226 (0.186)	0.237 (0.146)	0.356*** (0.101)	0.467** (0.145)	0.221 (0.149)	0.167 (0.108)	0.216** (0.071)	0.253** (0.091)
전문대 이상	0.563* (0.254)	0.146 (0.236)	0.315* (0.145)	0.469* (0.201)	0.451* (0.207)	0.145 (0.168)	0.151 (0.104)	0.270* (0.1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520 (0.288)	0.861*** (0.187)	0.564*** (0.123)	0.313 (0.172)	0.420* (0.200)	0.523*** (0.125)	0.365*** (0.080)	0.187# (0.104)
4년제 이상	1.112*** (0.222)	1.598*** (0.163)	1.411*** (0.119)	1.323*** (0.168)	0.976*** (0.165)	1.110*** (0.110)	0.912*** (0.077)	0.733*** (0.103)
성별(여)	1.779*** (0.189)	1.614*** (0.146)	1.551*** (0.097)	1.516*** (0.133)	1.237*** (0.121)	1.076*** (0.097)	1.023*** (0.064)	0.859*** (0.081)
거주지역 (중소도시)	0.049 (0.143)	-0.013 (0.127)	-0.145 (0.092)	0.010 (0.130)	-0.024 (0.116)	-0.032 (0.091)	-0.088 (0.065)	0.003 (0.085)
혼인상태 (미혼)	0.088 (0.144)	0.144 (0.123)	0.145 (0.091)	0.425** (0.135)	0.122 (0.123)	0.189* (0.094)	0.178** (0.064)	0.326*** (0.087)
실업률	-0.073 (0.091)	-0.014 (0.026)	0.023 (0.024)	-0.126 (0.093)	-0.064 (0.066)	-0.010 (0.023)	0.020 (0.016)	-0.059 (0.061)
Constant					2.892*** (0.548)	1.948*** (0.161)	1.685*** (0.150)	2.810*** (0.539)
Pseudo R2	0.093	0.094	0.090	0.087	0.252	0.234	0.211	0.175
R ²								
F					44.81	42.17	71.70	30.57
N	714	868	1,606	831	714	868	1,606	831

주 1) #: p<.10, *:p<.05, **:p<.01, ***: p<0.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둘째, 아버지의 직업지위와 노동 안정성의 관련성은 아버지 교육수준 모형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33〉).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인 경우 아버지가 전문 관리직인 경우 단순노무직 대비 노동 안정성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였고, 통계적 유의도도 제한적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한편, 아버지가 사무직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75코호트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60코호트에서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인 경우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비해 노동 안정성은 0.366 높았으나(.10 수준에서 유의미), 70코호트에서는 0.272, 75코호트에서는 0.179로 감소했고 80코호트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했다. 이는 노동 안정성 궤적 분포 변화에서 직업지위에 따른 궤적 분포의 차이가 점차 완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아버지 직업지위의 영향이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노동의 질을 반영하는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었다.

<표 33> 아버지 직업지위와 19-29세 노동 안정성의 관계

	Ordered Logistic model				OLS			
	60	70	75	80	60	70	75	80
아버지 직업 (일반기술, 단순노무직)								
사무직	0.141 (0.180)	0.073 (0.152)	0.292** (0.112)	-0.034 (0.150)	0.104 (0.143)	0.063 (0.110)	0.227** (0.079)	0.024 (0.100)
전문, 관리직	0.578* (0.243)	0.438* (0.212)	0.296* (0.142)	0.181 (0.213)	0.366# (0.205)	0.272# (0.159)	0.179# (0.105)	0.138 (0.137)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694* (0.326)	0.926*** (0.200)	0.524*** (0.129)	0.273 (0.182)	0.542* (0.220)	0.550*** (0.130)	0.349*** (0.085)	0.169 (0.110)
4년제 이상	1.024*** (0.235)	1.556*** (0.173)	1.341*** (0.124)	1.342*** (0.178)	0.916*** (0.172)	1.058*** (0.114)	0.878*** (0.081)	0.727*** (0.108)
성별 (여)	1.821*** (0.206)	1.749*** (0.161)	1.561*** (0.103)	1.481*** (0.145)	1.237*** (0.131)	1.123*** (0.102)	1.039*** (0.069)	0.807*** (0.088)
거주지역 (중소도시)	0.101 (0.158)	-0.165 (0.138)	-0.125 (0.096)	0.033 (0.138)	0.046 (0.130)	-0.117 (0.097)	-0.091 (0.068)	0.006 (0.090)
혼인상태 (미혼)	0.172 (0.154)	0.064 (0.130)	0.147 (0.095)	0.370** (0.142)	0.160 (0.133)	0.148 (0.097)	0.176** (0.068)	0.268** (0.093)
실업률	-0.136 (0.096)	0.000 (0.028)	0.034 (0.026)	-0.142 (0.109)	-0.116# (0.067)	0.000 (0.023)	0.028# (0.017)	-0.072 (0.073)
Constant					2.892*** (0.548)	1.948*** (0.161)	1.685*** (0.150)	2.810*** (0.539)
PseudoR2								
R ²	0.096	0.102	0.088	0.077	0.260	0.246	0.211	0.146
F					40.08	40.17	65.55	20.75
N	639	772	1,463	739	639	772	1,463	739

주 1) #: p<.10, *:p<.05, **:p<.01, ***: p<.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2) 가족배경과 노동 안정성 관계 변화

〈표 34〉와 〈표 35〉는 네 코호트 중 두 코호트를 선정해 각각 요인분해를 실시한 결과이다. 총 격차는 모두 음의 값으로, 최근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¹⁾

(1) 아버지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 변화

〈표 34〉는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 안정성의 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60코호트와 70코호트의 비교에서, 두 집단간 차이는 -0.105 였다. 특성효과와 -42% , 계수효과와 $+142\%$ 였는데, 이는 70코호트의 특성 변화가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수효과는 반대로 노동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버지 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해 고학력 아버지를 둔 사례가 증가하면서 7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이 높아졌으나,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등학교 졸업 -0.015 , 전문대학 이상 -0.033). 교육수준의 특성효과와 계수효과 모두 7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은 노동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높은 궤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70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은 0.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은 특성효과와 계수효과 모두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수준과 실업률의 계수효과(전문대졸 -0.100 , 4년제 이상 -0.154 , 실업률 -0.361)가 노동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80코호트의 경우 70코호트에 비해 교육수준의 정적 영향이 감소하면서 노동 안정성이 감소했으나,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갖는 유리함은 유지되거나 미미하게 커졌음을 보여준다.

61) 요인분해 결과의 %는 총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따라서 %가 음수인 경우는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가 양수인 경우는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이 더 낮으므로(노동 불안정성 수준이 높으므로) 총 격차가 음수로 나타나고, %가 음수인 경우는 최근 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을 높여서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는 최근 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을 낮춰서 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 아버지 교육 수준과 19-29세 노동 안정성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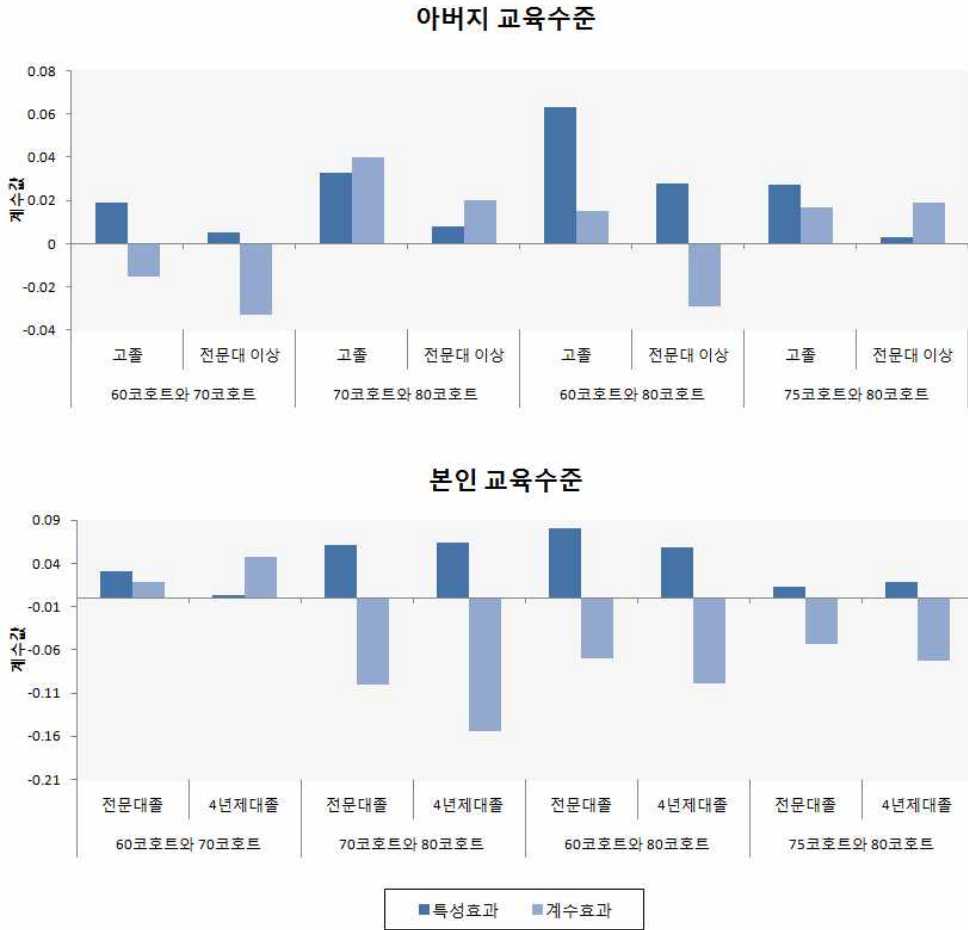
	60코호트와 70코호트				70코호트와 80코호트				60코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C	%	C	%	C	%	C	%	C	%	C	%	C	%	C	%
평균차이	-0.105				-0.246				-0.351				-0.121			
총 효과	0.044	-42.0	-0.150	142.0	-0.006	2.30	-0.240	97.7	-0.022	6.20	-0.330	93.8	0.029	-23.9	-0.150	123.9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0.019	-18.1	-0.015	13.8	0.033	-13.4	0.040	-16.4	0.063	-17.9	0.015	-4.3	0.027	-22.3	0.017	-14.2
전문대 이상	0.005	-4.3	-0.033	31.7	0.008	-3.1	0.020	-8.2	0.028	-8.1	-0.029	8.4	0.003	-2.3	0.019	-15.9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031	-29.0	0.019	-17.7	0.061	-24.8	-0.100	40.8	0.080	-22.6	-0.070	19.8	0.013	-10.9	-0.053	43.7
4년제 이상	0.003	-2.9	0.047	-44.7	0.064	-26.0	-0.154	62.5	0.059	-16.9	-0.099	28.1	0.019	-16.0	-0.073	59.9
성별(여성)	-0.016	15.0	-0.099	94.3	-0.119	48.5	-0.110	44.8	-0.153	43.5	-0.192	54.6	-0.006	4.9	-0.083	68.3
거주지역 (중소도시)	-0.003	2.6	-0.003	3.3	-0.003	1.1	0.019	-7.9	-0.005	1.4	0.015	-4.4	-0.003	2.6	0.051	-42.0
혼인상태 (미혼)	-0.019	17.7	0.039	-36.9	-0.037	15.2	0.053	-21.4	-0.043	12.2	0.078	-22.3	-0.020	16.7	0.057	-46.8
실업률	0.024	-22.9	0.328	-311.5	-0.012	4.9	-0.361	146.6	-0.052	14.7	0.031	-8.9	-0.004	3.3	-0.582	480.2
Constant			-0.432	409.5			0.352	-143.0			-0.080	22.8			0.496	-409.4
N	1,582				1,699				1,545				2,437			

주: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셋째, 80코호트는 60코호트에 비해 노동 안정성 수준이 0.351 낮았다. 특성 효과는 $-0.022(6.2\%)$, 계수 효과는 $-0.330(93.8\%)$ 로 두 코호트 차이의 대부분이 계수 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모두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OLS 모형에서 아버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0.221에서 0.253으로 증가하고, 전문대 이상 고학력의 영향은 0.451에서 0.27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해 결과는 OLS 계수의 크기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상승은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특성효과 각각 0.063, 0.028), 중학교 졸업 이하 대비 고등학교 졸업의 영향도 80코호트의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 이상은 0.0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를 함께 보면, 고졸 아버지의 영향은 특성효과와 계수효과 모두에서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높게 만들었으며, 전문대 이상 아버지의 영향은 특성효과가 계수효과로 상쇄되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코호트에 비해 80코호트의 전반적인 노동 안정성이 낮아졌는데,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이행에서 경험하는 유리함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80코호트는 75코호트에 비해 노동 안정성 수준이 0.121 낮았다. 특성 효과는 0.029, 계수 효과는 -0.150 로 특성 효과는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수 효과는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모두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고학력 아버지 비중의 증가는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 수준을 높이고(고졸 0.027, 전문대 이상 0.003), 고학력 아버지가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고졸 0.017, 전문대 이상 0.019)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인 교육수준의 영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상향화는 노동 안정성을 높였으나,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감소하면서(전문대 졸업 -0.053 , 4년제 대학 졸업 -0.073)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이 낮아지는데 기여했다. 실업률의 계수 효과가 매우 컸다. 75코호트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실업률과 노동시장 안정성의 관계가 모호해졌으나, 80코호트에서는 실업률이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분명해지면서 80코호트의 노동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은 아버지 교육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특성효과, 계수효과를 요약해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4> 아버지 교육수준· 본인 교육수준 요인분해 결과

자료: 〈표 34〉에서 아버지 교육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의 요인분해 계수값을 도식화한 것임.

전반적인 경향은 노동시장 근착성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낮았던 60코호트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교육수준이 상향화 되면서 아버지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60코호트와 70코호트, 60코호트와

80코호트). 하지만 교육수준 상향화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다시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70코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버지 직업지위가 미치는 영향 변화

다음 <표 35>는 아버지의 직업지위와 노동 안정성의 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직업지위가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최근 코호트인 80코호트에서는 직업지위 변수가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으므로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60코호트와 70코호트의 비교에서 아버지 직업지위 계수효과는 사무직 -0.011 , 전문관리직 -0.011 로 70코호트에서 직업지위가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70코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직업지위가 높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리함이 최근 코호트에서 사라지거나 모호해졌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의 영향은 아버지 교육수준 모형과 유사했다.

<표 35> 아버지 직업지위와 19-29세 노동 안정성의 관계 변화 요인분해

	60코호트와 70코호트				70코호트와 80코호트				60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특성효과		계수효과	
	C	%	C	%	C	%	C	%	C	%	C	%	C	%	C	
평균 차이	-0.141				-0.244				-0.385				-0.163			
총 효과	0.091	-64.4	-0.231	164.6	-0.036	14.9	-0.208	85.1	-0.089	23.1	-0.296	76.9	-0.001	0.7	-0.162	
아버지 직업지위 (일반기술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0.003	-1.9	-0.011	7.8	0.002	-1.0	-0.012	5.0	0.007	-1.7	-0.025	6.4	-0.003	1.9	-0.063	
전문관리직	0.007	-5.2	-0.011	8.2	0.011	-4.5	-0.022	8.9	0.022	-5.8	-0.037	9.6	0.004	-2.5	-0.007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043	-30.5	0.001	-1.0	0.064	-26.2	-0.115	46.9	0.106	-27.6	-0.112	29.2	0.013	-8.0	-0.054	
4년제이상	0.016	-11.4	0.049	-34.9	0.064	-26.0	-0.134	54.9	0.071	-18.4	-0.076	19.9	0.013	-7.7	-0.061	
성별 (여성)	-0.006	4.5	-0.072	51.1	-0.138	56.7	-0.161	66.0	-0.159	41.2	-0.219	56.9	0.002	-1.5	-0.118	
거주지역 (중소도시)	0.006	-4.0	-0.074	52.5	-0.010	4.0	0.066	-26.9	0.009	-2.5	-0.022	5.6	-0.002	1.2	0.052	
혼인상태 (미혼)	-0.026	18.2	-0.007	4.7	-0.029	11.8	0.046	-18.9	-0.057	14.7	0.042	-10.8	-0.022	13.3	0.035	
실업률	0.048	-34.2	0.709	-504.7	0.000	0.1	-0.526	215.3	-0.089	23.1	0.320	-83.1	-0.007	4.0	-0.732	
Constant			-0.816	580.8			0.650	-265.9			-0.167	43.3			0.786	
N	1,411				1,511				1,378				1,606			

주: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0-80년대 출생코호트(1962년생부터 1985년생)가 19세부터 29세까지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유형화하고, 코호트별 궤적의 분포와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다.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유형화

이행 과정 변화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을 통해 확인 하였다.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취업, 학생, 재학 노동, 노동으로 측정한 노동시장 근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노동 안정성 궤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과 종사상 지위로 측정한 노동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태 변화와 취업의 지속성을 반영하며, 노동 안정성은 노동의 질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모두 6개의 변화 유형이 확인되었다. 유형의 수와 경향(취업 지속형, 이탈형 등)은 기존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각 유형의 특성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⁶²⁾

62)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48-120개월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을 기준으로 132개월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즉각적인 비교가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5개에서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박진희와 김용현(2010)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1998년에 15-29세 청년의 10년간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지위 변화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7개의 집단(취업형, 노동시장 유지형, 노동시장 진입형, 비경제활동형, 노동시장 퇴장형, 노동시장 재진입형, 노동시장 진입 퇴장 반복형)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하였다. 김성남과 최수정(2012)은 교육고용패널자료의 2004년 고3을 대상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는 5개 유형(고졸 후 지속 미상, 대졸 후 취업형, 전문대 진학 후 지속 미상, 전문대 졸업후 취업형, 전문대학 및 미상혼합형)으로 특성화고

첫째, 노동시장 근착성의 변화 유형은 ‘조기진입 이탈’, ‘조기진입 불안정’, ‘장기교육 진입지체’, ‘초기분절 이행’,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등 총 6개 궤적으로 구분되었다. ‘조기진입 이탈’은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20대 중반 이후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며, ‘조기진입 불안정’은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하지만 일자리 상당부분이 임시일용직이고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이다. ‘장기교육 진입지체’는 장기간 학교에 머물다 20대 후반이 돼서야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초기분절 이행’은 20대 초중반까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취업을 경험하지만 20대 중반 이후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이다. ‘중기 점진적 이행’은 2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시장 근착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유지되고,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은 20대 초중반까지 학생 상태를 유지하다가 학업 종료 후 비교적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이다.

노동시장 근착성 증가, 감소를 기준으로 양 극단에 ‘조기진입 이탈’과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이 위치한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 근착성이 증가하는 궤적(초기분절 이행,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의 다양성이 크고, 분절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에 비해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졸업자가, 아버지가 저학력인 청년이 노동시장 근착성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한 ‘조기진입 이탈’, ‘조기진입 불안정’, ‘중기 점진적 이행’ 유형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노동 안정성 변화 유형은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 등 6개로 구분됐다.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20대 중반부터 미취업 상태가 증가하여 20대 후반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 ‘저임금 유지’ 유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20대 후반에 미취업 상태가 증가한다.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은 20대 중후반까

는 4개 유형(대학재학형, 고졸 후 지속적 미상형, 고졸 후 취업형)으로 구분하였다. 문혜진(2013)은 한국노동패널자료의 1990-1991년 졸업자와 2000-2001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유형을 분석하여 정규직형, 실직형, 미취업형, 미취업 경과 정규직형, 자영자 및 고용주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비교적 최근 코호트를 분석한 박미희와 홍백의(2014)는 청년패널자료의 2007년과 2008년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노동시장미진입형, 상급학교진학형, 장기준비형, 단기준비형, 불안정노동형, 상용이탈형, 상용지속형 등 7개로 유형화하였다.

지 학교에 다닌 뒤 미취업상태를 거쳐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유형이다.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은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는데 20대 후반에 미취업 상태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은 20대 중반 이후까지 학교를 다니다 중위임금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다.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20대 초중반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를 유지한다.

노동 안정성 증가, 감소 정도에 따라 양 극단에 ‘저임금 진입 이탈’과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이 위치한다.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은 미취업 상태 비중, 임시일용직으로 일한 기간, 저임금 노동, 중위임금 미만 일자리에 종사한 기간이 짧았다.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첫 번째 연구문제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이 탈표준화되었는가?’는 코호트별로 궤적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고, 전체 코호트에서도 출된 궤적의 분포와 특성이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코호트는 서로 다른 거시경제 조건과 특성을 보이며 그로 인해 이행 과정의 분포에도 변화가 포착되었다. <표 36>은 코호트의 특성에 따른 이행 과정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60코호트는 민주화와 낮은 경제발전 수준으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크고, 노동시장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구성되기 이전에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했으며,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비교적 빠르다.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 유형(궤적)은 ‘조기진입 이탈’과 ‘초기분절 이행’에, 노동 안정성 변화 유형은 ‘저임금 진입 이탈’, ‘중간진입 임금 상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코호트의 경우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이행 과정이 명확히 구분됨을 보여준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주로 여성)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 감소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주로 남성)은 그 반대의 이행 과정을 경험한다.

<표 36> 코호트 특성에 따른 이행 과정 변화

	코호트 특성			이행 과정의 특성		
	경제 조건	노동 시장	교육선별성 (교육수준)	진입	증가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증가한 노동 안정성 궤적
60	호황	안정	중(낮음)	빠름	조기진입 이탈 초기분절 이행	저임금 진입 이탈 중간진입 임금 상승
70	호황	안정	상(중간)	빠름	장기교육 진입지체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75	위기	불안정	하(높음)	늦음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이행	저임금 유지
80	침체	불안정	하(높음)	늦음	초기분절 이행 장기교육 안정이행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주: 이행 과정의 특성에서 ‘증가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증가한 노동 안정성 궤적’은 직전 코호트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높은 궤적을 표기한 것임. 단, 60코호트는 전체 궤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궤적을 표기함.

70코호트는 경제적 호황기, 그리고 노동시장도 안정적 일자리 기회가 많은 시기에 이행을 경험했다. 교육수준은 60코호트에 비해 높아졌으나, 대다수가 저학력 집단이어서 교육의 선별성이 컸다. 또 60코호트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노동 안정성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유형이 더 많이 관측되었다. 이는 경제적 호황기, 교육의 선별성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행 과정이 안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75코호트는 외환위기와 교육수준이 급격히 높아져 대학의 선별성이 약화된 시기에 이행을 경험했다. 70코호트에 비해 이행 시기가 느려졌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은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에 주로 분포했다.

80코호트는 75코호트와 교육수준은 비슷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한 시기에 이행을 경험했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75코호트와 유사하지만, 노동시장 근착성은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과 ‘초기분절 이행’ 유형이, 노동 안정성은 ‘저임금 유지’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 증가했다.

3.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 관련성 변화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련성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앞에서 도출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로짓모형과 일반회귀모형(이하 OLS)을 이용해 각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변화는 요인분해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행 과정의 변화는 개인 특성과 가족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7>은 위에서 확인한 불안정 이행의 증가가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주로 관측되는지 보여준다. 다양성은 대체로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여전히 낮았지만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근착성 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의 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노동 안정성이 낮아졌고, 분절수준도 남성에 비해 더 크게 증가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포의 변화가 관측됐다. 이는 청년층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학력 청년이 경험하는 이행 과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37> 개인 특성에 따른 이행 과정 변화

		노동시장 근착성		노동 안정성		분절 수준	다양성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성별	남성	-	++	+	-	+	+
	여성	--	+	++	-	++	+
교육 수준	고졸 이하	--	+	++	-	++	+
	전문대졸	-	++	+	-	++	+
	4년제졸	-	+	+	--	+	+
부 교육 수준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전문대	-	++	+	-	+	+

주: 과거 코호트에서 최근 코호트의 해당 특성을 갖는(증가 혹은 감소) 궤적의 분포가 감소하면 (-), 증가하면 (+)로 표기했고 증감의 정도가 더 크면 (++) (--로 구분하였음. 단 60 코호트는 비교할 과거 코호트가 없으므로 해당 궤적 비중이 크면 (+), 작으면 (-)로 표기.

이행 유형의 요인분해도 위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38>은 OLS 분석에서 나타난 변수의 영향(정적 혹은 부적 영향)의 증가 혹은 감소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한 것이다.

<표 3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유형 요인분해 결과 요약

		OLS 계수방향	요인분해		이행 과정 변화	
			특성효과	계수효과	근착성	안정성
부교육 (중졸 이하)	고졸	+	+	+	증가	증가
	전문대	+	+	△	증가	증가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졸	+	+	-	증가	감소
	4년제졸	+	+	-	증가	감소
성별 (여성)	남성	+	-	-	감소	감소
혼인상태 (미혼)	기혼	- (안정성+)	-	+	증감	증감
실업률		-	△	△	증감	증감

아버지 교육수준은 일부 코호트간 비교(60과 70코호트, 60과 80코호트에서 고학력)를 제외하고, 특성효과와 계수효과가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저학력에 비해 고학력 아버지를 둔 청년의 유리함이 미미하지만 증가하거나 유지됨을 뜻한다. 교육수준 상향화는 특성효과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을 높였으나, 계수효과에서는 그 영향이 감소해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성별의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는 모두 감소하여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을 감소시켰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있어서 남성의 유리함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혼인상태와 실업률의 영향 변화는 다소 혼재돼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노동시장 근착성을 높이지만 노동 안정성은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은 특정 코호트에서만 영향이 변화했는데, 경제성장세가 강했던 70코호트 혹은 외환위기로 하락세가 이어진 75코호트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이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

제 2 절 논의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

첫째,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고,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높은 궤적에 속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가 65%를 넘어선 75코호트와 80코호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대학 재학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형적 유형의 비중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다. 한편, ‘대학재학-취업’이라는 전형적이고 단선적인 유형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탈표준화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시장 근착성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궤적의 엔트로피와 상태 변화 횟수가 높았고, 미취업 기간의 비중은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증가했다. 이는 최근 코호트에서 여전히 단선적 유형이 가장 많이 관측되지만 유형의 특성에 있어서 분절 수준과 다양성이 증가함을 확인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rzinsky & Solga, 2016; Schoon et al., 2001; Virtanen et al., 2011; Van Winkle & Fasang, 2016). 이행 유형의 분포 변화와 더불어 특성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시장 근착성의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 일자리의 증대와 경기침체를 경험한 80코호트에서 상태변화 횟수가 많고 상태구성의 다양성이 큰 ‘장기교육 진입지체’와 ‘초기분절 이행’ 유형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노동 안정성 궤적에서도 유사했다. 80코호트는 4개의 코호트 중 상태변화 횟수, 엔트로피, 경험한 일의 개수가 가장 많은 ‘조기진입 이탈’ 궤적과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궤적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경제불황 시기에 이행을 경험한 코호트는 다양성이 크고 분절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1.2>를 지지한다.

셋째,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낮은 궤적에 분포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호트에서 임시일용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해 이행 과정의 불안정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3>을 지지하는 결과다. 기존 연구는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에 비해 안정

적 이행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권혁진·유호선, 2011; 박미희·홍백의, 2014). 본 연구에서는 단일 코호트를 분석할 경우 저학력 집단에 비해 고학력 집단의 유리함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고학력 집단의 유리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분절 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경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문혜진, 2013; 최지원·정진철, 2015). 교육수준의 상향화는 노동시장 근착성의 변화에 있어서 ‘대학재학-취업’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행을 증가시켰으나, 궤적의 다양성과 분절 수준이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호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동 안정성 악화는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는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의 계층화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은 교육수준 상향화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해졌다. 관련하여 성별과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배경의 영향 변화가 두드러졌다.

가족배경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70코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호트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근착성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진학 이상 고학력인 경우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은 궤적을 경험했다. 노동 안정성 궤적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직업지위는 노동시장 근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코호트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직업지위보다는 교육을 통해 세대간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방하남·김기현, 2001, Davis-Kean, 2005; Duncan & Hodge, 1963).⁶³⁾

둘째,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낮았던 60코호트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

63) 이는 직업지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일 수 있다. 유흥준과 김월화(2006)는 2000년 직업을 소득과 교육을 이용해 직업분류별 직업지위를 도출해 1975년의 값과 비교했는데, 전반적인 직업지위 상승을 확인했다. 직업지위 상승은 세대간 이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지위의 상승으로 인해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음을 보고하고 있다(Menés, 2017).

시장 근착성 궤적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60코호트와 70코호트).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족배경의 직접효과가 감소하고 교육수준을 통한 간접효과가 이를 대체한다는 세대간 이동성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교육수준 상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인 70코호트 이후 교육수준의 영향이 감소하고, 다시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커졌다(70코호트와 80코호트, 75코호트와 80코호트의 비교).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이행의 관련성이 지속되어 이행 과정이 계층화 된다는 <가설 2.2>를 지지한다.

셋째, 노동 안정성 궤적과 가족배경의 관계 변화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의 결과와 유사했다. 다른 코호트에 비해 고학력자 비중이 낮고 호황기를 경험한 60코호트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노동 안정성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교육기회가 확대되기 전 ‘가족배경-교육성취’의 관련성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교육수준이 높아진 70코호트와 75코호트에서 다소 감소하다가, 80코호트에서는 다시 증가했다. 80코호트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대학교육의 선별성이 떨어지고, 좋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일자리 경쟁이 증가한 시기에 이행을 경험하였다. 80코호트에서 아버지 교육의 영향력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교육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최근 코호트에서 이행 과정과 가족배경의 관련성이 줄어든다는 개인화 가설에 배치되는 결과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계층간 이행 차이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⁶⁴⁾

한편, 청년층의 교육수준 상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이행 시기는 늦어졌지만 ‘대학재학-취업’이라는 전형적인 유형을 거치는 청년층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행 유형의 분절수준과 다양성이 커졌다. 대졸자 증가는 교육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전형적 이행을 통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가족배경의 영향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불안정한 이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아버지가 고학

64)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노동 안정성 궤적을 종속변수로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을 통제변수에 추가한 통합모형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과 노동 안정성 궤적의 관련성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작아졌다. 아버지 교육의 영향은 노동 안정성 모형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을 제외한 가족배경 총효과 모형에서도 확인되었다(<부록 5>).

력인 경우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 높은 이행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행 과정의 남녀 격차는 감소했다. 요인분해에서 성별이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코호트에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호트간 이행 과정 차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근로를 지속하는 궤적에 분포했으며,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도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상향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순미, 2015; Brzinsky-Fay & Solga, 2016).

실업률 변화로 측정한 거시경제적 변화가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코호트에 비해 70코호트에서 실업률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70코호트는 민주화 이후 3저 호황 시기여서 청년 실업률이 낮았는데, 이는 70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거시경제적 조건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이행 과정의 어려움이 청년층 전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행의 어려움은 전통적 노동 취약집단인 여성, 저학력자에게서 집중적으로 확인됐으며, 가족배경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가족배경과 이행 과정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choon, 2011; Schoon & Silberreisen, 2009; Smith, Crosnoe, & Chao, 2016; Vuolo et al., 2014). 특히 영국 청년층의 이행 과정 계층화를 분석한 Schoon(2010)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상승으로 인해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이 겪는 이행의 어려움이 커졌고, 이행의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 양상이 발견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갖출 여력이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행 과정이 분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청년층에게서도 이행의 양극화가 관측됨을 보여준다.

제 3 절 정책 제언

청년층의 순조로운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은 가족배경에 의해 계층화되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한 최근 코호트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이행 과정의 어려움이 가족배경이 불리한 집단에 집중됨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 지원정책은 보편적 수당, 혹은 특정 교육훈련이나 단기간 직업체험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당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당은 보통 30만~5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일자리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가구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들의 이행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들은 이들이 불안정한 경로를 경험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경로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Furlong & Cartmel, 2009).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직업군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정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을 생애과정의 변화로 인식하고 청년층이 경험하는 생애과정의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한정돼 있었으며, 사회정책 전반적으로도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⁶⁵⁾ 최근 청년층의 이행 과정은 낮은 노동시장 진입, 높은 다양성과 분절 수준, 일자리 안정성 악화로 설명된다. 한국 청년층의 이행 과정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일자리 증대, 그리고 교육수준 상향화에 대응하면서 변화했다. 이행 과정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거시적, 미시적 요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

65)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학교 밖 청년이나 한부모 청년 등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층 전체를 포괄하더라도 그 범위가 고용정책, 주거복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성과 역시 미미하다. 일례로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모두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제공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 그러나 최근 청년층을 표적집단으로 한 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로 설명되며, 이는 생애과정의 변화로 이어진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이행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후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전 노동생애의 경제적 안정성을 하락시킬 수 있다. 청년층의 이행 과정 변화를 인구 고령화처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이행 과정의 성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성별 격차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통적 성역할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혼재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여성의 이행 과정은 출산과 결혼 등의 생애사건에 더 민감하다. 최근 관측되는 출산과 결혼의 연기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의 불안정한 이행은 전체 경향에 반하는, 즉 이른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들로 인한 효과일 수 있다.⁶⁶⁾ 한편 노동성과의 성별격차에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청년층의 이행 과정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청년의 생애과정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최근 코호트 여성 노동 안정성이 낮은 유형이 크게 증가했다(<그림 28>). 이는 노동시장 성과 혹은 노동경력에의 성별 격차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여성 내부 격차의 증대와 일관된 결과다. 다른 여성에 비해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이행을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수준의 상향화는 과거에는 청년층의 노동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감소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이행 과정이 분화되고, 대학교육 만으로 안정적 이행이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저학력 청년층의 불리함은 과거에 비해 더 가중될 수 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그림 17>), 노동 안정성도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코

66) 생애과정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이른 시기 부모가 되는 것(조기출산), 조기 결혼 등이 이후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추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다.

호트에서 더욱 심화됐다(〈그림 25〉). 청년 고용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년집단 내부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불리한 정도가 심한 취약집단에 초점을 맞춘 고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저학력 청년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들은 비숙련 노동이 임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다. 저학력 집단이 종사하는 비숙련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 4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그간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확인하고, 그 변화가 가족배경과 다른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청년층의 이행 과정을 19세부터 29세 시점에 관측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의 변화로 유형화해 이행 과정의 질적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냈다. 그간 이행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 관측된 이행 사건을 분석하거나, 이행 과정을 분석하더라도 분석방법의 한계로 이행 유형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 노동경력으로서의 이행 과정을 확인해 연령구조에 따른 이행 과정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을 기반으로 출생코호트의 이행 유형 변화를 비교 분석해, 연령 변화에 따른 이행 과정의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청년층 이행 과정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기존 연구들은 배열분석을 이용해 이행 과정을 유형화하고, 유형의 분포나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는 집단기반귀적분석을 이용해 유사한 이행 과정을 보이는 집단을 구분해, 그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호트간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귀적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지를 체계적 모형을 적용해 확인하였다. 이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 묘사에 그쳤던 기존 이행 과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셋째, 이행 과정은 부모가구에 속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지위획득 과정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 메커니즘을 미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행 과정이 불안정해지는 변화가 모든 청년층에게서 보여지는 보편적

현상인지, 또는 가족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명료한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을 적용하지 않아 가족배경이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행 과정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이 관측됐다. 최근 청년층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이행 과정의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을 불평등의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 5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분석방법, 분석자료, 분석모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단기반귀적분석은 유형의 귀적함수는 모수적으로 추정하지만, 모집단을 설명하는 최적 유형 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판단하므로 도출된 유형이 실제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변화를 각각 6개의 귀적으로 유형화했으나, 모집단 안에는 그 이상의 다양한 귀적이 존재할 수 있으며 혹은 더 적은 수의 귀적이 실제 모집단의 이행 특성을 반영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존하는 귀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모형 적합도가 좋은 귀적의 수와 함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귀적은 하나의 결정된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한 값 중 통계적, 이론적 설명력이 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자료 직업력과 교육력 자료의 상당 부분이 회고자료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신규 조사자를 포함해 분석했으므로 모든 코호트에 회고자료가 있는 사례가 있다. 특히 60코호트는 모든 사례의 일자리 정보에 회고자료가 포함된다. 60코호트의 이행 과정은 회고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다른 코호트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60코호트와 다른 코호트의 비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직업력과 교육력을 이용해 이행 과정의 변화를 측정했기 때문에 노동과 교육 이외의 다양한 상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비경제활동 상태인데,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는 취업준비 양상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최근 코호트의 노동시장 근착성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미취업 중 취업준비, 직업훈련 등의 상태를 포함하기에, 노동시장 근착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근착성 변화는 잠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코호트를 75코호트, 80코호트와 90코호트로 확장하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세분화해 구체적인 이행 과정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가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코호트별 이행 과정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이행 과정은 청년 노동시장, 경제환경 등에 민감해 거시적 요인으로 인한 이행 과정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모형에 거시적 변수(청년실업률)를 반영했으나 거시적 환경의 추세적 영향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이행 과정 변화는 과대추정됐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도출된 공통된 궤적을 중심으로 이행 과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때문에 성별, 교육수준 등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 과거에 비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각 특성 집단에서 드러나는 궤적의 이행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이행 과정의 미시적 변화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행시기 연장으로 인한 최근 코호트의 우측절단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최근 코호트는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이 이뤄지는 연령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최근 코호트의 경우 과거 코호트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완결되는 연령시점이 늦으므로 우측절단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서구의 일부 연구들은 연령대를 40대까지 연장해 노동시장 진입 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진입시기가 느린 최근 코호트의 노동성과(임금, 직업지위)가 과거 코호트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한다(Brzinsky-Fay & Solga, 2016). 추후 자료가 누적되면 29세 이후의 이행 과정을 분석대상에 포함해 생애과정 변화가 30대, 40대 등 이후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분석 결과를 모든 청년층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간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갖는 강점이 크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패널 자료는 최근 코호트 분석만 가능하므로 과거와 현재 청년층의 이행 과정 변화를 드러내기 어렵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행 과정을 분석했을 때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 관측된다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 2014 임금보고서: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고용노동부. (2017). 고용복지연계 10대 과제. 고용노동부.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권재기. (2012). 범주형 혼합모형의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의 평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권재기, 김진호. (2011). 청년기 직업결정의 변화양상에 따른 진로특성 변화 및 예측: 대학 4년간의 진로고민·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진로특성. 직업능력개발연구, 14(1), 49-74.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 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기현. (2003a).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2), 65-93.
- _____. (2003b). 조기진입 이탈 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KLIPS Research Brief, 3, 1-12.
- _____. (2015). 청년층 고용.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5(3).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워킹페이퍼. 2017(8).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배진우, 손원빈. (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낙년. (2017). 한국에서의 부의 상속: 1970-2014. 경제사학, 41(2),

127-160.

- 김민정. (2014).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2(30). 현대경제연구원.
- 김복순, 정현상. (2016).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리뷰, 2016(1), 91-108.
-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집, 35(2), 25-41.
- 김선빈, 장용성, 강태수. (201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22(1), 1-34.
- 김성남, 최수정. (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3), 277-299.
- 김성식. (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27-47.
- 김성중, 성제환. (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태, 전영준, 임병인. (2013). 한국교육고용패널로 본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6(2), 1-28.
- 김성훈. (2011).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7(2), 5-25.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연아, 정원오. (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비판사회정책, 50, 334-377.
- 김영재, 정상완. (2013).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 소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3(2), 1-20.
- 김유빈. (2017).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 노동리뷰, 2017(3), 15-21.
- 김유선. (2010). KLSI 고용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위정, 김양분.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위정, 김왕배.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정숙. (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141-165.

- 김종성. (201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계층화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별 부모의 개입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종성, 이병훈. (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296-330.
- 김종성, 이병훈, 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조기진입 이탈 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
- 김진주, 조민효. (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 35-65.
-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운, 민인식. (2015).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전환에 관한 연구: 다중상태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단일호), 195-222.
- 김혜연. (2010a).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의 생애 노동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 코호트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141-169.
- _____. (2010b).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1), 233-259.
-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 남재량, 김세움. (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 (NEET) 의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이철인, 전영준, 우석진. (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남춘호. (2011).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추세 분석. 경제와 사회, 92, 305-350.
- _____. (2015).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성들의 성인이행배열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1), 139-174.
- 노용환, 신종각. (2007).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45-65.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 39(4), 109-134.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문혜진, 변금선, 구인회. (2015). 대학진학에서 가족소득 역할의 변화에 관한 연구. 1-17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 이선형. (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III):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재, 반정호. (2008). 청년층의 조기진입 이탈 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3(4), 1-28.
- _____.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163-190.
- 박소영. (2015). 학력의 교육투자수익률과 학력내 불평등의 추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4, 167-192.
- 박지애, 남춘호. (2015). 학교-직장 이행 과정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지역사회학, 16, 149-189.
- 박진희, 김용현. (2010). 경제활동 및 직업이력 유형별 경력개발경로 분석: 경력초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반정호. (2006).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에 대한 고찰. 노동리뷰, 통권, (13), 52-62.
-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학, 35(3), 1-30.
- _____. (2002). 기회와 불평등,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방하남, 이영면, 김기현, 김한준, 이상호. (2007). 고용의 질: 거시, 기업, 개인 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배호중, 안준기. (2011).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 99-124.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 사회정책, 21(2), 57-90.
- 변금선. (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373.
- _____.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 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 성지미, 안주엽. (2012).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한국경제연구, 30(3), 5-46.
- 신동균. (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준. (2013).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와 학업성과. The HRD Review. 16(5), 76-91.
- 신우진. (2015). 2000년 이후 저임금 비중 변화의 요인분석. 사회경제평론, 7-40.
- 안종범, 전승훈. (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119-142.
-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양재진. (2003).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7(3), 403-428.
- 양정승.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35(2), 79-115.
-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 28(2), 53-80.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호영. (2005). 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28(3), 1-37.
- 우해봉. (2012). 청년층의 이직 과정 분석 : 교육수준별 및 종사상지위별 차이를 중심으로.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 우해봉, 윤인진. (2008).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225-250.
- 유홍준, 김기현, 오병돈. (2014).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 (1983~ 2012). 노동정책연구, 14(3), 1-36.

- 유홍준, 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윤윤규, 이병훈, 이성균, 신광영. (2008).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 박진, 권영인, 정수남.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 연구 II -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경희. (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노동리뷰, 147, 77-91.
- 이규용, 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 이병훈, 신광영, 송리라. (2016).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 분석. 노동정책연구. 16(4), 37-64.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이순미. (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 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한국사회학, 48(2), 67-106.
- _____.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은, 김태종. (2012). 저소득층의 대학진학 제약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5(3), 51-81.
- 이주호, 정 혁, 홍성창. (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46. 한국개발연구원.
- 이찬영. (2012). 4년제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와 교육성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5(3), 1-25.
-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한국사회학, 34(3), 671-708.
- _____. (2008). 청년층의 학교 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 106-139.
- 장지연, 양수경, 이택면, 은수미. (2008). 고용 유연화 와 비정규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현. (2010). 한국에서의 국가-자본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그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4(3), 203-231.
- 전병유. (2005).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고용양극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 김유선. (2011). 노동시장 유형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경제와 사회, 275-304.
- 정진호, 이규용, 최강식. (2004). 학력 간 임금 격차 의 변화 와 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조우현. (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67-89.
- 최은영. (2012). 소득계층별 교육과 가구소득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0(3), 23-42.
- 최지원, 정진철. (2017). 청년층의 경력 유형 연구: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의 비교.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0(2), 25-60.
- 최지은, 홍기석. (2011).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143-163.
- 최효미. (201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 노동정책연구, 14(1), 1-33.
- 통계청.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 한국노동연구원 (2008). 청년층 저임금근로 국제비교. 노동리뷰, 44, 81-82
- _____. (2017a). 한국노동패널조사 유저가이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7b).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한 준. (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149-176.
- 한 준, 계봉오, 황선재. (2017). 한국 사회의 이동성 제고 방안.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함인희. (2007). 세대 분화와 세대 충돌의 현 주소.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

- 황수경, 정진호, 김승택, 남재량. (2005).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황여정, 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 연구, 11(2), 1-23.
- Aassve, A., Billari, F., & Piccarretta, R. (2007). Strings of adulthood: A sequence analysis of young British women's work-family trajecto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 369-388.
- Abbott, A. (2001). *Time Matters: On Theory and Metho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Aisenbrey, S., & Fasang, A. E. (2010). New life for old ideas: The second wave of sequence analysis bringing the course back into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 420-462.
- Allen, M., & Carter, C. (2007). Academic success determinants for undergraduate real estate students. *Journal of Real Estate Practice and Education*, 10(1), 149-160.
- Alwin, D. F., & McCammon, R. J. (2003). Generations, cohorts, and social change. in J. T. Mortimer & M. J.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pp. 23-49). Springer US.
- Angrist, J. D., & Pischke, J. S. (2008).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um, R., & Hout, M. (1998). The early returns: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rom school to work, in Y. Shavit & M. Muller.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pp. 471-510). Oxford University Press.
- Arrow, K. (1973).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193-216.
- Autor, D. H., Katz, L. F., & Kearney. M. S.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NBER Working Paper.
- Bacolod, M., & Hotz, V. J. (2006). Cohort Changes in the Transition from

- School to Work: Evidence from three NLS survey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5(4), 351–373.
- Barban, N., & Billari, F. C. (2012). Classifying life course trajectories: a comparison of latent class and sequence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Applied Statistics)*, 61(5), 765–784.
- Bauer, T. K., & Sinning, M. (2008).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o nonlinear models. *Advances in Statistical Analysis*, 92(2), 197–206.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London: Sage.
-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sation*. London: Sage.
- Becker, G. S.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2), 9–49.
- Bell, D. N.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Bell, D. N., & Blanchflower, D. G. (2010). UK unemployment in the great recession.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214(1), R3–R25.
- Ben–Ner, A., Kong, F., & Putterman, L. (2004). Share and share alike? Gender–pairing, personality, and cognitive ability as determinants of giv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5), 581–589.
- Bernardi, F. (2012). Unequal transitions: Selection bias and the compensatory effect of social background in educational career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2), 159–174.
- Besen, E., & Pranksy, G. (2014).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productivity loss trajectori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6(12), 1249.
- Billari, F. C. (2001). The Analysis of Early Life Courses: Complex Description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8, 119–142
- Black, S. E., & Devereux, P. J. (2011). Recent developments in

- intergenerational mobilit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4, 1487–1541.
- Blanchard, P., Bühlmann, F., & Gauthier, J. A. (Eds.). (2014). *Advances in Sequence Analysis: Theory, Method, Applications* (Vol. 2). Springer.
- Blanden, J., Gregg, P., & Machin, S. (2005).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Report supported by the Sutton Trust,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Blau, P. M., & Duncan, O. S.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 London: Wiley.
- Blinder, A.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 436–455.
- Bluestone, B., & Harrison, B. (1988). The growth of low-wage employment: 1963–86.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2), 124–128.
- Böheim, R., & Taylor, M. P. (2002). Tied down or room to mov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tenure, employment status and residential mobility in Britai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9(4), 369–392.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wles, S., Gintis, H., & Groves, M. O. (2009). *Unequal chances: Family background and economic succ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ylan, R. D., & Morgan, J. P. (1993). The Effect of the Number of Diplomas on Their Value. *Sociology of Education*, 66, 206–21.
- Breen, R., & Karlson, K. B. (2014).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New Analytical Approach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1), 107–118.
- Breen, R., & Whelan, C. T. (1993). From ascription to achievement? Origins, education and entry to the labour force in the Republic of Irelan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Acta Sociologica*, 36(1), 3–17.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rown, P. (1995). Cultur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some observations on recent trends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he labour market. *Work, Employment & Society*, 9, 29–51.
- Brown, P., Hesketh, A., & Williams, S. (2004). *The mismanagement of talent: Employability and job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Brzinsky-Fay, C. (2007). Lost in transition? Labour market entry sequences of school 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09–422.
- _____. (2013). The Measurement of School-to-work Transitions as Processes. *European Societies*, 16(2), 213–232.
- Brzinsky-Fay, C., & Solga, H. (2016). Compressed, postponed, or disadvantaged? school-to-work-transition patterns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in west german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doi:10.1016/j.rssm.2016.01.004
- Buchholz, S., & Grunow, D. (2006). Women's employment in West Germany. In H.-P. Blossfeld & H. Hofmeister (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women's careers: An international comparison*(pp. 61–83).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 Buchholz, S., Hofäcker, D., Mills, M., Blossfeld, H. P., Kurz, K., & Hofmeister, H. (2008). Life courses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The development of social inequalities in modern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1), 53–71.
- Buchmann, M.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Entry into adulthood in a changing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chmann, M. C., & Kriesi, 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Brückner, H., & Mayer, K. U.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 actually took place? in Macmillan, R.(Ed.).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Standardized? Individualized? Differentiated?: Standardized? Individualized? Differentiated?* (Vol. 9, pp. 27–53). Elsevier.
- Campbell, C. (2012). Low-wage mobility during the early career.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2), 175–185.
- Caspi, A., Wright, B. R. E., Moffitt, T. E., & Silva, P. A. (1998). Early failure in the labor market: Childhood and adolescent predictors of unemploym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451.
- Cockx, B., & Picchio, M. (2013). Scarring effects of remaining unemployed for long-term unemployed school-leaver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6(4), 951–98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rak, M. (2006). Do Poor Children Become Poor Adults? Lessons from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n John Creedy, Guyonne Kalb (ed.) *Dynamics of Inequality and Poverty (Research on Economic Inequality)*(Vol 13, pp. 143–188).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_____.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 Corcoran, M., & Matsudaira, J. (2005). Is it getting harder to get ahead. in Settersten Jr, R. A., Furstenberg, F. F., & Rumbaut, R. G.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pp. 356–39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ôté, J., & Bynner, J. M. (2008).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the UK and Canada: The role of structure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251–268.
- Crawford, C., Duckworth, K., Vignoles, A., & Wyness, G. (2011). *Young people's education and labour market choices aged 16/17 to 18/19*.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Research Report DFE-RR182.
- Crompton, R. (2006). *Employment and the family: The reconfigur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in contemporary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ziger, S., & Rouse, C. E. (2007). *The Price of Independence: The economics of early adulthood*. Russell Sage Foundation.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
- Dariotis, J. K., Pleck, J. H., Astone, N. M., & Sonenstein, F. L. (2011). Pathways of early fatherhood, marriage, and employment: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Demography*, 48, 593–623.
- Dawson, M. (2012). Reviewing the critique of individualization The disembedded and embedded theses. *Acta Sociologica*, 55(4), 305–319.
- De la Fuente, A. (2011).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New measures of labour market attachment.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2011.57.
- De Vries, M. R., & Wolbers, M. H. J. (2005).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and wages among school leavers in the Netherland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9, 503–525.
- Doeringer, P., & Piore, M. J.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djustment*. New York: DC Heath and Company.
- Dooley, D. (2003).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mental health: Conceptualizing employment status as a continuu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9–20.
- Dore, R. (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London : Allen and Unwin.
- Duncan, O. D., & Hodge, R. W. (1963). Education and occupational mobility a regression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6), 629–644.
- Duncan, G., Ziol-Guest, K. M.,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 Elder, G. H. (1985).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NY/London: Cornell Univ. Press.
- Elder, G. H., & Shanahan M. J.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pp. 665–715). New York: Wiley.
- Elder, G. H., & O’Rand, A. M. (1995). Adult lives in a changing society. in K.S. Cook, Fine, G. A., & House, J. S.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pp. 452–475). Boston, MA: Allyn and Bacon.
- Ellwood, D. T. (198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R. B., Freeman, & D. A. Wise,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pp. 349–39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man, C., & O’Rand, A. M. (2004). The Race Is to the Swift: Socioeconomic Origins, Adult Education, and Wage Attainment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23–160.
- Elzinga, C. H., & Liefbroer, A. C. (2007). De-standardization of family-life trajectories of young adul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using sequence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 225–50.
-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 Wagner, S. (2012). Asymmetries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Intergenerational mobility trends in Europ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4), 473–487.
- Evans, K. (2007). Concepts of bounded agency in education, work, and the personal lives of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2), 85–93.

- Even, W. E., & Macpherson, D. A. (1993). The decline of private-sector unionization and the gender wage gap.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 279–296.
- Faas, C., Benson, M. J., & Kaestle, C. E. (2013). Parent resources during adolescence: effects on education and career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16(2), 151–171.
- Fitzpatrick, M. D., & Turner, S. E. (2008). Blurring the boundary: Changes in collegiate participation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S. Danziger & C. E. Rouse (Eds.) *The price of independence: The economics of early adulthood* (pp. 107–137). Russell Sage Foundation.
- Fortin, N., Lemieux, T., & Firpo, S. (2011). 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In O. Ashenfelter, &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A (pp. 1–102). San Diego, CA: Elsevier North Holland.
- Freeman, R. B., & Wise, D. A. (1982).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In R. B. Freeman &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pp. 1–1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ullerton, A. S. (2009).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 306–347.
- Furåker, B., & Berglund, T. (2008). Changes of employer,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ur market attachment: An analysis of Swedish data from 1972–1998. Gothenburg: University of Gothenburg.
- Furlong, A. (Ed.). (2009).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 Routledge.
- Furlong, A., & F. Cartmel. (2009). *Higher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Furlong, A., Cartmel, F., Biggart, A., Sweeting, H., & West, P. (2003). *Youth transitions: Patterns of vulnerability and processes of social inclusion*.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 Fussell, E. (2005). *Measuring the Early Adult Life Course in Mexico: An*

- Application of the Entropy Index. In R. Macmillan (Ed.),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Standardized? Individualized? Differentiate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 9, pp. 91-122). Amsterdam: Elsevier.
- Furstenberg, F. F. (2008). The intersections of social clas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1-10.
- Furstenberg, F. F., Rumbaut, R. G., & Settersten, R. A.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R. A. Settersten, F. F. Furstenberg, & R.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pp. 3-25). Chicago: Univ. Chicago Press
- Gangl, M. (2002). Changing labour markets and early career outcomes: labour market entry in Europe over the past decade. *Work, Employment & Society*, 16(1), 67-90.
- _____. (2004). Welfare States and the Scar Effects of Unemploy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6), 1319-1364.
- Ganzeboom, H. B., & Treiman, D. J.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01-239.
- García-Mangano, J. (2015). Opting out and leaning in: The life course employment profiles of early baby boom wome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52(6), 1961-1993.
- Gauthier, A. H. (2007). Becoming a young adul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s to adulthoo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4), 217-223.
- Gebel, M. (2009). Fixed-term contracts at labour market entry in West Germany: Implications for job search and first job qualit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 661-675.

- George, L. K. (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 353–373.
- Gibb, S. J.,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12). Childhood family income and life outcomes in adulthood: Findings from a 30-year longitudinal study in New Zealan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4(12), 1979–1986.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Giudici, F., & Pallas, A. M. (2014). Social origins and post-high school institutional pathways: A cumulative dis/advantage approach. *Social science research*, 44, 103–113.
- Goldthorpe, J. H. (2007). *On Sociology*. Vol 2, 2nd ed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gg, P. (2001). The impact of youth unemployment on adult unemployment in the NCDS. *The Economic Journal*, 111(475), 626–653.
- Gregg, P., & Tominey, E. (2005). The wage scar from male youth unemployment. *Labour Economics*, 12(4), 487–509.
- Gregg, P., Harkness, S. & Machin, S. (1999).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Incom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rzywacz, J., & Dooley, D. (2003). “Good jobs” to “bad jobs”: Replicated evidence of an employment continuum from two large surveys. *Social Science & Medicine*, 56, 1749–1760.
- Hakim, C. (2002). Lifestyle preferences as determinants of women’s differentiated labor market careers. *Work and Occupations*, 29(4), 428–459.
- _____, (2003).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3), 349–374.
- Hanappi, D., & Bernardi, L. (2010). Gender, Work, and Vulnerability: a multilevel life course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Labour Process Conference, New Jersey (pp. 15–17).

- Hannan, D. F., Smyth, E., & McCoy, S. (1999).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CATEWE): Volume 1; A Conceptual Framework*.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Hardy, M. A. (1997).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SAGE Publications, Inc.
- Haveman, R., & Wolfe, B.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4), 1829–1878.
- Hayford, S. R. (2009). The evolution of fertility expectation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y*, 46(4), 765–783.
- Heinz, W. R. (1999). *From education to work: cross n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From work trajectories to negotiated careers. in Mortimer, J. T., & Shanahan, M. J.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pp. 185–204).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_____. (2009). Structure and agency in transition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2(5), 391–404.
- Helske, S., Steele, F., Kokko, K., Räikkönen, E., & Eerola, M. (2015). Partnership formation and dissolution over the life course: applying sequence analysis and event history analysis in the study of recurrent event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6(1), 1–25.
- Hill, C., & Holzer, H. (2006). Labor market experience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S. Danziger & C. E. Rouse (Eds.)(pp. 141–169). *The price of independence: The economics of early adulthood*, Russell Sage Foundation.
- Hill, M., & Sandfort, J. R. (1995).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 91–126.
- Horn, L., Peter, K., & Rooney, K. (2002). Profiles of Undergraduates in US Post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1999–2000. *Education Statistics*

- Quarterly*, 4(3), 79–86.
- Hovdhaugen, E. (2015). Working while studying: the impact of termtime employment on dropout rate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8(6), 631–651,
- Hynes, K., & Clarkberg, M. (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hood: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222–239.
- Jenkins, S. P., & Siedler, T.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693. 1–38.
- Jones, B. L., & Nagin, D. S. (2013). A note on a Stata plugin for estimat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2(4), 608–613
- Jones, S., & Riddell, C. (2006). Unemployment and non-employment: Heterogeneities of the labor market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 314–323.
- Julkunen, I. (2009). Youth unemployment and marginalization.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 157.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Perspective of Psychological Compass*, 2, 302–307.
- Kalb, G., Le, T., Hunter, B., & Leung, F. (2014).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for Closing the Gap in Labour Force Status between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Australians. *Economic Record*, 90(291), 536–550.
- Kerckhoff, A. C. (1996).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Social Inequality Series*. Westview Press.
- Kleiner, M. M., & Krueger, A. B. (2010). The prevalence and effects of occupational licensing.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8(4), 676–687.

- Kleinert, C., & Jacob, M. (2013). Demographic changes, labor markets and their consequences on post-school-transitions in West Germany 1975–2005.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2, 65–8.
- Korpi, T., Graaf, P., Hendrickx, J., & Layte, R. (2003) Vocational training and career employment precariousness in Great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Acta Sociologica*, 46, 17–30.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Race, class, and famil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ux, R. (1997). Measuring labour market attachment using the Labour Force Survey, *Labour Market Trends*. Fall, 1361–4819.
- Levine, J. H. (2000). But what have you done for us lately?,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 34–40.
- Little, A. (2007). Inactivity and labour market attachment in Britai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4, 19–54.
- Long,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Lyotard, J. 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Vol. 1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8). Developmental typologies of identity formation and adjustment in female emerging adults: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4), 595–619.
- Madden, D. (2010). Gender differences in mental well-being: a decomposition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1), 101–114.
- Manzoni, A., Härkönen, J., & Mayer, K. U. (2014). Moving on? A growth-curve analysis of occupational attainment and career progression patterns in West Germany. *Social Forces*, 92(4), 1285–1312.
- Marshall, V. W., & Mueller, M. M. (2003). Theoretical roots of the life-course perspective. in W.R. Heinz and Marshall V.W.(Eds.) *Social Dynamics of the Life Course. Transitions, Institutions, and*

- Interrelations*(3–32). New York: Walter de Gruyter, Inc.
- Martin, P., Schoon, I., & Ross, A. (2008). Beyond transitions: Applying optimal matching analysis to life cours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3), 179–199.
- Mayer, K. U. (2001). The paradox of global social change and national path dependencies: Life course patterns in advanced societies. In A. E. Woodward, & M. Kohli (Eds.), *Inclusions and Exclusions in European Societies*(pp. 89–110). London: Routledge.
- Menés, J. R. (2017). Accounting for structural and exchange mobility in models of status attainment: Social fluidity in five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61, 112–125.
- McCullagh, P. (1980). Regression Models for Ordinal Data.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42, 109–142.
- McKnight, A. (2002). From childhood poverty to labour market disadvantage. In J.Bynner, P. Elias, A. McKnight, H. Pan, & G. Pierre. (Eds.), *Young people's changing routes to independence* (pp. 49–66). York, England: Joseph Rowntree Foundation.
- Macmillan, R. (2005).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Classic issues and current controversi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3–24.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McVicar, D. & Anyadike–Danes, M. (2002) Predicting successful and unsuccessful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by using sequence method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65, 317–334.
- Mills, M. (2007). Individualization and the life course: Toward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evidence. In C. Howard (Eds.). *Contested Individualization: Debates about Contemporary Personhood*(pp. 61–80). Springer.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Mills, M., & Blossfeld, H. P. (2006).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the early life course. In H. P. Blossfeld, E. Klijzing, M. Mills & Kurz, K. (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ffitt, T. E. (2002). Teen-aged mothers in contemporary Britai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6), 727–742.
- Modell, J., Furstenberg Jr, F., & Hershberg, T. (1976). Social change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History*, 1(1), 7.
- Mortimer, J. T. (2003). *Working and growing up in America* (Vol. 2). Harvard University Press.
- Mroz, T. A., & Savage, T. H. (2006). The long-term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41(2), 259–293.
- Müller, W., & Gangl, M. (2003).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 European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and New York, 1–22.
- Müller, W., & Shavit, Y. (1998).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Cary: Oxford University Press.
- Mythen, G. (2005). Employment, individualization and insecurity: rethinking the risk society perspective. *The Sociological Review*, 53(1), 129–149.
-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
- _____.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lsen, H. S. (1998). Discrimination and detailed decomposition in a logit model. *Economics Letters*, 61, 115–120.
- Neugarten, B. L. (1970). Dynamics of transition of middle age to old age. adaptation and the life cycle.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4(1), 71.
- OECD. (2008). Off to a good Start? Youth labour market transitions in

- OECD countries,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 _____. (2011).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 _____.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_____. (2015).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 OECD Publishing.
- _____. (2017). Employmen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 Opheim, V. (2007). Equal opportunities? The effect of social background on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work among graduates in Norway.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0(3), 255–282.
- Osgood, D. W., Foster, E. M., & Courtney, M. E. (2010).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209–229.
-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 Petras, H., & Masyn, K.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In A. R. Piquero & Weisburd, D.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pp. 69–100). New York: Springer.
- Pfeffer, F. T., & Hertel, F. R. (2015). How has educational expansion shaped social mobil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4(1), 143–180.
- Piketty, T. (2011). On the long–run evolution of inheritance: France 1820 –205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3), 1071–1131.
- Powers, D. A., Yoshioka, H., & Yun, M. S. (2011). mvdcmp: Multivariate decomposition for nonlinear response models. *Stata Journal*, 11(4), 556–576.
- Raffe, D. A. (2014). Explaining National Differences in Education–work Transitions: Twenty years of research on transition systems. *European Societies*, 16(2), 175–193.

- Rand, William M. (1971). Objectiv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Clustering Method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6(336), 846–850.
- Ratelle, C. F., Guay, F., Larose, S., & Senécal, C. (2004). Family Correlates of Trajectories of Academic Motivation During a School Transition: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743.
- Riley, M. W. (1974). The perspective of age stratification. *The School Review*, 83(1), 85–91.
- Robette, N., & Bry, X. (2012). Harpoon or bait? A comparison of various metrics in fishing for sequence patterns. *Bulletin of Sociological Methodology*, 116(1), 5–24.
- Rodgers, G. (1989) Precarious Work in Western Europe: The State of the Debate, in G. Rodgers & J. Rodgers(Eds.)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pp. 1–16).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 Rojek, C., & Turner, B. (2000). Decorative sociology: Towards a critique of the cultural turn. *Sociological Review*, 48(4), 629–648.
- Rosenbaum, J. E., Kariya, T., Settersten, R., & Maier, T. (1990). Market and network theories of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work: Their application to industrialized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1), 263–299.
- Ross, A., Schoon, I., Martin, P., & Sacker, A. (2009). Family and nonfamily role configurations in two British cohor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71, 1–14.
- Rudd, P. (1997). From Socialisation to Postmodernity: a review of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0(3), 257–279.
- Russell, H., & O’Connell, P. (2001) Getting a job in Europe: The transition from unemployment to work among young people in nine European Countries, *Work, Employment & Society*, 15, 1–24.

- Ryder, 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3–861.
- Scarpetta, S., Sonnet, A., & Manfredi, T. (2010). *Rising youth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6, OECD Publishing.
- Scherer, S. (2001). Early career patterns: A comparison of Great Britain and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119–144.
- _____. (2004). Stepping-stones or traps? The consequences of labour market entry positions on future careers in West Germany, Great Britain and Ital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8, 369–94.
- Schoeni, R. F., & Ross, K. E. (2005). Material Assistance from Famili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 Richard, Settersten Jr., Frank F. Furstenberg Jr., & Ruben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pp 396–416).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 Schoon, I. (2010). Becoming adult: The persisting importance of class and gender. in J. L. Scott, R. Crompton, & Lyonette, C. (Eds.) *Gender inequalities in the 21st century: new barriers and continuing constraints*(pp. 19–39). Edward Elgar Publishing.
- Schoon, I., & Lyons–Amos, M. (2016). Diverse pathways in becoming an adult: the role of structure, agency and contex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6, 11–20.
- Schoon, I., McCulloch, A., Joshi, H. E., Wiggins, R. D. & Bynner, J. (2001).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in a changing social context, *Young Nordic Journal of Youth Research*, 9, 4–22.
- Schoon, I., & Silbereisen, R. K. (Eds.). (2009).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on, I., Ross, A., & Martin, P. (2009). Assumption of Work and Family–Related Roles. I. Schoon and R.K. Silbereisen (Eds.).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sation, Individualisation,*

- and Patterns of Diversity*(pp. 219–24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ettersten, R. J. (2003). Rethinking social policy: Lessons of a life–course perspective. In R. A. Settersten Jr. (Ed.), *Invitation to the life course: Toward new understandings of later life*(pp. 191–224).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 _____. (2005). Social Polic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 Rumbaut, R. G. (Eds.)(pp534–560).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7). Passages to adulthood: Linking demographic change and human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3–4), 251–272.
- Settersten Jr, R. A., & Mayer, K. U. (1997). The measurement of age, age structuring, and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233–261.
- Sewell, W. H., &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 Shannon, C. E. (1948).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Bell System Technological Journal*, 27, 379–423, 623–656.
- Smith, C., Crosnoe, R., & Chao, S. Y. (2016). Family background and contemporary changes in young adults’ school–work transitions and family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6, 3–10.
- Solon, G. (199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3), 393–408.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355–74.
- Steijn, B., Need, A., & Gesthuizen, M. (2006). Well begun, half done? Long-term effects of labour market entry in the Netherlands, 1950–2000. *Work, Employment & Society*, 20(3), 453–472.
- Sun, S., & Chen, F. (2017). Women's employment trajectories during early adulthood in urban China: A cohort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71(2), 320–331.
-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11–24.
- Treiman, D. J. (1970).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Sociological Inquiry*, 40(2), 207–234.
- Triventi, M. (2013).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11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3), 489–502.
- Van de Werfhorst, H. G. (2004). Trends in the effects of education on occupational outcome 1972–2000: Differences between social class and earnings. ASSR Working paper.
- Van de Werfhorst, H. G., Sullivan, A. & Cheung, S. Y. (2003). Social class, ability and choice of subject in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n Britain.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41–62.
- Van Doorslaer, E., & Jones, A. M. (2003). Inequalities in self-reported health: validation of a new approach to measuremen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1), 61–87.
- Van Winkle, Z., & Fasang, A. (2016). Complexity in Employment Life Courses i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Large Cross-National Differences but Little Change across Birth Cohorts. *Social Forces*, 96(1), 1–29.
- Virtanen, P., Lipiäinen, L., Hammarström, A., Janlert, U., Saloniemi, A., &

- Nummi, T. (2011). Tracks of labour market attachment in early middle age: A trajectory analysis over 12 year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2), 55–64.
- Vuolo, M., Mortimer, J. T., & Staff, J. (2014). Adolescent precursors of pathways from school to work.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1), 145–162.
- Warren, J. R., Luo, L., Halpern-Manners, A., Raymo, J. M., & Palloni, A. (2015). Do different methods for modeling age-graded trajectories yield consistent and valid resul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6), 1809.
- Weiss, F., & Roksa, J. (2016). New dimensions of educational inequality: Changing patterns of combining college and work in the US over tim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4, 44–53.
- Widmer, E. D., & Ritschard, G. (2009). The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Are men and women equal?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4(2), 28–39.
- Worts, D., Sacker, A., McMunn, A., & McDonough, P. (2013). Individualization, opportunity and jeopardy in American women's work and family lives: A multi-state sequence analysi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8(4), 296–318.
- Wu, L. L. (2000). Some comments on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 41–64.
- Yun, M-S. (2004). Decomposing differences in the first moment. *Economics Letters*, 82, 275–280.
- Zimmerman, David J. (1992).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in Economic Statu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3), 409–429.

부 록

부록 1: 19-29세 노동시장 장기 미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

<표 A1> 장기 미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

	60 (1962-68)	70 (1969-73)	75 (1974-80)	80 (1981-85)
사례 수(n)	937	541	488	181
노동시장 근착성 상태 평균(월)				
미취업	129.66	127.79	125.55	123.78
학생	1.62	2.04	3.13	2.74
재학노동	0.00	0.15	0.26	0.19
노동	0.72	1.00	1.27	1.42
이탈(attrition)	0.00	1.03	1.79	3.87
가족배경				
아버지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84.20	75.42	63.32	51.93
고등학교 졸업	11.95	18.48	28.28	37.02
전문대 진학 이상	3.84	6.10	8.40	11.05
아버지 직업지위				
단순노무직	5.83	7.10	10.34	8.02
일반기술직	70.75	61.80	51.03	48.15
사무직, 서비스직	19.23	24.01	30.34	32.10
중간수준 전문, 관리직	2.45	4.18	3.68	6.79
전문, 관리직	1.75	2.92	4.60	4.94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여성)	60.09	58.23	57.79	51.38
29세 시점 기혼	75.03	57.12	54.92	31.49
14세 시점 대도시거주	30.04	42.21	41.79	50.56
29세 시점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2.09	9.61	7.58	12.15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50	79.85	74.39	71.82
전문대 졸업	5.55	7.95	14.34	9.9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85	2.59	3.69	6.08
노동시장 조건				
졸업 시점 실업률 평균	7.34	5.58	7.00	7.34

자료: 19-29세 시점에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거나, 전체 기간 중 미상 기간이 80%이상인 사례 중 교육력과 특성 변수가 확인되는 2,1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A2> 장기 미상 집단을 포함한 노동 안정성 다항로짓 모형(60코호트와 80코호트)

	60 코호트						80 코호트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
아버지 교육 (중졸 이하)												
고졸	0.425 (0.319)	0.536* (0.251)	-0.082 (0.213)	1.004 (0.550)	0.384 (0.350)	0.903** (0.312)	0.256 (0.300)	0.719** (0.222)	-0.082 (0.218)	-0.110 (0.570)	0.945** (0.361)	0.761* (0.355)
전문대 이상	0.814* (0.400)	0.544 (0.401)	-0.378 (0.340)	2.117** (0.665)	1.150** (0.432)	1.815*** (0.385)	0.278 (0.418)	0.736* (0.314)	-0.378 (0.339)	-0.477 (1.001)	0.898 (0.475)	0.739 (0.464)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2.894*** (0.307)	-2.970*** (0.261)	0.594* (0.285)	-3.571*** (0.636)	-1.221** (0.430)	-2.677*** (0.325)	-1.123*** (0.327)	-0.957*** (0.254)	-1.515*** (0.235)	-2.763*** (0.769)	-0.641 (0.453)	-0.643 (0.427)
4년제 이상	-0.387 (0.344)	0.456 (0.253)	1.199** (0.465)	-15.62*** (0.418)	2.291*** (0.398)	0.021 (0.331)	0.086 (0.425)	1.868*** (0.347)	-0.391 (0.337)	-0.809 (0.723)	2.369*** (0.474)	1.711*** (0.471)
성별 (여)	-1.937*** (0.391)	1.981*** (0.228)	-3.590*** (0.290)	1.177** (0.417)	3.676*** (0.508)	1.340*** (0.246)	-1.226*** (0.304)	1.124*** (0.225)	-0.623** (0.212)	0.512 (0.511)	3.111*** (0.477)	0.626* (0.318)
거주지 (중소)	0.006 (0.241)	0.255 (0.196)	-1.710*** (0.366)	0.511 (0.424)	0.146 (0.273)	-0.136 (0.245)	0.028 (0.278)	-0.011 (0.204)	0.296 (0.202)	0.224 (0.524)	0.200 (0.322)	-0.038 (0.309)
혼인 (미혼)	1.345** (0.450)	0.081 (0.210)	1.019*** (0.208)	0.748 (0.561)	0.941** (0.299)	0.487 (0.287)	0.082 (0.281)	0.417* (0.211)	0.346 (0.210)	1.942** (0.616)	1.348*** (0.330)	1.118*** (0.317)
실업률	-0.367** (0.131)	-0.704*** (0.101)	-0.063 (0.218)	-0.568** (0.203)	-1.052*** (0.167)	-0.654*** (0.120)	-0.026 (0.179)	-0.189 (0.171)	-0.062 (0.166)	-0.164 (0.248)	-1.103*** (0.306)	-0.121 (0.210)
Constant	0.470 (0.909)	2.594** (0.792)	-0.200 (0.223)	0.081 (1.366)	0.537 (1.142)	1.742 (0.890)	0.179 (1.396)	0.616 (1.332)	1.707 (1.305)	-1.480 (1.908)	2.907 (2.278)	-1.610 (1.669)
Pseudo R2			0.294						0.142			
N			1,576						920			

주 1) #: p<.10, *:p<.05, **:p<.01, ***: p<.001

2) 상대적 위험확률(relative-risk ratio)을 계수로 전환한 값이며, ()안은 Robust S.E. 임.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3) 장기미상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임

부록 2: 직업력 자료의 구조와 조정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은 회고일자리와 비회고일자리인 조사시점 일자리로 구분된다. 1차조사(1998년) 시점 기준 모든 조사대상자의 회고일자리와 매 조사 신규조사자의 회고일자리 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이하 회고일자리), 회고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지난 조사 이후 현 조사시점까지 경험한 모든 일자리’ 정보를 조사한다(이하 조사시점 일자리). 다음 <표 A3>은 직업력의 일자리 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표 A3> 직업력 변수의 구조

구분		일자리 기간 정보		종사상 지위 관측 수	임금 관측 수	
		시작점	종료점			
회고 일자리	종료	○	○	단일값	단일값	
	유지	○	×	회고기간 단일값 + 유지 했수	회고기간 단일값+ 유지 했수	
조사 시점 일자리	신규	종료	○	시작과 종료 2개	시작과 종료 2개	
		유지	○	×	시작과 조사시점 2개	시작과 조사시점 2개
	계속	종료	○	○	유지된 했수	유지된 했수
		유지	○	×	유지된 했수	유지 했수

첫째, 회고일자리면서 그만둔 일자리는 시작점과 종료점, 노동상태와 임금(혹은 소득, 이상 임금으로 표기)을 각각 1개의 값을 갖는다. 현 시점에 그만둔 회고일자리는 과거 4년간 지속된 경우 해당 일자리에 대한 하나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을 갖는다. 즉, 4년 동안의 임금 변화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알 수 없다. 둘째, 회고일자리이면서 조사시점에 유지된 일자리는 하나의 시작점(종료점은 결측), 회고기간에 대한 하나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 회고기간 이후 지속된 했수만큼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을 갖는다. 현 시점 유지된 회고 일자리는 회고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종사상 지위, 임금값을 갖고 조사기간에는 지속된 했수만큼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조사에 참여하기 전 3년간 지속한 일자리를 조사에 참여한 기간 중에도 유지하였다면, 3년에 대해서

는 하나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이 관측되고, 조사에 참여한 뒤부터 2년간은 연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사시점 일자리 중 신규일자리이면서 그만둔 일자리는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대해 각각 2개의 노동상태와 임금값을 갖는데, 신규이면서 유지된 일자리는 종료시점 값이 결측된다. 신규일자리는 일을 지속한 기간만큼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조사 이후 이번 조사 시점까지의 신규 일자리이므로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은 각각 2개가 관측된다. 넷째, 조사시점 일자리 중 유지 일자리는 시작점(종료점은 결측)과 지속된 햇수만큼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값을 가짐. 즉, 조사일자리는 조사된 햇수만큼의 연간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본 연구는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개인-일자리-기간’ 에피소드 자료로 전환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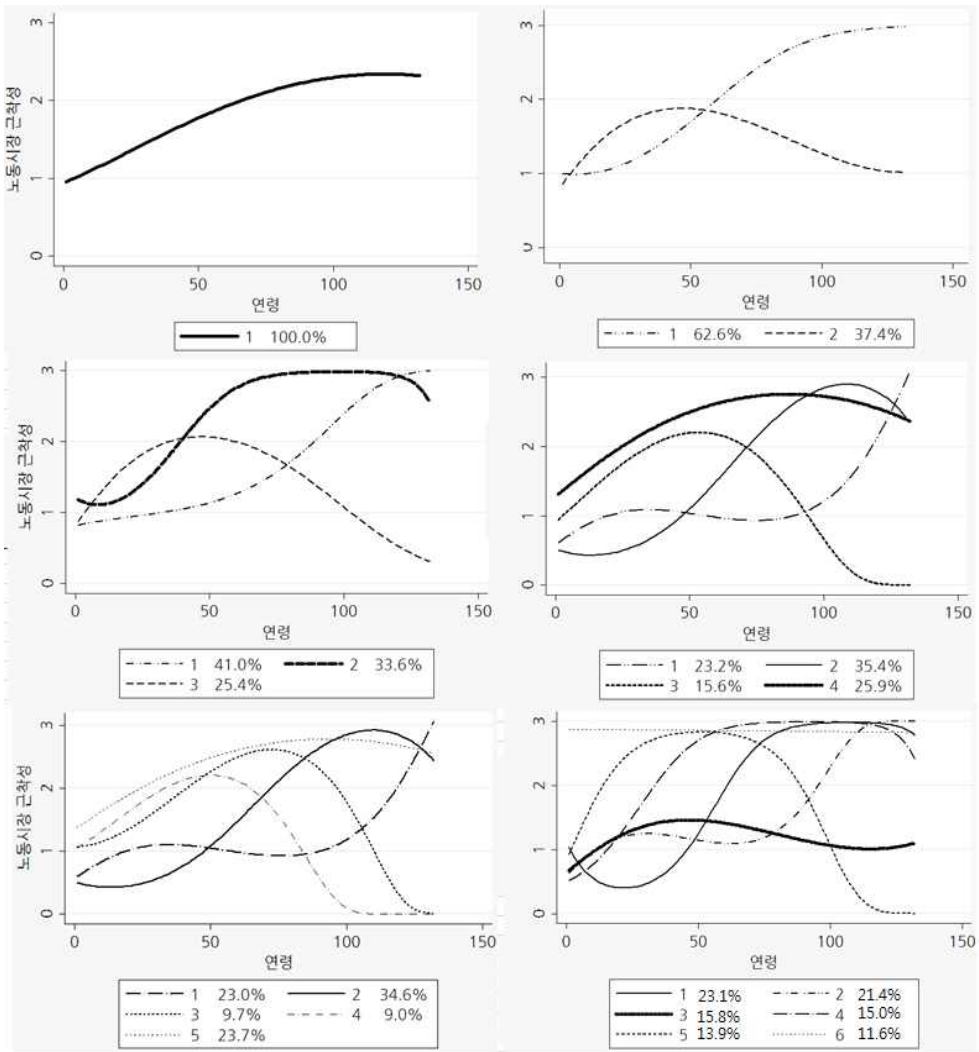
첫째, 유지일자리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이므로 일을 그만둔 시점을 의미하는 종료시점의 값이 없다. 종료시점이 없는 경우 에피소드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름. 본 연구에서는 유지된 일자리의 종료시점을 각 연도의 조사시점으로 대체하였다.

둘째, 변화가 관측되는 주기이다. 직업력 자료는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의 시점, 종사상 지위, 임금 관측 주기가 다르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개인-기간’ 에피소드로 전환할 경우, 개인마다 변화가 관측되는 주기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둔 일자리의 회고정보만 있는 개인은 해당 일자리의 연간 변화를 알 수 없고, 이직한 경우(일을 그만두고 옮긴 경우)에만 종사상 지위, 임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시점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고일자리, 신규 일자리, 유지일자리 정보가 있는 개인은 동일 일자리의 연간 종사상지위와 임금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회고자료의 비중이 큰 60코호트는 20대 시점의 임금수준이 과대추정 될 수 있다. 60코호트와 최근 코호트 노동 안정성 궤적을 비교 분석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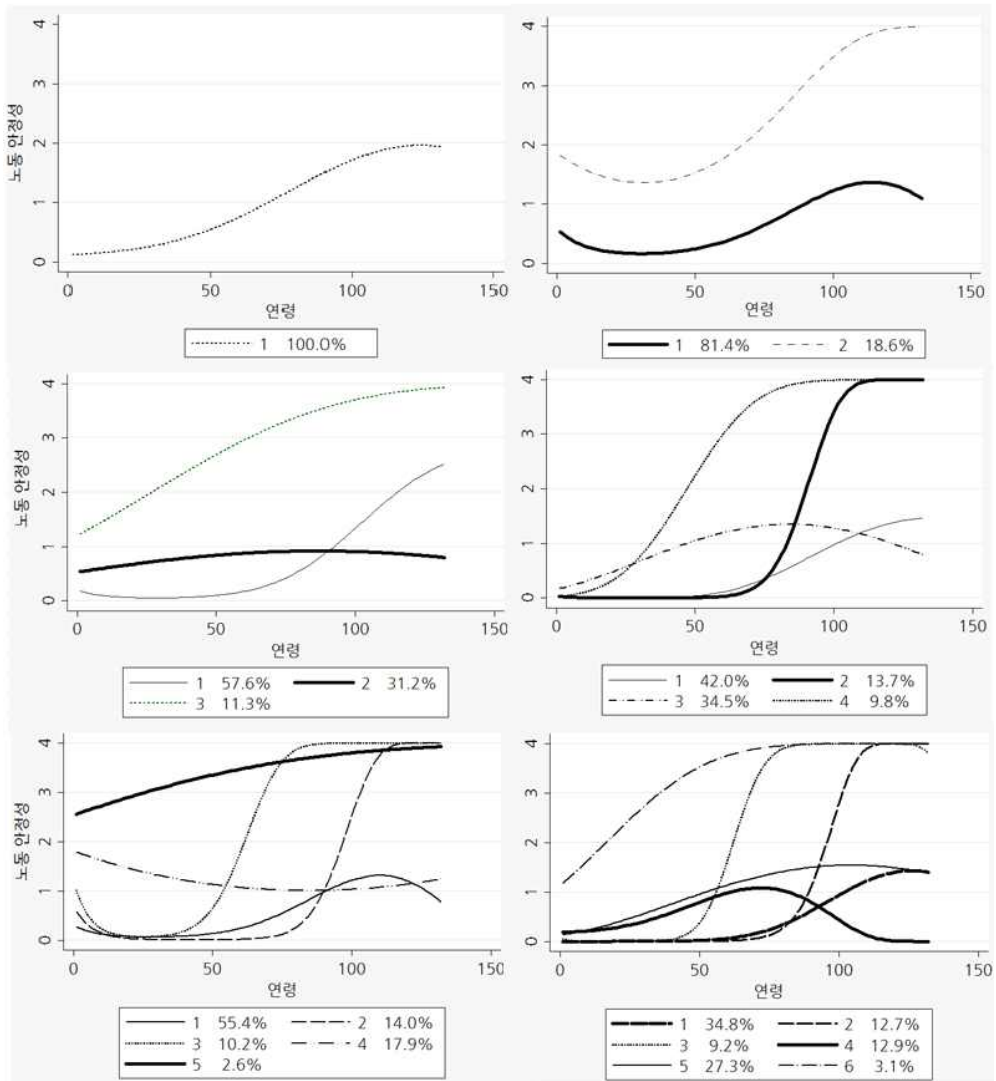
셋째, 일자리의 관측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직업력 자료는 경험한 모든 일자리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특정 시기에 여러 개의 일을 한 경우(특히 아르바이트)에는 일을 한 시기가 겹칠 수 있다. 둘째, 한 달 미만 지속된 일자리 혹은 한 달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일자리의 시기가 겹친다. 마지막으로, 조사오류로 일자리가 관측된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이행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을 시작한 시점의 순서대로 일자리 배열을 구성하였다.

높은 연령에 경험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나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견된 일자리가 기존 일자리의 값을 대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첫 번째 일(A)을 하였고,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 일(B)을 했다면, 일자리 배열은 'AAAB'가 아니라 'AABB'로 구성된다.

부록 3: 유형의 수 증가에 따른 궤적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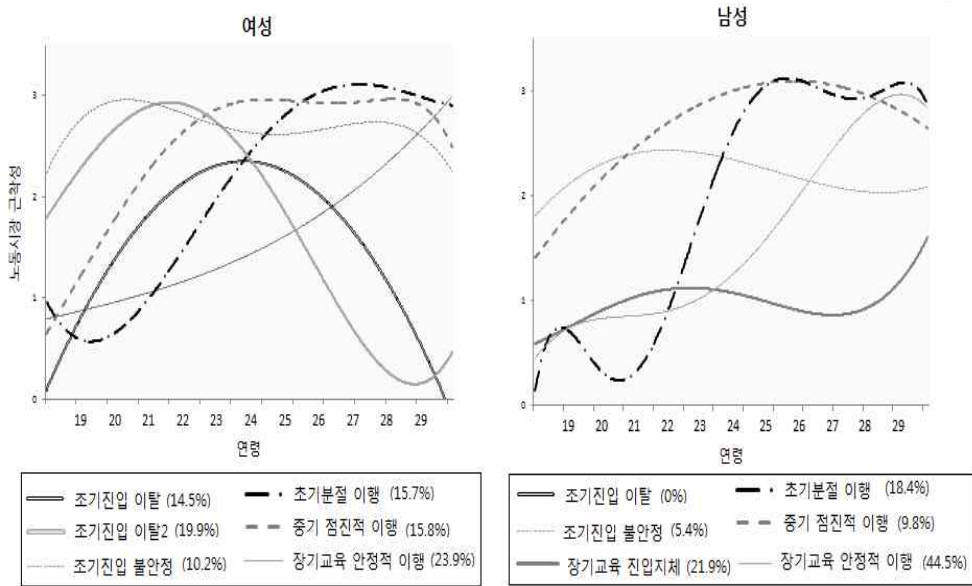


<그림 A1>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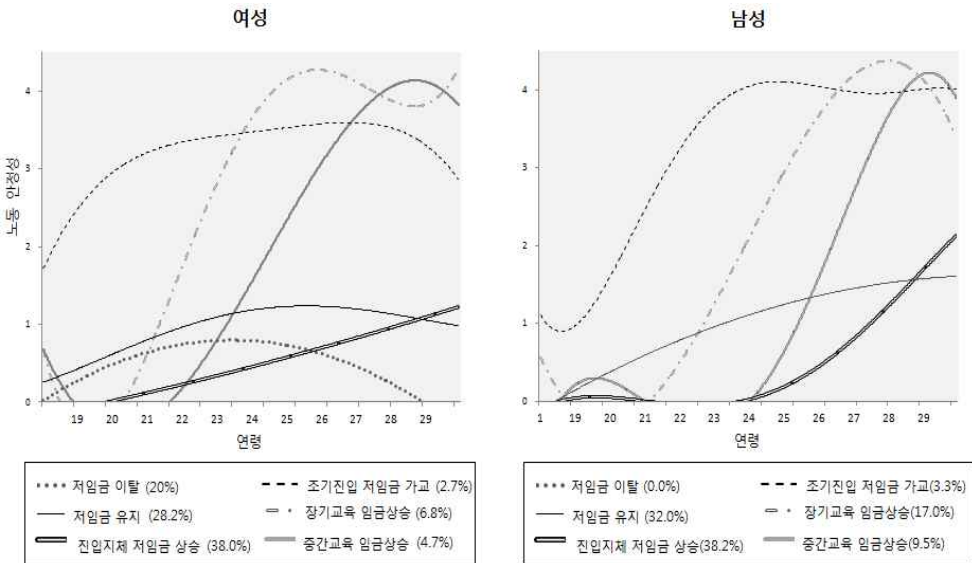


<그림 A2> 노동 안정성 궤적 분화

부록 4: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근착성 및 노동 안정성 궤적 분석 결과



<그림 A3> 성별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그림 A4> 성별 노동 안정성 궤적

부록 5: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궤적 통합 모형

<표 A4> 아버지 교육수준과 노동 안정성 통합 모형

	부 교육수준 직접효과 모형 (OLS)				부 교육수준 총효과 모형 (OLS)			
	60	70	75	80	60	70	75	80
노동시장 근착성 궤적	0.354*** (0.033)	0.299*** (0.025)	0.272*** (0.019)	0.201*** (0.025)	0.407*** (0.032)	0.373*** (0.024)	0.325*** (0.018)	0.244*** (0.024)
아버지 교육 (중졸 이하)								
고졸	0.072 (0.143)	0.138 (0.104)	0.149* (0.069)	0.195* (0.090)	0.145 (0.139)	0.238* (0.102)	0.226** (0.070)	0.271** (0.090)
전문대 이상	0.407* (0.183)	0.128 (0.155)	0.076 (0.099)	0.187 (0.130)	0.536** (0.175)	0.378* (0.156)	0.276** (0.098)	0.352** (0.127)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205 (0.185)	0.329** (0.120)	0.222** (0.078)	0.127 (0.102)				
4년제 이상	0.519** (0.161)	0.725*** (0.113)	0.618*** (0.077)	0.576*** (0.103)				
성별(여)	0.687*** (0.133)	0.754*** (0.097)	0.754*** (0.066)	0.760*** (0.081)	0.627*** (0.137)	0.668*** (0.099)	0.709*** (0.068)	0.686*** (0.084)
거주지역 (중소도시)	-0.015 (0.110)	-0.055 (0.087)	-0.051 (0.062)	0.052 (0.083)	0.010 (0.107)	-0.017 (0.088)	-0.035 (0.064)	0.071 (0.085)
혼인상태 (미혼)	0.174 (0.119)	0.242** (0.091)	0.255*** (0.063)	0.358*** (0.085)	0.148 (0.118)	0.244** (0.093)	0.226*** (0.064)	0.362*** (0.088)
실업률	-0.024 (0.060)	-0.026 (0.021)	0.015 (0.015)	-0.050 (0.058)	-0.106* (0.044)	-0.002 (0.020)	0.032* (0.016)	-0.104# (0.057)
Constant	1.166* (0.456)	1.119*** (0.169)	0.855*** (0.140)	1.382** (0.461)	1.723*** (0.351)	0.977*** (0.165)	0.775*** (0.141)	1.821*** (0.454)
R2	0.333	0.312	0.278	0.219	0.328	0.276	0.251	0.185
F	76.52	63.21	106.44	38.92	99.92	74.79	123.14	42.12
N	714	868	1606	831	742	886	1,611	832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자료: 일자리의 임금·소득이 확인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A5> 아버지 직업지위와 노동 안정성 통합 모형

	부 직업지위 직접효과 모형 (OLS)				부 직업지위 총 효과 모형(OLS)			
	60	70	75	80	60	70	75	80
노동시장 근착성 계적	0.336*** (0.035)	0.297*** (0.027)	0.278*** (0.019)	0.208*** (0.026)	0.390*** (0.033)	0.366*** (0.025)	0.329*** (0.019)	0.252*** (0.025)
아버지 직업 (일반기술, 단순노무직)								
사무직	0.075 (0.138)	0.034 (0.105)	0.184* (0.075)	-0.039 (0.098)	0.133 (0.134)	0.153 (0.107)	0.249*** (0.075)	0.015 (0.099)
전문, 관리직	0.348 (0.186)	0.193 (0.148)	0.141 (0.098)	0.051 (0.135)	0.466** (0.179)	0.429** (0.151)	0.300** (0.097)	0.147 (0.135)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299 (0.204)	0.372** (0.125)	0.204* (0.083)	0.109 (0.107)				
4년제 이상	0.457** (0.171)	0.676*** (0.116)	0.563*** (0.081)	0.568*** (0.108)				
성별(여)	0.735*** (0.143)	0.792*** (0.102)	0.763*** (0.070)	0.723*** (0.088)	0.677*** (0.145)	0.703*** (0.104)	0.725*** (0.072)	0.639*** (0.092)
거주지역 (중소도시)	0.038 (0.124)	-0.119 (0.092)	-0.056 (0.065)	0.060 (0.088)	0.042 (0.122)	-0.091 (0.093)	-0.026 (0.066)	0.099 (0.089)
혼인상태 (미혼)	0.208 (0.129)	0.221* (0.095)	0.259*** (0.066)	0.304*** (0.091)	0.164 (0.127)	0.225* (0.096)	0.234*** (0.067)	0.305** (0.094)
실업률	-0.080 (0.061)	-0.016 (0.022)	0.024 (0.016)	-0.061 (0.069)	-0.147** (0.046)	0.010 (0.021)	0.038* (0.017)	-0.122 (0.068)
Constant	1.556*** (0.548)	1.070*** (0.161)	0.785*** (0.150)	1.573** (0.539)	2.019*** (0.374)	0.933*** (0.167)	0.708*** (0.152)	2.085*** (0.535)
R2	0.333	0.324	0.282	0.192	0.330	0.293	0.260	0.159
F	64.96	58.82	99.31	28.91	87.09	70.56	114.89	30.19
N	639	772	1,463	739	639	772	1,463	739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자료: 일자리의 임금·소득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부록 6: 거시적 환경 변수 추가 모형

<표 A6> 노동시장 근착성 모형

	아버지 교육수준 (OLS)				아버지 직업지위 (OLS)			
	60	70	75	80	60	70	75	80
아버지 교육 (중졸 이하)								
고졸	0.371** (0.132)	0.097 (0.112)	0.229** (0.077)	0.238* (0.110)				
전문대 이상	0.150 (0.186)	0.057 (0.162)	0.251* (0.108)	0.356* (0.146)				
아버지 직업 (일반기술, 단순노무직)								
사무직					0.047 (0.136)	0.097 (0.124)	0.153 (0.083)	0.269* (0.108)
전문, 관리직					0.061 (0.176)	0.255 (0.160)	0.125 (0.109)	0.371** (0.142)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435* (0.202)	0.698*** (0.168)	0.452*** (0.103)	0.260 (0.133)	0.541* (0.222)	0.593** (0.182)	0.450*** (0.108)	0.238 (0.136)
4년제이상	1.017*** (0.166)	1.372*** (0.153)	0.947*** (0.105)	0.719*** (0.135)	1.090*** (0.177)	1.298*** (0.170)	1.015*** (0.109)	0.676*** (0.139)
성별(여)	1.482*** (0.119)	1.099*** (0.106)	0.942*** (0.072)	0.446*** (0.101)	1.417*** (0.127)	1.124*** (0.114)	0.951*** (0.075)	0.342** (0.107)
거주지역 (중소도시)	-0.063 (0.108)	0.076 (0.098)	-0.148* (0.070)	-0.236* (0.095)	0.003 (0.120)	0.006 (0.105)	-0.134 (0.074)	-0.259** (0.100)
혼인상태 (미혼)	-0.155 (0.109)	-0.190* (0.094)	-0.270*** (0.069)	-0.149 (0.097)	-0.133 (0.118)	-0.250* (0.100)	-0.283*** (0.072)	-0.159 (0.103)
실업률	-0.208** (0.079)	0.072** (0.027)	0.010 (0.018)	-0.110 (0.113)	-0.226** (0.084)	0.063* (0.029)	0.009 (0.019)	-0.142 (0.106)
GDP	0.040 (0.021)	-0.004 (0.014)	-0.010 (0.008)	-0.055* (0.026)	0.044* (0.022)	-0.005 (0.014)	-0.012 (0.008)	-0.045 (0.027)
대학진학률	-0.038 (0.065)	0.025 (0.037)	-0.005 (0.005)	-0.009 (0.010)	-0.041 (0.068)	0.019 (0.038)	-0.003 (0.005)	-0.011 (0.011)
서비스 일자리	0.018 (0.010)	-0.005 (0.010)	0.002 (0.012)	-0.008 (0.009)	0.022* (0.011)	0.001 (0.010)	-0.002 (0.012)	-0.009 (0.009)
청년인구	-0.143* (0.067)	0.043 (0.051)	-0.061* (0.031)	-0.047 (0.042)	-0.134* (0.068)	0.039 (0.056)	-0.055 (0.031)	-0.063 (0.042)
Constant	7.671** (2.136)	0.772 (1.676)	4.773*** (1.539)	7.001*** (1.599)	7.468** (2.687)	0.844 (2.050)	4.802*** (1.382)	7.775*** (1.733)
R2	0.287	0.210	0.169	0.096	0.278	0.221	0.173	0.089
F	30.11	23.60	30.30	7.34	24.69	22.43	29.05	6.31
N	983	1,167	2,008	1,011	863	1,041	1,833	908

주 1) #: p<.10, *:p<.05, **:p<.01, ***: p<0.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실업률은 최종 학교 졸업 시점의 15-29세 청년 실업률임. GDP, 청년인구비율, 서비스업중 비중도 최종 학교 졸업 시점 값임. 대학진학률은 첫 대학진학시점의 대학진학률로, 미진학자는 최종학교 졸업시점임.

<표 A7> 노동 안정성 모형

	아버지 교육수준 (OLS)				아버지 직업지위 (OLS)			
	60	70	75	80	60	70	75	80
아버지 교육 (중졸 이하)								
고졸	0.208 (0.153)	0.158 (0.109)	0.211** (0.072)	0.217* (0.095)				
전문대 이상	0.452* (0.210)	0.139 (0.168)	0.126 (0.104)	0.228# (0.134)				
아버지 직업(r 일반기술, 단순노무직)								
사무직					0.112 (0.146)	0.053 (0.110)	0.221** (0.079)	-0.029 (0.100)
전문, 관리직					0.348# (0.206)	0.262 (0.161)	0.163 (0.104)	0.077 (0.138)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0.428* (0.213)	0.527*** (0.144)	0.307*** (0.083)	0.148 (0.109)	0.595* (0.236)	0.502** (0.153)	0.286** (0.089)	0.112 (0.117)
4년제이상	1.015*** (0.198)	1.105*** (0.148)	0.795*** (0.090)	0.625*** (0.121)	1.018*** (0.211)	0.988*** (0.163)	0.752*** (0.095)	0.591*** (0.131)
성별(여)	1.255*** (0.127)	1.059*** (0.097)	0.977*** (0.067)	0.793*** (0.090)	1.258*** (0.137)	1.102*** (0.102)	0.987*** (0.072)	0.713*** (0.096)
거주지역 (중소도시)	-0.031 (0.119)	-0.025 (0.091)	-0.094 (0.065)	0.002 (0.085)	0.036 (0.133)	-0.107 (0.097)	-0.098 (0.068)	-0.003 (0.089)
혼인상태 (미혼)	0.131 (0.127)	0.191* (0.094)	0.172** (0.065)	0.356*** (0.087)	0.181 (0.137)	0.157 (0.097)	0.171* (0.069)	0.300** (0.092)
실업률	-0.016 (0.099)	-0.008 (0.026)	0.020 (0.016)	-0.047 (0.076)	-0.061 (0.097)	-0.002 (0.027)	0.027 (0.017)	-0.066 (0.098)
GDP	-0.015 (0.023)	0.006 (0.012)	-0.011 (0.008)	-0.031 (0.022)	-0.017 (0.024)	0.005 (0.012)	-0.012 (0.009)	-0.047 (0.024)
대학진학률	-0.019 (0.078)	0.071* (0.035)	-0.011* (0.004)	-0.035*** (0.010)	-0.005 (0.081)	0.084* (0.036)	-0.011* (0.005)	-0.042*** (0.010)
서비스 일자리	-0.010 (0.010)	-0.001 (0.009)	0.015* (0.006)	0.003 (0.008)	-0.015 (0.010)	0.004 (0.009)	0.012* (0.006)	0.002 (0.008)
청년인구	0.011 (0.081)	-0.028 (0.046)	-0.025 (0.022)	-0.067 (0.039)	0.051 (0.083)	-0.029 (0.048)	-0.035 (0.023)	-0.089* (0.041)
Constant	3.097 (2.752)	0.075 (1.773)	1.933* (0.806)	5.891*** (1.507)	2.083 (2.881)	-0.618 (1.796)	2.340** (0.797)	7.287*** (1.566)
R2	0.254	0.238	0.215	0.189	0.263	0.252	0.216	0.169
F	28.39	29.11	49.22	22.17	25.26	28.40	46.33	16.50
N	673	868	1,603	828	600	772	1,462	736

주 1) #: p<.10, *:p<.05, **:p<.01, ***: p<0.001

2) ()안은 Robust S.E. 임.

3) 변수의 괄호안은 기준변수의 값임. 실업률은 최종 학교 졸업 시점의 15-29세 청년 실업률임. GDP, 청년인구비율, 서비스업중 비중도 최종 학교 졸업 시점 값임. 대학진학률은 첫 대학진학시점의 대학진학률로, 미진학자는 최종학교 졸업시점임.

Abstract

A Study of Change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Differing work trajectories among South Korean young
adults in the 1960–80 cohort

Geumsun B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dissertation compares the change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STWT) process during ages 19 to 29 among the 1960–80 birth cohor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family background influenced differences.

Recent problems occurring among young adults can be summarized as failure to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have complicated and destabilized South Korean young adults'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As education levels have risen, the transition period has become extended, leading to a failure to transition into an unstable labor market. Even if transition is successful, the number of young adults in low-wage work or unstable labor conditions has increased. Moreover, 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dependence on paren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along with increasing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educational stratification, the transition process may vary according to family background. In order to support a smooth and stable transition process for young adul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transition process and dynamics. However, existing studies apply a micro or macro theoretical lens to isolated points in the transition process without provid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overall transition process, providing empirical analysis only of the changes and factors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add to, and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this study first provides an analysis of the 1960–80 birth cohort's school-to-work transition based on Life-course theory, which incorporates both macro and micro theory. Second, it defines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s “the process of entering and settling into the labor market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classifying it as the work trajectory for those aged 19–29 years of age. Third, in order to highlight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process, changes in status were calculated through labor market attachment and work precariousness. Labor market attachment evaluates employment status change prior to entering the labor market along with how long employment is maintained after transition, while work precariousness reflects quality of employment through wage and status of workers. Lastly, the determining factors for each type of transition process was identified systematically. In order to classify the disparities observed among the population for this research,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which is a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the work trajectory and trajectory distribution among the cohort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rough Ordinary Least Squares (OLS) and the decomposition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changes in the determining factors among the cohort.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individual and supplemental data, and work history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o compile monthly data for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for 19–29 year-old subjects born between 1962 and 1985.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ransition processes among the cohort, subjects were divided into a total of four birth cohorts (60 cohort: 1962–68, 70 cohort: 1969–73, 75 cohort: 1974–80, 80 cohort: 1981–85) based on socioeconomic events and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Employment-related data was available for 5,653 cases, and 4,332 had available income data.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in labor market attachment and work precariousness for those between 19 and 29 years of age can be classified into six trajectories. Labor market attachment can be classified as; 1) early entry and exit, 2) early entry and unstable, 3) extended education, deferred entry, 4) initial segmented transition, 5) mid-term gradual transition, and 6) extended education, stable transition. Work precariousness can be classified; as 1) low-wage work entry, aborted, 2) low-wage work maintained, 3) delayed entry, low-wage increase, 4) early entry, stepping stone, 5) extended education, increased wage, and 6) mid-way entry increased wage.

Second, analysis of the trajectory distribution among the cohort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show that recent cohorts' school-to-work transition has become unstable. Cases of late entry into the labor market due to extended periods of education have increased while cases of early entry and departure from the labor market have decreased. The 'enrolled in college-employed' category has increased showing that labor market attachment has increased for more recent cohorts. However, figures showing diversity in status activities such as entropy, number of changes in status, and the turnover have all

increased for the most recent cohort. Moreover, fragmentation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has also increased leading to a longer period of unemployment for the most recent cohort. This indicates that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ha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Adding to this, employment stability for young adults has decreased recently. Cases of direct entry into positions of medium or high wage have decreased for the most recent cohort and cases of entering 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low-wage work have increased.

Third,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transition process can be explained with gender and education level. Levels of labor market attachmen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for females while they also faced decreased levels of employment stability. While the increase of female's economic activity has improved labor market attachment for the most recent cohort, wage for women maintain a lower level than men, with the gap increasing even more. This indicates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nd increased economic activity has not translate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women. In addition, as levels of education increase, differentiation among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of 4-year college degrees or higher has been observed. As instability in the transition process increases, the number of young adults experiencing low-wage work grow and the highly-educated were not an exception. Among the most recent cohort, young adults classified as 'extended education, low-wage increase' have decreased substantially, being replaced by 'delayed entry, low-wage increase.' Based on OLS and decomposition method, the increase in highly educated young adults (characteristic effects) increased employment security while the impact on higher education to increase employment security has diminished leading to a decrease in employment security for the most recent cohort.

Fourth, a disadvantaged family background increased the likelihood of young adults experiencing a labor market transition with lower labor market attachment and employment security. The distribution in employment security trajectory for labor market attachment and work precariousness based on paternal education level widened for the most recent cohort. For the labor market attachment, the ratio of young adults whose fathers either graduated high school or started college experienced an increase while those whose fathers attained low levels of education with middle school or lower maintained similar levels. While those with fathers of low education levels (middle school or lower) showed a continuous increase in 'low-wage work maintained' status within the work precariousness trajectory, those whose fathers had higher education levels (at least high school or 2-year college) did not show a meaningful change in the 'low-wage work maintained' ratio. Though the coefficient for paternal education level showed little change in the decomposition method, analysis showed a continued static influence of high-level paternal education on labor market attachment and work precariousness.

These results show that macroeconomic factors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at negatively impact the school-to-work transition do not have the same impact on all young adults.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s are concentrated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ose traditionally disadvantaged in employment such as women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along with evidence showing that family background has a partial influence on stratification. This shows that the phenomenon of growing instability and polarization of transition, in which the disparity between young adults who are able to get high-quality job and those who are not continues to grow, can be observed among South Korean young adults.

This research makes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by providing an empirical, life-course analysis identifying the change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for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 subject that had not received enough scholarly attention. In addition, it also contributes to accelerating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the labor market entrance for young adults and has further significance in the theorization of study of young adults' school-to-work transi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discussed, this dissertation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The recent failure to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witnessed among young adults should be understood as structural change rather than a temporary issue. Increased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labor market for young adults is a result of changes to micro, individual-level, life-courses that arise in response to changes in macro-level environments.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help young adults address the life-course risk that they are faced with. In addition, while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ose with traditionally lower levels of success in transitions, such as women, those with low-education, and disadvantaged youths are neede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hat address the increased instability resulting from increased education attainment and support the transition of highly educated young adults into the labor market.

Keywords: school-to-work transition, work trajectory, work precariousness, young adults, Korean young adults,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cohort analysis, Life-course theory, stratification

Student Number : 2011-30876